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제주 학생 동인 ‘석좌(石座)’ 연구

조 미 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23년 8월

# 제주 학생 동인 ‘석좌(石座)’ 연구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조 미 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김 동 윤

조미경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장인수



위 원

고병섭



위 원

김동윤



# 목 차

초록 .....	i
<b>I. 서론 .....</b>	<b>1</b>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목적과 방법 .....	4
<b>II. 전란 후의 제주 문학과 학생 동인 .....</b>	<b>7</b>
1. 전란 후 제주 사회의 변화와 문학기 동향 .....	7
2. 제주 학생 문단의 활성화 .....	15
3. 학생 동인과 동인지의 등장과 전개 .....	27
<b>III. ‘석좌(石座)’ 동인의 활동 .....</b>	<b>37</b>
1. 동인 결성의 배경과 취지 .....	37
2. 동인 활동의 양상 .....	45
3. 《석좌(石座)》의 서지적 고찰 .....	65
<b>IV. 《석좌(石座)》의 작품세계 .....</b>	<b>73</b>
1. 금기된 4·3의 틈새 담론 .....	74
2. 한국전쟁의 상흔과 공동체 복귀 .....	79
3. 단절된 섬과 자기 존재의 증명 .....	91
<b>V. ‘석좌(石座)’ 동인의 문학적 행보와 그 의미 .....</b>	<b>98</b>
<b>VI. 결론 .....</b>	<b>114</b>
참고문헌 .....	117
ABSTRACT .....	126

# 제주 학생 동인 ‘석좌(石座)’ 연구

조 미 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요약

이 연구는 제주 학생 동인 ‘석좌’가 결성된 배경과 취지, 동인 구성 및 활동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석좌》를 발굴해 그 전모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석좌’는 1956년 4월 제주시내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돌’로 상징되는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결성한 동인이다. 졸업과 진학으로 인해 회원 구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석좌’를 거쳐 간 동인은 고치문, 김광협, 김철희, 박호길, 손춘, 장순용, 전달문, 전현규, 정영택, 조진춘,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 홍희구 등 14명이다. 당시 문학청년이었던 김영돈의 중학교 제자들이 구심이 돼서 《석좌》 창간호와 제2집을 발간했는데, 제호는 현기영이 지었다.

‘석좌’의 활동 시기는 적어도 1975년 10월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석좌’의 동인 활동은 학생 동인에서 성인 동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했다. 학생 동인일 때는 동인지를 발간하고, 문인 초청 좌담회 등 도내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백일장 및 문학작품 공모에 투고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성인 동인이 되어서는 당시 발표된 문제작을 중심으로 작품 합평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작 공부에 열을 올렸으며, 작품 현상모집과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문학후속세대를 견인하고, 제주의 문화 기반을 다지는 주체로 성장했다. 또한, 신문과 기관지 등 지역 매체에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하면서 제주 문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던 《석좌》 창간호와 제2집은 2009년 12월 현길언의 기증으로 현재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석좌》 제1집의 판형은 18.3×24cm이며, 지질은 갠지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있으며 가로쓰기로 좌우 이단 편집된 등사본이다. 발행인은 ‘石座클럽’이고, 발행일은 1957년 7월 26일이다. 소설 4편과 수필 7편이 실려있다. 《석좌》 제2집의 크기는 17.7×24.7cm이고 지질은 갠지, 등사본

이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였으며 세로쓰기의 상하 이단 편집으로 제작되었다. 발행인은 ‘石座同人’이고, 발행일은 1957년 12월 25일이다. 시 2편과 소설 7편이 수록됐다.

《석좌》의 작품세계를 4·3과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과 제주(섬)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4·3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은 4·3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입체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는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단계’에 창작된 작품들이 갖는 특징이다. 하지만 4·3이 금기의 영역이었던 시대 상황과 창작자가 4·3을 다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침묵을 강요받던 4·3의 틈새를 비집고 의미를 도출하려 했던 이들의 문학적 실천과 용기는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전쟁 일반의 참혹함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면 소설에서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전쟁의 생리와 전후(戰後)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려냈다. 고향 상실과 가족 해체, 상이군인의 훼손된 신체 등 한국 전후소설에서 강조되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아 기성 문인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주(섬)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에서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재인식하게 된 고향 제주(섬)는 척박하고 가난한 곳으로 부정된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서울(도시)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들은 상급 학교의 진학을 계기로 고향으로부터의 탈주를 시도하는데 이는 1950년대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교육열을 반영한 것이다. 고된 타향살이에서 돌아와 마주한 고향은 원래의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회복하지만, 이들을 고향으로 이끌었던 강한 구심력은 순식간에 고향을 좌절과 실패의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고향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실패의 공간인 섬을 뒤로 한 채 바다로 뛰어든 수밖에 없다. 당대 제주(섬)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고향의 이미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한 것으로 보인다.

현기영, 현길연, 전현규를 중심으로 살펴본 ‘석좌’ 동인의 문학적 행보가 갖는 의미는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석좌’의 결성 취지가 이들의 창작 도정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었다는 점이다. 제주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이들이 등단 전까지 발표한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학생 동인 ‘석좌’ 안에서 품었던 문학관은 이들에게 제주를 창작의 주요 제재로 삼으면서 제주 문학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주체로 성장하게 했다. 이들은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

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석좌'의 첫 마음을 실현해낸 것이다.

제주 문학사에서 '석좌'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다층적이다. 제주 출신 작가의 4·3 문학 시발을 알리면서 197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전개될 제주소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학생 문인들의 문학적 열망을 온축하고 있는 동인지 《석좌》는 1980년대 한국 문단의 한 축이 된 현기영, 현길언의 문학적 근간을 밝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석좌'의 문단 진입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문학의 한계를 문단 제도권 밖에서 극복한 제주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게 했다. '석좌'의 제주 문학 저변 확대라는 성과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I. 서론

## 1. 문제 제기

한국전쟁은 후방의 피난지를 중심으로 문학사회의 지역 재편을 이루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기 당시 가장 안전한 피난지로 꼽혔던 제주에는 전례 없는 문인들의 체류와 왕래가 이어졌고, 이는 '4·3'으로 위축되었던 지역 문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내도한 계용묵, 장수철 등이 지역민들과 교류를 이어갔고, 이 중 계용묵은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종합교양지와 동인지 발간을 주도하고 문학청년을 지도함으로써 지역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피난 문인들이 떠난 공백을 김영삼, 문덕수 등 강의를 위해 제주에 온 문인들이 메우면서 지역 문단의 재편은 물론 문학후속세대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인지와 동인지 성격을 띤 기관지가 발행되는 등 청년 문사들의 동인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문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동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동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50년대 제주 문단은 문학을 애호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인을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동인지 창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4·3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문학후속세대들의 동인지 결성과 동인지 발간은 한국 문단의 한 축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 우리 문학의 면모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학생 동인의 양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문학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동인지나 그들이 발간한 동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순욱에 의해 부산지역의 학생 동인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sup>1)</sup>, 한정호에 의해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1~3집의 자료가 공개되었으며<sup>2)</sup>, 이동순

1) 이순욱은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에서 발간된 학생 동인지의 현황과 성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정전협정 이후 부산 지역 동인을 기성 문인과 학생 문인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역 문학 사회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폈다(『정전협정 이후 부산지역 동인지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5). 또한, 광복기 부산 지역의 사학인 남조선법문학원(현 동아대학교의 전신)에 다니던 학생들이 주도한 동인지 《소예군상》의 체제와 성격을 밝히고, 《소예군상》 제3집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 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근대서지학회, 2012).



은 학생 문예지와 광주고등학교 문예부의 활동 등을 통해 광주 학생 문인들이 지역 문학과 현대시 문단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sup>3)</sup> 이는 새롭게 발굴한 지역 매체의 실체를 드러내고, 학생 동인지 발간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 문학과 연계성을 규명함으로써 지역 문학 사회에서의 학생 문학 활동의 문학사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제주 문학과 관련해서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학생 동인을 추적하고 그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는 연구는 전무하다.

문학후속세대로서 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학생 동인 연구는 문학 사회의 동향과 특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한국 문학사와 제주 문학사의 결락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 동인들이 발간한 동인지는 한 작가의 등단 이후의 성과들을 파악하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학사회의 주류적 관점을 재구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sup>4)</sup> 이에 1950년대 후반 제주 학생 동인 연구는 제주 문학사의 분절된 부분을 잇는 역할을 할 것이며, 창작의 도정에서 제주 작가들의 4:3과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발현되고 확장되는지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1950년대 당시 결성된 제주도내 학생 동인은 ‘영실천(靈室泉)’, ‘별무리’, ‘석좌(石座)’, ‘창림(蒼林)’이다. 이 중에서 ‘석좌’는 다른 동인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제주 시내 중·고등학생들이 결성한 연합동인이라는 점과 학생 신분으로 시작한 동인 활동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이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학생 연합동인회는 당시 학생 문단의 담론을 모으는 장이 되었을 것이고,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동인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제주 문학사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석좌’ 동인 중에는 우리 문학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문학을 이끌어온 김광협, 현기영, 현길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등단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 매체에

2) 한정호는 한국전쟁기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제1집에서 제3집까지 서지사항을 개괄하고 동인지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전쟁기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한국지역문학연구』 제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9.

3) 이동순은, 학생 동인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전쟁기에 개교한 ‘광주고등학교의 문예부’ 학생의 사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문학과 현대시 문단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광주고등학교 문예부’ 활동의 문단사적 의미-『常綠集』과 『光高詩集』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4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광주에서 발간된 학생 문예지 《학생문예》 창간호가 발굴됨에 따라 발간배경과 학생들의 문학적 움직임과 문학청년들의 문학적 행로가 가지는 의미를 밝혔다(「학생 문예지에 나타난 지역문학적 특징-『학생문예』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학연구』 제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6).

4)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학과 동인지」, 앞의 논문, 122쪽.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면서 제주 문학의 저변을 확대한 작가도 있다. 따라서 ‘석좌’의 행보를 추적하는 것은 제주 문단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동시에 제주 문학이 어떻게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 근간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석좌’ 동인은 1957년 7월에 《석좌(石座)》<sup>5)</sup> 창간호를 발간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제2집을 발행하였다. 제3집 발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원고를 모았으나 발간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제2집이 종간호가 되었다. 이 동인지는 4·3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문학후속세대들이 제주 문단의 흐름에 조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학사적 관점을 강조할 때, 《석좌》의 존재는 4·3 문학<sup>6)</sup>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에서 4·3 문학의 한 축을 담당한 현기영과 현길언의 문학적 근간을 밝히는 지표가 되면서 금기의 영역이었던 4·3을 작품의 주요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소설 중심 동인지로의 면모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방에서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제주 문학은 시 분야에 치중된 동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주소설은 197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sup>7)</sup> 이런 점에서 1950년대 후반 제주지역에서 “소설 중심의 동인”<sup>8)</sup>이었던 ‘석좌’와 동인지 《석좌》의 출현은 19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제주소설의 예고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석좌》에 관한 언급은 1971년 《제주신문》의 ‘제주문학 20년’ 특집<sup>9)</sup>에서 현길언이 술회<sup>10)</sup>한 것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소략하게 소개되는 정도였다. 최근 방선미의 현길언 초기(등단 전)소설 연구<sup>11)</sup>에서 《석좌》 제1집과 제2집의 수록 작품과 《석좌》에 수록된 현길언의 소설 두 편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가 언급되는 등 학술적 차원의 접근이 시도<sup>12)</sup>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5) 동인은 ‘석좌(石座)’로, 동인지는 《석좌(石座)》로 각각 표기한다.

6) 제주4·3사건을 연구하는 논자들은 4·3을 제재로 취한 문학작품을 통상적으로 ‘4·3 문학’이라 칭한다. 이 글에서도 ‘4·3을 형상화한 문학’이라는 의미로 ‘4·3 문학’을 사용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4·3을 형상화한 소설’을 ‘4·3 소설’로 지칭한다.

7) 김동윤,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백록어문』 제17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001, 85~87쪽.

8)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과정」, 《제주문학》 제19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90, 16쪽.

9) 《제주신문》은 ‘제주문학 20년’을 정리하는 특집을 16회에 걸쳐 게재했다.(1971. 1. 21.~3. 1.) 동인이 직접 회고하는 형식으로 문학동인의 발자취를 정리했다. 신문화를 시작으로 흑산호, 문주란, 아열대, 비자림, 인, 절벽, 동심공원, 창림, 별무리, 영실천, 토요구락부 등을 소개하면서 석좌는 다섯 번째 특집으로 다뤘다.

10) 현길언, 「제주문학 20년/석좌」,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1. 29. 4면.

11) 방선미, 「현길언 초기 소설에 나타난 4·3과 제주-1960~1970년대, 등단 이전 소설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7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3.

이유로는 중앙과 지역, 기성 문단과 학생 문단을 위계화하는 오랜 학문적 관행이 지역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동인회 활동과 동인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학생 동인지의 경우 유인본이 많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매체 확보가 어려워 접근조차 쉽지 않다. 이에 그동안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석좌》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제주 문학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일 뿐더러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석좌》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동인지의 전모와 성격을 밝히고, 제주 문학에서의 ‘석좌’의 위상을 밝히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 2.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학생 문학동인지 《석좌》를 발굴하여 전모를 밝히는 첫 논문이다. 《석좌》의 발간배경 및 동인 구성, 그리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석좌》의 특성과 그 의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석좌’ 동인들의 행보를 추적해 그들의 문학 활동이 제주 문학의 성장토대로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지역 문학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해방 후 4·3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문학후속세대들을 문학의 장 안으로 이끌 수 있었던 환경적 기반인 전란 후 제주 사회의 변화와 제주 문단의 동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학생 동인 탄생의 근거와 ‘석좌’가 추구하는 문학정신의 기반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1950년대 제주 학생 문단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제주의 학생 문학동인과 동인지 발간 양상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석좌’ 동인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자 한다. 동인의 결성 과정과 인적 구성, 활동 기간, 지역적 연대 등 ‘석좌’ 동인의 활동을 살피고, 그들이 발간한 동인지 《석좌》 제1집과 제2집의 서지적 고찰을 통해 실증적 해명을 하게 될 것이다.

---

12) 한 작가의 학창시절 작품은 그의 문학적 시원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길언의 초기소설 연구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그의 고등학생 시절의 작품이 수록된 《석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제주교육박물관을 통해 본 연구자가 발굴한 《석좌》 제1집과 제2집 자료를 방선미에게 제공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길언의 초기소설 중 《석좌》 관련 부분이 작성되었다.

셋째, 《석좌》에 수록된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되, 창작 소설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으로 당대 문학후속세대의 공통된 관심사와 문학관을 파악하고, 《석좌》의 발간 목적과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석좌》가 소설 중심의 학생 동인지라는 점에 착안해 ‘석좌’ 동인 중 동인지 발간에 참여한 후에도 소설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온 현기영, 현길언, 전현규를 중심으로 그들의 학생 동인 시절 발표 작품과 등단 이전 발표 작품의 상관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 문학사에서 ‘석좌’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지역 문학의 한계와 극복 노력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석좌’ 동인 활동이나 《석좌》 발간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이들을 최대한 만나보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들 대부분 세상을 뜨거나 고령이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거나 굴절되었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는 있지만, 실증적인 서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면담은 《석좌》 발굴과 동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그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동윤의 전현규에 대한 정보<sup>13)</sup>를 실마리 삼아 추적하던 중 그의 조카 전상호와 연락이 닿았고 전현규의 부인 이초혜가 서울에 거주 중인 것을 확인했다. 2022년 10월 2일 약 10분 동안 이초혜와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는데, 《석좌》와 집필 관련 자료의 소장 여부, 전현규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행적 등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석좌’ 동인 중 한 명인 전달문과 관련된 남훈문학관<sup>14)</sup>에 《석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10월 6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방문했다. 문학관에 전시된 자료와 비공개로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전달문의 이력과 ‘석좌’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현기영과 김철희는 《석좌》 발굴 후 면담이 이뤄졌다. 현기영과는 2022년 11월 9일과 2023년 4월 2일에 만나 ‘석좌’ 동인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철희와는 2023년 4월 14일 그의 자택에서 당시 ‘석좌’ 동인과 동인지 발간 과정에 대해 전해 들었다.<sup>15)</sup>

13) “전현규는 제주시 의도에서 태어나 제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한 바 있다. 등단한 작가는 아니지만 사범학교 재학 때 현길언 등과 ‘석좌’ 동인으로 활동했고 서라벌예대에도 다녔던 문학도였다.” 김동윤, 「4·3 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42쪽.

14) ‘석좌’ 중 한 명인 전달문의 호 ‘남훈’을 따서 만든 남훈문학관은 2013년 5월 30일 제주시 영일진사길 15-5에 세워졌다. 전달문이 미국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모두 우도면에 기증함으로써 세워진 문학관이지만, 현재는 운영비 등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학관은 우도면이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 학생 동인지 《석좌》의 실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나아가 여태 발굴되지 않거나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문학 매체에 대한 학계의 구체적인 관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5)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던 《석좌》의 발굴은 제주도 공공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주문학관, 인터넷 중고서점, 제주에 있는 헌책방, 오현고등학교 역사관, 제주중앙고등학교, 남훈문학관 등으로 이어졌으나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 ‘석좌’ 동인이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해 동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전현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도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문영택 수필가, 외도 출신 고맹훈 선생, 전현규의 조카 전상호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이초혜 선생이 전화로 전현규의 학창시절과 이후 행보에 대해 직접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석좌》를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석좌》가 학생 동인지라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진철 동화작가와 현택훈 시인의 조언을 들었다. 2022년 10월 21일 제주교육박물관에 확인한 결과 현길언의 기증으로 《석좌》 제1집과 제2집을 소장하고 있었다. 현기영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강덕환 시인, 김철희와의 만남을 성사시켜준 나기철 시인과 변중태 시인, 남훈문학관 자료 발굴을 흔쾌히 허락해준 고미선 관장의 도움도 있었다. 현기영 선생과 김철희 선생은 대면으로 직접 도움 말씀을 주셨다.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II. 전란 후의 제주 문학과 학생 동인

### 1. 전란 후 제주 사회의 변화와 문학회 동향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주의 경우 전쟁이 발발했을 때 4·3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란기<sup>16)</sup>의 제주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공비’(무장대)토벌 지역이면서 피난민 수용소와 군사훈련장인 육군 훈련소가 설치됨에 따라 전쟁의 후방 역할을 담당<sup>17)</sup>해야 했던 제주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피난민들<sup>18)</sup>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일상생활에서 죽음과 기아, 이산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던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민 급증으로 인한 주택난과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의 부족, 식수난 등은 피폐해진 삶을 가중했다. 무차별한 폭력과 죽음이 난무했던 4·3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지역의 특수성이 맞물려 제주 사회는 혼돈 그 자체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완전히 해제<sup>19)</sup>되고 전란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는 다방면으로 많은 변화를 맞는다.

먼저 정치적으로 1954년 5월 20일 정당 중심의 공천제가 적용된 제3대 민의원선거가 있었고, 1956년 8월 13일에는 관권의 개입이 심했던 제2차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16) 김동윤은 1948년 4월 3일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4·3이 진행된 기간을 ‘제주4·3기’라고 하지 않고, ‘전란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전쟁기’라는 의미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4·3과 한국전쟁이라는 겹치한 두 역사적 사건이 같은 기간에 겹쳐진 제주도의 상황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4·3은 1949년 6월 7일 무장대 총책임이덕구의 죽음을 계기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사태가 연장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1953년 7월에 끝났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그 후로도 1년여를 끝나지 않은 전란 속에 시달려야 했다. 김동윤, 『『제주신보』로 보는 전란기의 제주 문학』, 『작은 섬 큰 문학』, 각, 2017, 214쪽.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 글에서도 ‘전란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7) 양정심,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사람』, 수선사학회, 2009, 122쪽.

18)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제주팀의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1951년 1월 3일까지 피난민 수가 16,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1월 16일에는 87,000여 명, 5월 20일에는 제주도 원래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무려 148,000여 명에 이르렀다. 1951년 중반 정전협정이 시작되고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피난민의 유입은 더 이상 늘지 않고 3만 명 전후를 유지한다. 위의 논문, 130쪽.

19) 1954년 8월 28일에 부임한 신상묵 제주도경찰국장이 1954년 9월 21일을 기하여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하고, 한라산을 전면 개방한다.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던 마을성곽 보조 임무도 철폐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365쪽.

시·읍·면장선거가 있었다.<sup>20)</sup> 행정구역의 변화도 컸다. 1955년 9월 1일 제주읍이 시로 승격되어 40개의 행정동을 설치했고, 1956년 7월 8일에는 서귀·대정·한림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한림읍의 서부지역을 분할하여 한경면을 신설함으로써 도의 행정구역은 1시·2군·3읍·10면·40동으로 개편됐다.<sup>21)</sup>

교통과 통신 면에서의 변화는 고립됐던 제주를 극복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제주-목포, 제주-부산을 연결하는 여객선의 증가는 물론 한국전쟁으로 폐쇄되었던 항공길이 1955년에 들어서서 제주-부산, 제주-서울 간 정기항공노선이 재개되는 등 안정화되기 시작했다.<sup>22)</sup> 1953년 10월에는 제주에서도 전보 내용을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국제간의 전신회선이 개통<sup>23)</sup>되었으며 1958년 9월에는 제주무선국이 폐지되고 제주전신전화국이 세워졌다.<sup>24)</sup>

교육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정부 수립까지 3년 동안 국민학교 33개교, 중학교 11개교 등 44개교가 설립<sup>25)</sup>되었는데 이 가운데 4·3으로 인해 전소 42개교, 부분 소실 및 해체 7개교의 피해를 보았다. 다행히 학교 시설의 전소가 폐교로 이어지지 않아 임시 폐교는 26개교였지만, 완전 폐교는 조천중학원과 단국중학원, 고성국민학교 등 3개교에 그쳤으며 의귀국민학교 등 다수의 학교들은 다시 개교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sup>26)</sup> 이는 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 차원의 문맹 퇴치 운동과 해방 이후부터 보인 국민학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상급학교 증가로 이어졌다.<sup>27)</sup>

특히 대학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당시 제주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1952년 5월 27일에 국문과, 영문과, 축산과, 법과 등 4개 학과의 2년제 제주초급대학이 설립됐다. 초급대학은 2회에 걸쳐 총 2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1955년 4월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8년 2월에는 임시 2부(야간부) 설치 인가를 받기도 한다.<sup>28)</sup> 제주초급대학시절부터 국문과와 영문과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제주 문학의 저변 확

20)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153~163쪽.

21) 위의 책, 335쪽.

22) 위의 책, 1128쪽.

23) 위의 책, 1073쪽.

24) 위의 책, 1068쪽.

25)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1979, 127쪽.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 2008, 209쪽.

27) 김경옥,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변천과 그 영향요인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21, 53~56쪽.

28) 제주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대학교 60년사』, 제주대학교, 2012, 49~50쪽.

대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 피난차 제주에 머무르던 계용묵·장수철 등의 문인들은 거의 떠났지만 제주대학이 문학 관련 학과를 두고 개교하면서 김영삼·문덕수 등의 문인들이 문학 강의를 위해 제주를 찾아오게 되었다. 1955~56년에는 얼마간 제주에 머무르고 있던 박목월이 제주대학 국문학과에 출강하기도 하였다.<sup>29)</sup>

문화 부문에서는 극장이 문화 공간으로서 도민 정서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주극장은 (주)제주문화기업사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1953년 12월 새롭게 단장해 개관했다. 제주문화기업사가 35mm 영사기를 구입해 1954년 2월에 충천연색 영화 「사라의 녹원」 시사회를 개최하고, 6월에 충천연색 영화 「폭풍」(외화) 첫 상영을 했다. 제주에서 충천연색 필름의 첫 영화 상영은 1952년 2월 제주미국문화원이 주관한 「호세 할매」, 「사감과 기계」였다. 1952년 12월 12일 모슬포 상이군경회는 모슬포극장 대표 안주옥에게서 극장을 무상 임대하여 극장 수입금을 상이군경회 운영경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1956년 12월 칠성로에 중앙극장이 개관되었다. 당시 제주도를 배경으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1953년 10월 6일 경찰국이 제작하는 50분 분량의 기록 영화 「한라산에 봄 오다」(감수 이경진, 감독 백명현) 촬영을 개시했다. 1954년 「백만의 별」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올로케이션하였고, 1958년에는 임한림 감독의 데뷔작 「안개 낀 서귀포」(황해, 백설희, 윤복희 주연)이라는 영화도 상영되었다.<sup>30)</sup>

1957년에는 독지가 박종실로부터 삼도동 일대의 대지와 건물을 기부받아 제주도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제주도립도서관이 개관<sup>31)</sup>되는 등 제주도의 문화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시작했다.

전란 후 제주의 예술계는 피난 예술인들<sup>32)</sup>의 영향을 토대로 급성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으나 제주의 문화예술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고비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중앙에서 활동하던 각 분야의 저명한 예술인들이 일시에 입도해 제주를 그들의 활동무대로 삼으면서 전쟁으로 파편화됐던 한반도의 예술계를 제주에서 재구성해냈다. 이는 제주의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자극과 영향을 미쳤고,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29) 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200쪽.

30) 오영철, 「영화」, 『제주문화예술60년사』 2권, 제주특별자치도, 2008, 288~289쪽.

31)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373쪽.

32) 급박한 전시체제하에 제주도로 내려온 육·해·공군 정훈실, 제1훈소속 및 조병창의 정훈실, 해군병원, 경찰 등 각 기관의 요원들과 피난민 사이에는 예술인, 학자, 언론인, 문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과정」, 앞의 글, 10~11쪽.



피난 화가들은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거나(이중섭) 생업을 위해 장사를 하거나(장리석) 미술교사(홍종명, 구대일, 옥파일, 이대원)를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군정훈대(최영림)에서, 경찰관(김창렬)으로, 해군 문화부문관(최덕휴)으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펼쳐나갔다. 피난지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개최한 전시는 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제주에서 지도했던 성과는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특히 평양 출신 홍종명은 제주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서양화가다. 그에게 사사한 제주인은 강태석, 현승복, 김택화 등이다. 구대일, 옥파일, 이대원 등도 한국보육원에서 교편을 잡아 고영만, 고재만 형제에게 영향을 준다. 또한 홍종명, 장리석 등 피난 화가의 영향과 일본에서 귀국한 장희옥, 종영호 등과 김인지에 의해 조직적인 미술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55년 2월 ‘제주도미술협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제주미협은 55년 7월 ‘학도 미술전’, 8월 ‘제1회 미술강습회’를 열고, 10월에 ‘제주시제 경축 미술전’ 등을 개최하면서 조직적인 활기를 띠다가 1956년 ‘문충 제주도지부’가 결성되면서 지역적 특색을 형성해 나갔다. 전란 후 주목되는 제주 출신의 전시로는 강태석 개인전(1955), 김창해 수채화전(1956), 문기선 동양화 개인전(1956), 고영만·김택화 2인전(1957) 등이 있으며, 1957년에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변시지가 귀국해 제주도 미술에 기억될 만한 족적을 남긴다.

이 무렵 제주의 연극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전쟁으로 신협(新協)을 비롯한 중앙의 연극인들과 보래로, 화랑(花郎) 등의 약극단들이 제주에 들어오는데 특히 육군 제1훈련소에 조직된 연예대의 활동은 도내 문화인들에게 연극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당시 연극의 선도자는 최길두, 이기형, 안홍찬, 김규, 김한우, 이봉준, 신응식, 박애봉, 홍성균 등 도내인사들과 김목을 비롯한 김귀량, 송훈, 이배정, 계철성, 김광빈, 심원, 김용수, 정남혁 등 피난 연극인들이었다. 당시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연극은 도내 연극인과 피난 연극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1956년 ‘문충 제주도지부’가 결성됨에 따라 연극분과위원회가 조직되는데, 여기에는 최길두(창작), 고영일(희곡), 이배정·홍성균(연출), 김용수(무대)가 참여했다. 1958년 12월에는 김요한을 대표 간사로 하는 ‘신극동인회’가 창립되었다.

1955년 시내 남궁다방에서는 제주에서 사진 개인전이 처음으로 시도되는데 고영일과 부종휴 공동전이 그것이다. 고영일은 예술로서의 창작 사진 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부종휴는 주로 한라산을 대상으로 산 사진과 식물 사진에 몰두했다. 사진이 대중의 시

선을 끌기 시작하자 당시 월광사는 1957년 제주도 최초로 사진 공모전을 열었다. 이후 1958년 7월 제주신보사 주최 ‘제주도풍물사진공모전’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1959년 최초의 등호인 단체인 ‘제주사우회’를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고영일, 김용수, 김광추, 부중휴, 이경희, 이동성 등으로 구성된 ‘제주사우회’는 후에 ‘제주사진동호회(제주카메라클럽의 전신)’로 발전하게 된다.

제주의 음악계 또한 중앙의 선진 음악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던 한국전쟁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관악대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제주중학교 관악대의 확대편성과 1951년 모슬포에 창설된 제1훈련소에 군악대와 군예대가 조직된 것이 동인(動因)이 되었다. 더불어 1952년 제주도 UN 민간협력단체 부사령관으로 부임한 미국인 길버트 소령(Charles E, Gilbert)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는데 그는 한국보육원 관악대를 40인조에 달하는 정규 편성으로 확대하면서 한국보육원뿐만 아니라 기존 관악대였던 제주중학교 관악대,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 경찰악대, 피난 기독교인들에 의해 조직된 구세군고적대 등을 지원하고 오현고등학교에도 관악대 창설을 권유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제주는 인구 비례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관악대가 활동하기에 이른다.<sup>33)</sup>

제주 문학사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주 최초의 문학단체가 조직되었다는 것이다. 1956년 당시 제주대학에서 문학 강좌를 맡고 있었던 김영삼의 주도로 제주 최초의 문학단체인 ‘제주문학동호인회’가 조직되었고, 같은 해 10월 23일 신성여자중학교 강당에서 여러 예술 단체를 망라한 조직인 ‘문충 제주지부’가 결성되었다.<sup>34)</sup> “문화인 전체의 권익 옹호와 민족통일의 과업 완수를 위한 반공 문화 전선을 형성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결성된 ‘문충 제주지부’는 11월 12일에 중앙문충의 인준을 얻어 정식 발족<sup>35)</sup> 후 기관지 《제주문화》를 발행하고, 종합예술제인 제주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문화》 창간호에 소개된 ‘문충 제주지부’ 회원은 13개 분야 35개 분과에 141명이다.<sup>36)</sup> 이들 회원은 거의 초·중·고·대학의 교원 중심이며, 제주대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sup>37)</sup> 문학 분과에 소속된 회원은 78명으로, 분과위원장은 양중해

33) 이상의 전란 후 제주 예술계 관련 내용은 김병택, 「한국전쟁과 제주예술계의 형성」,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33~252쪽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4) 제주도, 『제주도지』 제6권, 2006, 157쪽.

35)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1993, 206~207쪽.

36)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세칙」, 「전국문충제주지부임원명단」, 《제주문화》, 전국문충제주지부, 1957, 174~181쪽.

(시), 김영돈(소설), 강통원(평론), 이기형(수필), 고영일(희곡), 이봉준(아동문학), 고영기(번역), 현용준(고전), 박용후(시조) 등이다.<sup>38)</sup>

1957년 6월에 창간한 《제주문화》는 제주도 최초의 문화단체 기관지로, 발간 및 편집은 전국문총제주지부, 인쇄자는 제주인쇄공업사 강성언, 발행인은 우생출판사 고순하이교, 정가 250환이다. 창간호에는 김용호, 이인석, 유정, 홍정표, 양중해, 강통원의 시 6편과 박용후와 김용수의 수필, 이봉준과 조명철의 소설 등이 수록돼 있다. 편집후기에 김인지, 고정일, 현평효, 김국배, 홍완표, 강군황, 고영일, 장태언, 이기형, 김윤옥의 원고를 신지 못했음을 밝히며 다음 호를 기약<sup>39)</sup>했으나 《제주문화》는 창간호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못했다.<sup>40)</sup>

《제주문화》 창간호에 의하면, 1956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문총 제주지부’ 창립기념 제1회 제주문화제가 개최됐다. 문학 행사 중 창작과 관련된 것은 문학올림피아와 문예작품 현상모집이다. 백일장 형식으로 진행된 문학올림피아는 시와 산문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시상했다.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는 시와 산문, 전설 부문에 걸쳐 진행되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시상했으나 전설 부문은 중학생부에만 시상했다.<sup>41)</sup> 1957년 제2회 제주문화제는 시조백일장 및 한시 공모를 추가하여 실시하다가 1958년 제3회 제주문화제를 끝으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예술제 행사가 중단되었다.<sup>42)</sup> ‘문총 제주지부’ 주도의 활발한 문예활동은 지역의 문학 분위기를 고양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58년 8월 하순 ‘제주문학동호인회’가 해체되고 대신 ‘제주문학인협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제주문학인협회’ 회원은 시분과에 강달수, 강통원, 김광협, 김성주, 김시태, 김영환, 김종원, 김종훈, 김태국, 문충성, 부택훈, 양중해, 오용수, 이봉준, 이치근, 정인수, 조용방, 홍성음 등 18명이고, 소설분과에 강영숙, 고영기, 오성찬, 장순용, 정영택, 최현식, 홍순만, 현길언 등 8명, 평론분과에 강용현, 김시태, 김영화, 양순필로 4명, 수

37)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07쪽.

38) 「전국문총제주지부 임원명단」, 《제주문화》, 앞의 책, 176쪽.

39) 김영삼, 「편집후기」, 《제주문화》, 위의 책, 182쪽.

40) 김동윤은 《제주문화》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지 못한 이유로 김영삼의 거취 문제를 짚었다. 1956년 4월부터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문총제주지부의 창립을 주도하고 지부장을 맡았던 김영삼이 이듬해 10월 육지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앞의 책, 205쪽.

41) 김택하, 「제주문화제를 중심으로」, 《제주문화》, 앞의 책, 170~174쪽.

42) 제주도, 앞의 책 6권, 157쪽.

필분과 조명철 1명, 아동분과에 전현규 1명, 영문학 분과에 김순택 1명, 시나리오분과에 강군황, 김봉임 등 2명으로 모두 35명이다.<sup>43)</sup>

문화인의 총집중체인 문충지부 그 자체가 무기력한 존재로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활발한 사업 전개를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던 바 작년까지 발간하던 기관지 《제주문화》가 금년에는 중단되었으며 10월에 개최된 연중행사 ‘문화제’ 역시 그 성적은 전년에 비하여 불량하단 평을 받았는데 (중략) 지부편성에 앞서 8월말경 제주문학인협회(대표 홍정표)가 새로이 등장함으로써 기이한 감을 주게 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거의 문충지부 임원들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문충과는 달리 한 방향을 보여주었던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군에 새로운 문충 서귀포지부가 결성되어 남군 일원에 걸친 탐라문화제가 거행된 이후로 제주지부는 사실상의 약화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전기한 시에서의 문협이 결성되어 문화인들마저 입장을 달리한 위치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려 함은 결국 본도 문화계에 ‘마이너스’만을 가져올 뿐이다.<sup>44)</sup>

《제주신보》가 1958년 제주의 문화 관련 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한 기사 중 일부이다. 《제주문화》 발간이 중단되고 문화제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등 문화인의 총집중체인 ‘문충 제주지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부 편성에 앞서 결성된 ‘제주문학인협회’ 회원 구성이 대부분 ‘문충 제주지부’ 임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제주문학인협회’에 관한 우려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제주문학인협회’가 1960년 1월에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20여 명의 회원으로 ‘제주문학자협회’가 창립되었다.<sup>45)</sup>

제주 문학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4·3과 한국전쟁은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4·3으로 문학 담당층인 신지식인을 상당수 잃게 됨으로써 제주 문단이 황폐해졌다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문인들의 제주 체류와 왕래는 정체된 제주 문학에 직접적인 자극과 영향을 줌으로써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0년대는 동인 활동이 활발

43) 위의 책, 158쪽.

44) 「4291년의 총결산(6)-문화편」,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8. 12. 28. 2면. 이하 인용문은 원문대로 표기하되, 명백한 오자는 바로잡는다. 띄어쓰기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고자 한다.

45) 이후 ‘제주문학자협회’는 5·16으로 해체되고, 1962년 1월에 ‘제주문학협회’가 창립되었다. 1968년에는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아 존속하다가 1970년대 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 해체상태가 되었다. 1972년 8월 30일 ‘제주문인협회’가 재결속되었다. 제주도, 앞의 책 6권, 159~160쪽.

한 시기로, 계몽목이 제주도에 3년 5개월 정도 체류<sup>46)</sup>하면서 벌인 활발한 활동이 촉매 역할을 했다. 그가 주축이 돼 발간한 종합교양지 《신문화(新文化)》<sup>47)</sup> 창간 이후 시작된 동인지 활동과 동인지 발간은 “피난 문인들에 의한 자극이 하나의 요인”<sup>48)</sup>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난 문인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대학 강의를 위해 내도한 문인들이 채우면서 제주 문학청년들의 문학열은 한층 고조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최초로 간행된 문학동인지 《흑산호(黑珊瑚)》<sup>49)</sup>의 발간을 시작으로 시동인지 《비자림(榲子林)》<sup>50)</sup>과 《문주란(文珠蘭)》<sup>51)</sup>, 《시작업(詩作業)》<sup>52)</sup>이 차례로 창간됐다.

46) 계몽목이 입도한 시기는 1951년 초로 1954년 6월에 제주를 떠난다. 김동윤, 「계몽목의 제주 체험과 문학」, 앞의 책, 279쪽.

47) 《신문화》는 문학을 중심으로 편집된 종합교양지로 1952년 5월 1일에 창간호, 9월 20일에 제2호, 1953년 1월 1일에 제3호가 발간되었는데, 제3호가 중간호가 되었다. 계몽목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잡지에는 피난이나 직장 때문에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의 글이 주로 실렸고, 양중해, 고영일, 정하은 등의 제주 사람의 글도 실렸다. 창간호의 경우 12쪽의 분량으로 창간호라 명명되지 않았고, 창간사와 편집후기도 게재되지 않는 등 다소 초라한 모습이었으나 제2호는 총 50쪽으로 비교적 소설이 많이 실린 특징을 보인다. 제3호는 총 52쪽의 분량으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풍성해진다. 창간호에는 문학작품으로 이동주의 「바다」, 윤병상의 「밤 벗」, 양중해의 「그리움」, 최병일의 「오도롱 하라방」, 허버드 헨리 호의 「독군의 선물」이 번역되어 수록됐다. 문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수철의 「시인이 되려면」, 김성학의 「문학의 영원성」, 문무점의 「괴테의 위대성」과 글쓰이를 밝히지 않았으나 계몽목이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문화정찰기」, 「30년 문단 창작 목록」, 「문화다방」이 실려있다. 이 외에도 정하은의 「지세로 본 제주문화」, 김도태의 「제주도에 정배했던 명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일화(1)」 등 제주도 문화와 관련된 내용과 변시민의 「민족과 문화(1)」, 루소의 「독서법」 등이 수록됐다. 김동윤,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 앞의 책, 177~188쪽.

48) 김영화, 「제주문학 80년-1915~1994」,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20쪽.

49) 《흑산호》는 《신문화》가 중단된 반년 후인 1953년 6월 20일에 발간되었으나 이것으로 중단된다. 총 123쪽의 분량으로 피난으로 제주에 온 문우들을 중심으로 한 작품집이며 제주 출신으로 유일하게 양중해의 「한라산」이 수록돼 있다. 김동윤,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 앞의 책, 178~192쪽.

50) 《비자림》은 1958년 6월 9일 창간호(제1집), 같은 해 9월 제2집까지 간행되었다. 동인은 제주대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문덕수, 동문인 양중해, 재학생 김중훈과 강시택 그리고 예외로 영문학과를 졸업한 강동원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위의 책, 206~209쪽.

51) 《문주란》은 1959년 6월 17일에 창간되었다. 이후 출간되지 못해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었다. 동인들은 김대현, 이치근, 부택훈, 정인수, 오용수 등 다섯 명으로 북제주군 구좌면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정인수, 「제주문학 20년/문주란」,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1. 25. 4면.

52) 《시작업》은 1959년 10월 25일에 창간호(제1집)가, 1960년 8월 20일에 제2집이 나온다. 양순필이 발행인과 주간을, 김중원과 이치근이 편집을 맡았고, 우생출판사(대표 고순하)에 의해 제작 발행되었다. 제1집은 다양한 필자를 통해 현대시론을 조명하고 있는 반면에 제2집은 조지훈의 시 등 4·19혁명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내용과 제주도민요에 관한 관심이 표출되어 있다. 필자로는 도외 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거주하던 필자는 문덕수, 김대현, 양중해, 김중훈, 강동원, 박철희, 김영돈, 현용준 등이다. 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앞의 책, 211~215쪽.

## 2. 제주 학생 문단의 활성화

이 시기에 유독 학생들의 동인 활동과 동인지 발간이 활발했던 원인을 진단하기에 앞서 이들이 4·3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란을 거친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제주의 청소년들은 현실의 참담함 앞에서 심한 좌절감을 맛보았다. 그들은 문학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석좌’ 동인이었던 현길언은 대학 갈 형편이 못 되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오현중학교 졸업 후 제주사범학교에 진학했는데 사범학교 3년 동안 학교 공부 대신에 문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 했다<sup>53)</sup>고 술회한다. 현기영 또한 “참혹한 유년을 겪은 자는 어려서 문학을 만나면 곧장 그 길로 들어서기 쉽는데, 아마 내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면서 “4·3의 대참사는 어린 나의 뇌리에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음을 밝힌 적이 있다.<sup>54)</sup>

1950년대 후반 제주의 학생 동인 세대는 1940년 전후로 태어나서 질곡의 현대사 한복판에서 유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이들이 전란 후 문학 공부에 심취하고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참담한 현실의 출구로써 문학을 인식했다는 것과 제주 문단이 그들을 문학후속세대로 인정하고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학생 문단이 형성될 정도로 제주의 문학적 열기가 대단했던 요인으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기성 문인과 학생 문인을 연결한 제주의 문학청년과 문학 전공자들의 가교역할, 둘째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학 백일장 및 작품공모, 셋째 교지와 문예지 등 매체의 확장 등이 그것이다.

계몽록 등 피난 문인들이 제주를 떠나자 문단의 공백을 채운 이들은 제주의 문학청년과 문학 전공자들이라 하겠다. 그들은 강의차 내도한 문인들<sup>55)</sup>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문학후속세대인 중·고등학생들과의 자리를 주체적으로 만들었다.

53) 현길언, 「기억과 기록」, 『주변인의 삶과 문학』,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96쪽.

54) 현기영, 「변신의 즐거움」, 『바다와 술잔』, 도서출판 화남, 2002, 185쪽.

55) 제주대학의 문학 강의를 맡으면서 들어온 문인은 대부분 시인이었으며, 박목월, 김영삼, 문덕수, 이성환, 함동선 등 우리 문단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름있는 시인들이었다. 양중해, 앞의 글, 14쪽.

朴木月 氏의 濟州道 체재의 그 몇 개월 동안 朴木月 氏가 濟州大學에 出講하면서 濟州大學 大講堂 등에서 벌어진 文學의 午後 같은 분위기는 우리 주변에서 文學熱을 한결 불 질러 번지게 했는가 하면 作品朗讀이 있는 후 總評하는 朴木月 氏의 날카로운 裁斷으로 하여 十餘年間을 써두었던 原稿뭉치를 고스란히 불태워버린 어느 친구의 에피소드도 이제는 옛얘기가 되었구나.

玄敬大 吳允德 金喆熙 玄基榮 洪喜究 洪權弘 張純容 等等 그 當時 中學校에서 文學修業하던 친구들의 文學熱도 朴木月 氏의 濟州우거로 말미암아 한결 풍요로웠었다.<sup>56)</sup>

1955년 제주에 입도한 박목월<sup>57)</sup>의 제주대학 국문학과 출강은 제주 문학청년의 문학 열을 북돋웠다. 박목월은 제주대학에서만 아니라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 수업에서도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박목월과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던 이는 당시 오현중학교 교사 김영돈이었다.

현기영은 박목월의 문학 수업이 하루에 그쳤으나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고 기억한다. 그는 박목월의 시 「배경」의 일부인 “제주읍에서는 / 어디로 가나, 등 뒤에 / 수평선이 걸린다”를 떠올리며 당시까지 성내(城內)에서만 살고 있어서 제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박목월의 수업을 통해 수평선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제주를 떠올리게 됐고, 바다로 사방이 간혀있는 제주의 실상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특히 당시 교사이자 문학청년이었던 김영돈<sup>58)</sup>이 문인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학생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박목월 같은 시인을 만나는

56) 김영돈, 「50년대 제주문단 만보(Ⅰ)」, 《제주문학》 제3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114~115쪽. 인용문에서 열거된 이름 중에 김철희, 현기영, 홍희구, 홍권홍, 장순용은 ‘석좌’ 동인이다.

57) 박목월 시인은 1955년 가을에 제주에 내려왔다가 1956년 8월 즈음에 서울로 떠난다. 김동윤, 「제주 원도심이 품은 문학의 자취」,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한그루, 2019, 334~336쪽.

58) 현지 김영돈(1932~2001)은 제주 민요에 관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 민요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국 민요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1954년 제주초급대학 국문과를 제1회로 마친 후, 1957년 국문학과 제1회로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오현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1954. 4. 7~1960. 1. 30)했는데 김철희는 자신이 고등학교에 올라갔던 해인 1956년에 김영돈 또한 고등학교로 부임했다고 증언했다. 그 후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제주도 민요와 민속학 분야를 중심으로 후학을 지도했다.(1960. 12. 31.~1989. 10. 11) 재직 중에는 국어국문학과장, 박물관장, 탐라문화연구소장,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2년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부 부지부장을 맡기도 했다.(1962. 4. 29.~1964. 7. 31) 문화부문화재 전문위원(1962~2001), 제주도민속학회장(1964), 제주도 문화재 위원(1966~2001)을 역임했다. 수상경력으로는 제주도문화상(1967), 서울신문사 향토문화대상 본상(1990)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동윤·정용문, 「동문들의 활동」,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0년 1952~20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2, 140쪽; 편집부, 「현지 김영돈 박사 연보 및 논저목록」, 『한국민요학』 제10호, 한국민요학회, 2002, 5~15쪽.

일은 당시 문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했다고 밝혔다.<sup>59)</sup> 김철희 역시 김영돈의 역할을 강조하며, ‘석좌’가 결성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김영돈의 노고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문학청년과 문학 전공자들이 제주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에서 대학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52년 5월에 개교한 제주초급대학의 국문학과와 영문학과 개설은 청년 문사들에게 체계적인 문학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김영삼·문덕수·박목월 등의 문인들이 문학 강의를 위해 제주를 찾아오는 기반이 되었다. 게다가 개교 당시부터 마련되었던 교직과정은 졸업한 학생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들은 후진 양성을 하는 한편 문학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했다.<sup>60)</sup> 훗날 두 학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문단에 등단했거나 독자층으로 남아 지역에 문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남국민학교(현재 남초등학교) 교실 한 귀퉁이에 읍내 남자 고교 연합 문학서클인 석좌(石座) 동인과 신성여고 문예반 학생들이 문덕수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 좌담회를 가졌다. (중략)

남학생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석좌> 동인들이었고, 여학생들은 신성여고 문예반원들이었다. 그 중 어른들은 당시 제주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문덕수 선생과 제주 오현고 교사였던 양중해 시인과 후에 민요연구가로 일가를 이룬 김영돈 선생이고, 다른 한 분은 제주대학 국문학과 재학생으로 문학청년이었던 강영숙 선배였다.<sup>61)</sup>

현길언이 1957년 12월 15일에 있었던 문학 좌담회를 회상한 글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는 제주대학 강의차 입도한 문덕수와 제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한 양중해와 김영돈, 제주대학 국문학과 재학생인 강영숙, ‘석좌’ 동인 외 두 명의 남학생과 신성여고 문예반원들이다. ‘석좌’ 등 청소년과 문덕수와의 만남을 이끈 이는 양중해와 김영돈, 강영숙이다. 이 좌담회는 제주대학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이 만나고, 세대 간 문학인들이 만나는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문학청년과 문학 전공자의 가교역할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59) 2023년 4월 2일 두 번째 면담에서 현기영은 박목월의 문학 수업을 잊을 수 없다며 그날의 인상을 상세하게 전했다.

60) 김영화, 앞의 책, 22쪽.

61) 현길언, 「문학의 꿈」, 『아름다운 별 이 지구에서』, 술과학, 2004, 144쪽.



둘째, 학생들의 문학 활동에 촉매 역할을 했던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문학 백일장이나 작품 공모의 형태로 진행된 행사는 서로의 기량을 견주거나 창작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1> 오현고 주최 '전도학생종합예술제' 개막을 보도한 《제주신보》

오고 주최의 전도학생종합예술제는 금 25일 개막된다. 과거 어느 것보다 대규모인 예술 제전은 25일 상오 10시 오고교정에서 서제로 서막 연 후 각부별로 장소를 달리하여 3일간 경연 심사를 거쳐 28일 폐막된다. 신화 그윽히 도사린 탐라섬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술을 개척하며 이 섬의 학도들로 하여금 이 나라 예술 문화 발전에의 선구자 될 의욕을 진작하려는 취지 밑에 오고에서는 개교 3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제전을 베푸는 것이다.

푸로...

△서제 25일 오고교정 △문학부 오고 서별관 △미술부(전시) 관덕정 △사진예술부(전시) 관덕정 △음악부(경연) 제극 △연극부(경연) 제극 △무용부(경연) 제극 △웅변부(학생 웅변) 제극 △수상식 28일 상오 10시 오고교정

-「학생예술제전/오고주최, 오늘 개막」 전문62)

1954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현고등학교 주최로 제1회 전도학생종합예술제가 진행되었다. 예술제의 범위가 학생 예술 활동으로 한정되긴 했지만, 음악·문학·미술·사진·연극 등의 경연과 관악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문화행사였다. 이때 문학 행사의 하나로 문학 백일장 및 학생 작품공모가 시작되었고, 1956년부터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주최로 전도 초중고 문학 백일장이 연례적으로 실시됐다. ‘문충 제주지부’가 1956년 11월 하순에 주최한 제주문화제<sup>63)</sup>에서도 문학 백일장과 문예작품 현상모집이 있었다.<sup>64)</sup>

오현고등학교의 교지 《현악》 3호는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와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주최 문학올림피아 참가기<sup>65)</sup>를 실고 있다. ‘석좌’ 동인이기도 한 홍희구는 제2회 제주문화제 백일장 참가 소회를 밝히면서 300여 명의 참가자로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아 넓은 삼성사가 비좁”을 정도라고 쓰고 있다. 짧은 백일장 시간과 테마와 제목에 대한 불만족 등 참가 학생들의 소감과 함께 추운 날씨로 인한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제주도 학생들의 문학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문덕수 교수의 심사평에 고무되기도 한다.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가 주최한 한글날 기념 백일장에 참가한 김영삼은 주어진 글제 ‘바다’에 대해 어떤 기법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참여한 학생들의 열기에 주눅이 들었다고 밝힌다. 시부 우수작에 사범학교생 한 명과 본인이 입선되었다는 심사 발표 소식을 접한 소감에서 문학 백일장이나 작품공모의 형태로 진행된 문예활동이 학생들의 창작열을 고취하는 한편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문학 백일장이나 작품공모의 형태로 진행된 문예활동은 문학후속세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결집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 당시에는 각 학교마다 문예반 활동이 열심이었다. 도내 문학 백일장을 열면 당선된

62)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4. 11. 25. 2면.

63) 제1회 제주문화제는 1956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제2회는 1957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제3회는 1958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64) 오현고등학교 주최로 진행된 전도 학생 백일장과 현상공모에서 특선을 수상한 홍권홍과 현기영을 비롯해서 제1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와 문예작품 현상에서 수상한 현기영, 전현규, 장순용, 김철희, 홍권홍, 박호길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와 문예작품 현상에서 수상한 현기영, 홍희구, 전달문, 홍권홍 등 ‘석좌’의 활약이 돋보인다. 오현고등학교 주최로 진행된 전도학생종합예술제의 백일장과 현상공모, 제1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백일장)와 문예작품 현상의 수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오현고등학교 주최 전도학생종합예술제 수상자는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19쪽 참조, 제1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 문예작품 현상은 「제주문화제 각종 경연 통계표」, 《제주문화》, 앞의 책, 171~173쪽 참조. ‘석좌’ 동인은 진하게 처리했음. 강조는 인용자)

학생은 소속 학교나 본인에게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고, 당선자가 결정된 다음에 뒷이야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서점 주인과 친해서 문학 서적이 들어오는 대로 외상으로 사다가 읽었다. 자취하려고 집에서 가져온 쌀을 절약하여 한 말(4되)을 팔면 여러 권 책을 살 수 있었던 때였다.

문덕수 선생은 그해 가을 지방 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열렸던 전도 학생 문학 백일장 자리에서 우리와 처음 만났다.<sup>65)</sup>

현길언의 회고에 따르면 학교 문예반을 중심으로 문학 행사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문덕수와의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 학교

전도학생종합예술제 1954. 11. 25. ~ 28. (오현고등학교 주최)							
		고등부		중등부			
백일장	특선	김은희	신성여자고등학교	<b>홍권홍</b>	<b>오현중학교</b>		
	입선	김종원	오현고등학교	김창희	신성여자중학교		
현상 공모	특선	김종원	오현고등학교	<b>현기영</b>	<b>오현중학교</b>		
	입선	문보혜	신성여자고등학교	김명만	제주제일중학교		
		송산순	오현고등학교				
제1회 제주문화제 1956. 11. 25. ~ 29. (<문충 제주지부> 주최)							
		고등부		중등부			
문학 올림피아	시	특별상	강려자	제주사범학교	<b>박호길</b>	<b>제주제일중학교</b>	
		장려상	강석산	오현고등학교	김영삼	오현중학교	
		가작상	부청자	신성여자고등학교	양선화	신성여자중학교	
			오문유	서귀농림고등학교	김용범	오현중학교	
	산문	특별상			현경대	오현중학교	
		장려상	김승혜	오현고등학교	한무	제주제일중학교	
			오일남	제주상업고등학교	<b>현기영</b>	<b>오현중학교</b>	
	가작상	<b>장순용</b>	<b>제주상업고등학교</b>	한용섭	홍익보육원		
	문예 작품 현상	시	특별상	문충성	오현고등학교	부화자	신성여자중학교
			장려상	<b>홍권홍</b>	<b>오현고등학교</b>	한훈선	홍익보육원
가작상			강려자	제주사범학교	김영삼	오현중학교	
			부청자	신성여자고등학교			
산문		특별상	<b>전현규</b>	<b>제주사범학교</b>	<b>현기영</b>	<b>오현중학교</b>	
		장려상	<b>김철희</b>	<b>오현고등학교</b>	<b>박호길</b>	<b>제주제일중학교</b>	
		가작상	강병옥	오현고등학교	한무	제주제일중학교	
<b>장순용</b>			<b>제주상업고등학교</b>				

65) 홍희구, 「문학부우승기 획득-제2회 제주문화제」, 김영삼, 「문학올림피아우승기-제대국어국문학회 주최」, 《현악》 제3호, 오현고등학교, 1958, 154~155쪽.

66) 현길언, 「문학의 꿈」, 앞의 책, 144~145쪽.

의 학생들이 모이는 문학 행사는 당대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문학의 장이 되었다. 또한 문학 백일장과 작품 현상모집 등은 문학도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기성 문인과 문학후속세대를 잇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무렵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예술행사가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 문학에서 그 수준이 전국 수준을 상회할 정도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제주의 학생 문사들이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 학생 문예작품 현상모집’ 소설부문에 전현규(제주사범학교)의 「소년상」이 당선된 것은 당시 또래 학생들에게 큰 화제였다.<sup>67)</sup> 「소년상」은 4.3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로 1957년에 이 소설이 중앙 학생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각별하다. 또한, 중앙학도호국단의 주최로 매년 실시되었던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제주 학생들이 다수 입상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953년 8월 30일에 처음 시행된 이 공모는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정서교육을 진작시키고자 전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공모전에서의 제주의 당선자와 당선 작품, 응모 기간, 당선자 발표 시기, 심사위원은 <표1>과 같다.

	장르	순위	수상자 (학교)	작품명	모집기간	발표 시기	심사위원
1회	콩트	2등	김미형 (오현고)	민족애	1953.8.- 1954.3.	1954. 8. 15.	콩트:김동리, 홍효민 시:박두진, 김윤성
	시	가작	김종원 (오현고)	창문			
2회	소설	2등	현기영 (오현중)	행군소리	1954.8.- 1955.12.	1955. 12.	소설:김동리 시:오상순
	시	가작	이윤성 (오현중)	이밤			
3회	소설	3등	김용범 (오현중)	어린시절	1955.8.- 1956.5.	1957. 3.	소설:김동리, 광학송 시:서정주, 김규동
	소설	가작	현기영 (오현중)	하나의 노을 밑은			

67) 중앙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 학생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전현규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최인욱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현기영은 증언했다. 현기영은 전현규의 당선작이 「5미터」라 기억했지만, 제주사범학교 수상문예작품집 《돌다리》 제1집(제주사범학교, 1960)에는 「소년상」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전현규의 소설이 전국 규모의 학생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여러 번 입선작에 들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소년상」은 중앙대 주최 ‘전국 학생 문예작품 현상모집’ 당선작이고, 「5미터」는 중앙학도호국단 주최 ‘제4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가작을 수상한 작품이다.

	소설	3등	전현규 (제주사범)	산			
4회	시	가작	문충성 (오현고)	고향의 그리움	1956.10 -1957.8	1958. 4	소설:김동리, 최정희 시:박목월
	소설	가작	전현규 (제주사범)	5미터			
	소설	가작	현길언 (제주사범)	백치의 장			
5회	시	가작	김종수 (제주일중)	바닷가의 압	1958.5.- 1959.3.	1959. 5	소설:김동리, 최정희 시:박목월, 조지훈
	시	3등	김광협 (서귀농고)	밭			

<표1>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제주지역 학생 수상 상황<sup>68)</sup>

매회 제주의 학생들이 시와 소설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미형의 「민족애」와 김종원의 「창문」이 1회 대회 콩트와 시부문에서 각각 수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회 제주 학생들이 수상권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회 대회에서는 소설부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김용범, 전현규, 현기영이 입상 명단에 올랐다. 특히 ‘석좌’ 동인 전현규, 현기영, 현길언의 경우 소설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현기영은 제2회 현상모집에서 「행군소리」로 2등, 제3회 현상모집에서는 「하나의 노을 밑은」으로 가작을 수상했다. 전현규는 제3회 현상모집에서 「산」으로 3등, 제4회에서는 「5미터」로 가작에 뽑혔다. 현길언은 제4회 현상모집에서 「백치의 장」이 가작에 선정되었다.

그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학교에서입니다. ‘이원성’형이 날 부른 것입니다. 달려가서 웬 말이냐 물은 것입니다. 자식 한턱 내안다는, ‘이’형의 말이었습니다. 어리뻑뻑 도는 생각 앞서, 직원실 국어 선생님 앞에, ‘이원성’형과 함께 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선된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걸 웬하니, 눈을 부여보는 것이나 확연히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에 정신이 마구 뻑뻑 돌아 갔었습니다. 확실히 ‘이원성’의 「이밤」 가작, ‘현기영’의 「행군소리」 2등이 붙어있었습니다. 꿈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꿈은 아니었습

68)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10년지』, 1959, 165~172쪽 참조. <돌다리> 제1집에서는 박호길의 수필 「등하기」가 제5회 중앙학도호국단 문예 현상 당선작이라 밝히고 있으나 위 책에서는 찾지 못했다. 회차의 오기이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위 책에는 2회 시부문 가작 수상자로 이윤성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현기영의 수상소감에서는 이원성이라 쓰고 있다. 2회와 4회 당선작품들은 단행본으로 엮여 발간되었다.

니다. 밤이 아닌가, 둘러봤습니다. 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때는 눈이 그렇게 휘둥그레질 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나는 달라붙은 것이었습니다. 제법 튀노는 흥분을 누르고, 신문에 눈을 달려보았습니다. 뽑으신 ‘김동리’선생님께서

“文章에 있어서는 「友情」보다 더 세련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너무 산만하고 정신도 「友情」보다 으젓지 못하다”라는 選評이었습니다.

詩選者は ‘이’형의 시를 자못 칭찬했었습니다. 정말 잘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해보려는 것은 죄스러운 느낌이 나나, 확실히 그쪽으로 달려가렵니다.<sup>69)</sup>

인용문은 현기영이 중앙학도호국단이 주최한 제2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sup>70)</sup>에서 「행군소리」로 2등을 수상한 소감을 밝힌 글이다. 김동리의 선평을 읽으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서리라 다짐하는 현기영에게 이런 투고의 경험은 문학 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열망하게 했다. 1950년대 문학 활동에 참여했던 제주의 많은 학생이 문학에 계속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모전 수상 경력이 이들에게 문학을 향한 동경과 꿈을 추동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학생 문예활동들이 학생들의 창작을 독려하고 문학의 길로 이어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활발한 소통과 연대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1953년을 전후하여 서울에서 발간한 학생 잡지 《학원》, 《새벗》, 《학생계》, 《소년세계》 등이 제주의 학생 문인들에게 문학을 향유하는 경험의 폭을 넓혀주었다. 문충성이 제주의 ‘별무리’가 해체될 당시 《학원》, 《학생계》 등 학생 잡지가 보급돼 제주의 학생들이 학생 중앙 문단에서 활약하여 작품 발표의 터전을 마련했다<sup>71)</sup>고 밝힌 바 있듯이 학생 잡지는 제주의 학생 문인들에게 결정적인 발표 지면과 함께 중앙 문인들의 작품 평을 듣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원》에 발표된 제주 학생들의 시로 김광협(서귀농림고)의 「산과 소년과」(7권 7호), 「마음(봄을 맞는)」(8권 5호), 김미형(오현고)의 「그날이」(2권 8호), 김종원(제일중)의 「모란꽃 피는 날」(2권 2호), 「소년」(2권 5호), 문충성(제일중, 오현고)의 「밤」(3권 5호), 「정야」(3권 7호), 「바다」(3권 9호), 「길」(4권 1호), 박운휘<sup>72)</sup>의 「불멸의 장」(7권 8호), 「바위」(8권 4호), 「탑」(8권 4호), 「기도-

69) 현기영, 「꾸준히 노력하겠다」, 《굴림》 제2호, 오현중학교학도호국단, 1956, 117쪽.

70) 당시 제2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소설 중등부 1등 당선자는 이종국(남해중3)이다. 중앙학도호국단, 앞의 책, 166쪽.

71) 문충성, 「제주문학 20년/별무리」,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18. 4면.

72) 박운휘의 경우 ‘제주시 건입동 1421의 7’ 주소로 투고해 학교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학원》 8권 4호에는 「바위」가 우수작에, 「탑」이 입선작에 뽑혀 동시에 두 작품이 수록되기도 했다. 8권

바다를 원경으로 한 양(羊)에 붙여」(8권 7호), 「엽서」(8권 9호), 박호길(제주사범)의 「저녁중-밀레에 부쳐」(9권 1호), 오용수(오현고)의 「삶」(7권 8호), 「낙엽」(8권 2호), 오제훈(오현고)의 「이파리」(4권 3호), 최평근(오현중, 오현고)의 「달밤」(2권 11호), 「그리움」(3권 2호), 홍권홍(오현고)의 「소년상」(6권 8호), 「影(그림자)」(7권 3호) 등이 있다. 부흥두(제일고)의 산문 「일기」(8권 2호)가 입선작에 뽑혀 발표되기도 했다. 김종원의 「국화는 피어도」는 《학원》지가 창간되면서 최초로 뽑아 실은 시다.<sup>73)</sup> 《학원》은 창간 이후 투고 작품과 학원문학상 당선작품을 선별하였는데, 문충성의 「길」(4권 1호)은 제2회 학원문학상 수상작품이다.

중앙 학생 잡지가 제주 학생 문인들의 중앙 학생 문단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다면, 각 학교를 중심으로 발간된 교지와 문예지 등은 작품 발표 지면을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 간 연대와 소통의 장이 되었다. 1958년에 발간한 오현고등학교 교지 《현악》 제3호의 「시내 고교 문예애호학생 대설문」<sup>74)</sup>을 보면 당대 청소년들의 문학에 관한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문학을 하게 된 동기, 숭배하는 문인, 감명 깊게 읽은 작품, 장차의 포부에 관한 설문에 오현고등학교, 제주사범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문학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면을 할애해 《석좌》 제2집 광고<sup>75)</sup>를 실고 있다는 것 역시 이를 방증한다.

제주의 중·고등학교의 교지가 창간되면서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1950년대 제주 학생 문단에서 매우 중요하다. 1953년에 오현고등학교의 교지 《현악》과 신성여자중학교의 《새별》이 창간된 이후로 1955년에 제주사범학교의 《진리》,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진달래》, 세화중학교의 《비자》, 오현중학교의 《굴림》이 나온다. 1957년에 표선고등학교의 《백사》가 발간되고, 1959년에는 제주중·상업고등학교의 《향림》이 창간된다.<sup>76)</sup>

오현고등학교 교지 《현악》 제3호에 실린 김영돈의 「어느 문학 소년에게」<sup>77)</sup>는 소

7호에 「기도-바다를 원경으로 한 양(羊)에 붙여」로 우수작에 뽑히기도 했다.

73) 조지훈, 「국화는 피어도/평」, 『시의 고향』, 창조사, 1989, 58쪽.

74) 《현악》 제3호, 앞의 책, 183~1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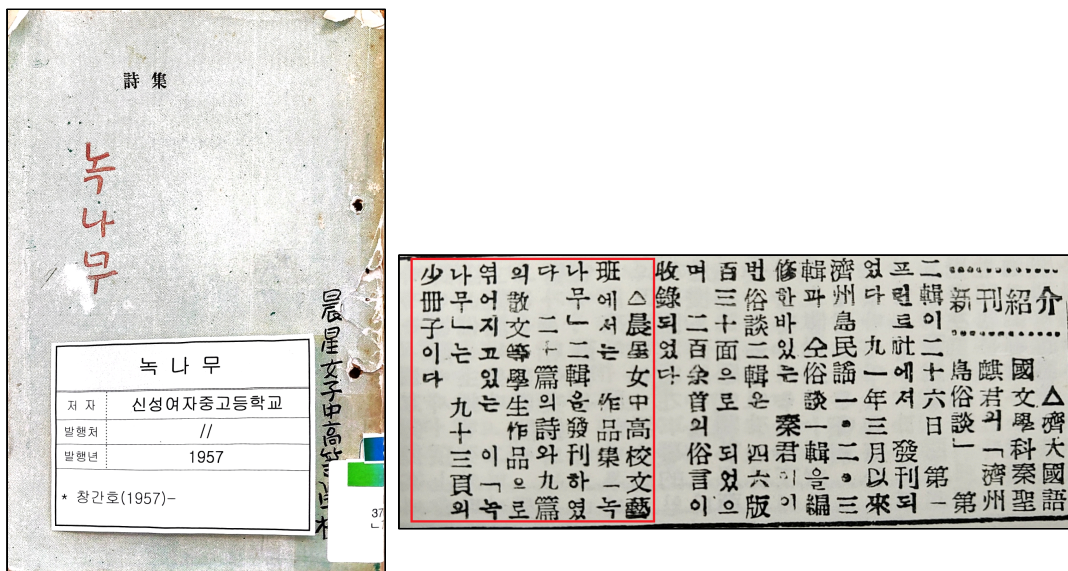
75) 위의 책, 202쪽.

76) 1959년에 창간한 제주중·상업고등학교 교지 《향림》을 보면 촉발간 난에 제주의 중·고등학교의 교지명이 가나다순으로 열거돼 있다. 《굴림》, 《동백꽃》, 《백사》, 《비원》, 《산방》, 《새별》, 《진달래》, 《진리》, 《천지연》, 《한수풀》, 《현악》이 그것이다.

77) 《현악》 제3호, 앞의 책, 48~52쪽.

외된 지역에서 어렵게 문학 공부하는 청소년에게 국어과 교사로 재직 중인 문학청년이 보내는 답신이다. 지도해줄 마땅한 문학 선배가 없어 답답해하는 시골 학생의 처지를 잘 드러내면서, 먼저 문학의 길에 들어선 선배와 선생의 위치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자세를 제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교지의 한 지면이 제주 문학청년과 청소년이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 무렵 학교 내 문예활동을 정리하는 학교문예작품집도 활발하게 발간되었다. 1957년에 나온 신성여자중·고등학교의 《녹나무》는 학생과 교사의 시로 구성되었다. 중학생의 시 15편과 고등학생의 시 16편, 교사의 시 4편이 수록돼 있다. 《녹나무》에서 주목할 점은 ‘문주란(文珠蘭)’ 동인이었던 이치근(이근)이 지도교사이며, 그의 시 「코스모스」와 「허(虛)」가 수록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제 문예 현상 수상작과 백일장 수상작, 제주대학 주최 한글날 백일장 수상작<sup>78)</sup>도 함께 게재돼 또래의 우수작들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년 후인 1959년에 《녹나무》 2호가 간행되었다.



<사진> 신성여자중·고등학교의 《녹나무》 창간호 표지와 제2집 발간 《제주신보》 기사<sup>7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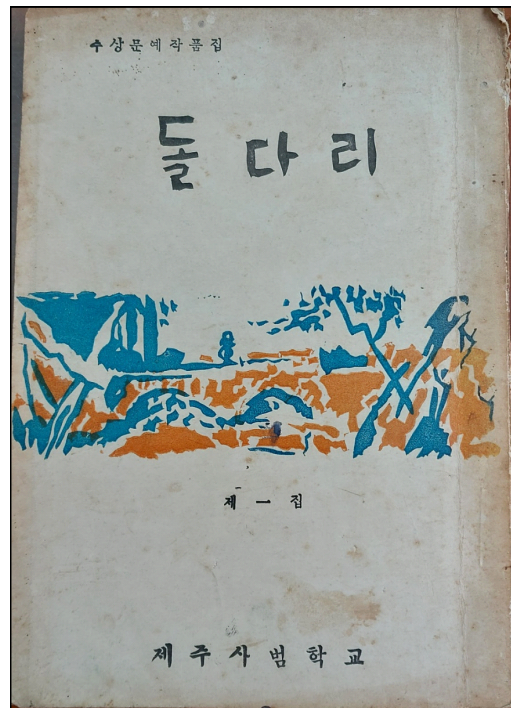
78)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신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 수상작은 중등부 특선작 부화자의 「항아리」, 제주대 주최 한글날 백일장 수상작은 중등부 우수작 김춘자 「바다」, 김스구의 「나」, 고등부 가작 김소자의 「바다」, 제2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수상작은 중등부 2등 입선작 부화자의 「코스모스」, 중등부 가작 김병순의 「창」, 고등부 2등작 김정희의 「나무」, 고등부 가작 부청자의 「등대」, 제2회 제주문화제 백일장 수상작은 중등부 가작 김춘자의 「섬」, 고등부 2등작 부청자의 「섬」, 고등부 우수작 김정희의 「섬」이다.

79) 《녹나무》 창간호 사진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것을 촬영한 것이다. 《제주신보》 1959년 2월 27일자 2면 신간 소개 코너에 “신성여자중고교 문예반에서는 작품집 《녹나무》 2집



1958년에는 이봉준의 지도로 제주사범학교 문예반 《성좌》 창간호가 발간된다. 제호는 현중화가 썼다. 27편의 시와 1편의 산문, 2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됐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져 1960년 제주사범학교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상작품을 엮어 《돌다리》 제1집을 발간한다. 수상작품 목록과 더불어 시 12편과 소설 4편, 수필 2편이 수록되었다. 시에는 강려자의 「바다」, 「나」, 「바다」<sup>80)</sup>, 「망각」, 홍우천의 「길」, 문수자의 「우리 대통령」, 부화자의 「사랑」, 김정조의 「기원」, 「환영」, 박호길의 「촛불」, 「기원」, 「태풍」이 실렸고, 소설로는 전현규의 「오메터」와 「소년상」, 현길언의 「백치의 장」과 「종말」이, 수필에는 현길언의 「섬」, 박호길의 「등하기」가 수록됐다.



<사진3> 제주사범학교 수상문예작품집 《돌다리》 제1집 표지

《돌다리》 제1집의 경우 제주사범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발간비를 부담해 제작한 것이다. 당시 제주사범학교 교장의 「책머리에」를 보면 발간 배경을 알 수 있다.

을 발간하였다. 20편의 시와 9편의 산문 등 학생작품으로 엮여지고 있는 이 《녹나무》는 93매의 소책자이다.”라고 발간 소식을 전하고 있다.

80) 강려자의 시 「바다」가 두 편 수록되었는데 이 작품은 제목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작품이다.

시, 문예에 소질을 가진, 젊은 학도들이 모였고, 열정은 날로 발전하여 귀중한 작품을 내어 중앙에서 혹은 지방에서 입선의 영광을 차지하여 본인은 물론 모교의 영예를 드높게 하였다. 그러나 날과 달이 지날수록 이 귀중한 작품들이 휴지가 되고 흙에 묻혀 버림은 너무나도 애처롭고 슬픈 일이다. 이 작품들을 낸 동문들은 직장을 달리하고, 공무에 다방 함에도 불구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어린 활동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작품을 수집하고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이 자그마한 책자를 마련하여 젊은 학도들의 업적을 기념함과 동시에 후배들에게 이어 넘겨서 이 전통의 혼이 영원히 흘러 빛나는 역사 창조의 일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sup>81)</sup>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문예작품집은 학생 문인들의 수상을 기념하고, 이들의 우수작들이 묻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해 발간했다. 이렇게 발간된 문예지들은 동시대 학생 문인들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50년대 후반 문학후속세대였던 학생 문인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수혜를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이기도 했다. ‘돌다리’라는 제호가 상징하는 것처럼 문예지 발간은 선배와 후배를 잇는 “하나의 좌표”<sup>82)</sup>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1950년대 학생 동인지의 등장 배경에는 기성 문인과 지역의 문학청년, 학생 문사들과의 수직적 교류와 문학을 꿈꾸는 학생들과의 수평적 교류, 그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학생 문예활동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주의 학생들은 스스로 동인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각종 문학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발표 지면을 찾게 되고 이는 동인지 발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 학생 문인들은 자신들의 창작 열기와 작품 발표 의욕을 충족시키고자 주머니를 털어 스스로 동인지 발간이란 도전을 감행하였다.

### 3. 학생 동인과 동인지의 등장과 전개

김동윤은 역사적인 맥락과 문학적 현상의 특징들이 동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20세기 제주 문학사의 시기를 ① 일제강점기 신지식인들의 활동과 제주

81) 송정호, 「책머리에」,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82) 「책꼬리에」, 위의 책, 88쪽.

문학의 태동(1900~1945) ②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 제주 문학의 형성(1945~1969) ③ 산업화의 진전과 제주 문학의 사회적 확대(1970~1999)로 나눈 바 있다.<sup>83)</sup> 제주 문단에서 학생 동인의 등장은 20세기 제주 문학사 관점에서 보자면 두 번째 시기인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 제주 문학의 형성(1945~1969)’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해방 이후 4.3과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란의 격변을 겪으면서 주로 동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던 기간이다.<sup>84)</sup>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의 문예활동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950년대 간행된 제주의 학생 동인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인지	호수	동인 구성	발행처	발행일자	장르
《영실천(靈室泉)》	제1집	김상주, 강통원, 박철희, 김성주	미확인	1953. 9. 3.	시
《별무리》	제1집	김성주, 김미형, 문인자, 김종두, 최평근, 문충성, 강추자, 고문웅, 김청신, 장현기, 백달정, 허재민, 김병욱, 강통원, 박철희, 김은조, 임병규, 김상욱, 김봉익, 부택훈, 김종원, 고영기, 강군황	우생 출판사	1953. 12. 20.	시, 수필, 동화, 소설, 방송극
《석좌(石座)》	제1집	현길언, 현기영, 전현규, 김철희, 장순용, 홍희구, 고치문	석좌클럽	1957. 7. 26.	소설, 수필
	제2집	현길언, 현기영, 전현규, 김철희, 장순용, 홍희구, 고치문, 홍권홍	석좌동인	1957. 12. 25.	소설, 시
《창림(蒼林)》	제1집	조진춘, 정영택, 유춘원, 김용화, 이현근	우생 출판사(?)	1958. 8. 5.	시
	제2집	조진춘, 정영택, 유춘원, 김용화, 박연자	우생 출판사	1958. 11. 25.	시

<표2> 1950년대 제주 지역 학생 동인지

<표2>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주의 학생 동인지는 1953년 9월 제주도 최초의 학생 시동인지 《영실천(靈室泉)》을 시작으로 《별무리》, 《석좌(石座)》, 《창림(蒼林)》이 차례로 발간됐다.

1953년 9월 3일에 발간한 시동인지 《영실천》은 제주도 최초의 학생 문학동인지로

83)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연구회, 2001, 197~209쪽.

84) 위의 논문, 204쪽.

의의가 있다. 동인은 당시 오현고등학교 재학 중인 같은 학급 문과반 학생들인 김상주, 강통원, 박철희, 김성주 등 네 명으로 구성되었다.<sup>85)</sup> 등사판으로 인쇄된 《영실천》에는 동인들의 작품 11편이 수록돼 있으며 서문은 강통원이 썼다.<sup>86)</sup> 제주도에서 최초로 간행된 순수 문학동인지 《흑산호》의 발행일이 1953년 6월 20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되기 전에 학생 동인지가 나온 것이다. 이는 당시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준다.

그 당시는 어느 누구들처럼 지도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문학을 지망하고 사랑하는 급우인 것이다. 이들은 피난 오신 기성 시인 소설가를 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 느낀 제 나름대로의 문학 이야기를, 표현을, 이데올로기를 대화의 형식으로 고집하고 대드는 이른바 당돌하고 건방진(?) 문학인인 것이었다. 제주시내에는 ‘우생당’과 ‘신창사’라는 두 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새처럼 책도 많지 않았지만 서점의 책을 깡그리 읽었다고 자랑을 할 수 있는 동인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1920년대부터 1950년대의 혼란 시기의 작품들까지도 찾아 읽는 독서광의 집단인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제주도란 특수 풍토에서 제 나름의 문학수업을 계속한 것이다.<sup>87)</sup>

동인이었던 김성주의 《영실천》에 관한 회고 중 일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문학 수업을 이어간 동인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당시 피난 문인들과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했음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문학 공부를 하기 힘든 제주에서 이러한 교류는 창작에 대한 열망을 북돋웠고, 동인 결성과 동인지 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6·25동란이 일어난 후 이 고장에 피난살이를 왔던 소설가 계용묵 씨 주변을 오갔던 주로 중고교 교사직에 있으면서 문학을 하던 2·30대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국어나 영어 시간을 통해 시 감상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이 고장 학생 문예의 터전을 닦은 효시라고 생각된다.

이 같은 풍조는 전도적인 추이로서 주로 시내에서는 중·고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

85) 김성주, 「제주문학 20년/영실천」,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23. 4면.

86) 고시홍,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제주문화예술백서』,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제주도지부, 1998, 77쪽.

87) 김성주, 「제주문학 20년/영실천」, 앞의 기사.

YMCA(현 나사로 병원 자리) 강당을 빌려 ‘문학의 밤’을 주기적으로 꽤 여러 차례 열었다.

사실 솔직히 따져서 이들의 모임은 ‘문학’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채 문학병을 앓던 10대의 소년소녀들의 모임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런대로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몇(?)있는 문학작품(?) 낭송의 밤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참석자들은 글을 쓰든 안 쓰든 한가지로 문학을 좋아하고 학생들이 적으면 50여 명 많으면 1백여 명까지 모여 제법 성황을 이루었는데 시종 열기 속에 들뜨던 분위기는 학생 시절의 추억 중 잊을 수 없는 것이다.<sup>88)</sup>

인용문에서 중·고교생들을 중심으로 ‘문학의 밤’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그때마다 오십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등 문학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는 제주에 체류 중이던 계용묵에게 문학 수업을 받은 문학 지망생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문학을 감상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등 문학후속세대들을 육성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등장한 것이 1953년에 만들어진 ‘별무리 모임’이다.

‘별무리 모임’의 동인은 모두 23명으로, 제주대학교 학생인 강군황과 고영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도내 중·고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강군황을 모임의 대표로 뽑아 ‘성장(星長)’이라 불렀다. ‘별무리 모임’은 우생출판사 사장인 고순하의 재정적 도움과 소설가 계용묵의 지도로 1953년 12월 20일에 동인지 《별무리》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80쪽 분량의 이 동인지에는 서귀농림고등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사범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대정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오현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제주제일중학교, 한림중학교 재학생들의 시 14편과 수필 6편, 동화 1편이 수록됐다. 고영기의 단편소설과 강군황의 방송극, 계용묵의 「신문학50년풍물지(1)」, 현평효의 「한국 현대문학의 특질」, 정치근의 「세계대문호소개-썬쓰피어편」도 함께 수록돼 있다. 발표자들의 학교별 분포를 볼 때, 전도 학생 문예지로서 위상을 가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4>는 《별무리》 표지와 《제주신보》에 실린 ‘별무리’ 광고이다.

88) 문충성, 「제주문학 20년/별무리」, 앞의 기사.



<사진4> 《별무리》표지와 《제주신보》에 실린 ‘별무리’ 광고<sup>89)</sup>

광고에는 “제주·학생문예지 별무리 제1집 드디어 발간”, “문학도에게 희소식”, “발매 개시 12월 20일”이란 문구와 함께 “부수에 제한이 있으니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서점과 단체는 향토문화 개발을 위하여, 하루 속히 신입(申込)하시라”며 총신입처, 판매처가 우생당임을 밝히고 있다.

《별무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창작욕을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학생 문예작품 모집’ 광고<sup>90)</sup>와 별무리 모임 일지<sup>91)</sup>가 나란히 수록된 점이다. 학생들의 작품 발표 기회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작품 발표회와 학생 문예작품 공모는 청소년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책으로 엮고자 하는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별무리》 제2집은 자금 사정 등으로 발간되지 못하였고, 결국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고 만다. 《별무리》 창간호의 목차와 글쓴이는 다음과 같

89) 《별무리》 표지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촬영한 것이다. 별무리 광고는 1953년 12월 18일, 19일, 22일 3일 동안 게재되는데 위 사진은 1953년 12월 18일자 《제주신보》 1면에 실린 것이다.

90) 작품 모집 기간을 매달 15일까지로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을 모집했다. 시는 2점 이내, 소설은 200자 원고지 50매 이내, 수필은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평론은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희곡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이며, 접수처는 우생출판사내 별무리 모임 편집부이다. 제주학생문단 별무리모임, 《별무리》, 1953, 78쪽.

91) 《별무리》가 발간되기 전까지의 별무리 모임 행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8월 22일 ‘첫 작품 발표회’를 개최해 1편의 수필과 소설, 18편의 시가 낭독되었다. 9월 29일엔 ‘제2회 작품 낭독의 밤’, 10월 15일엔 ‘한글날 경축 작품감상회’를 개최해 계용목을 비롯한 여러 지도위원의 찬조작품을 낭독했다. 위의 책, 78쪽.

다.



<사진5> 《별무리》 창간호 목차

「권두사」-강군황(별무리 모임 성장)

별무리에 부치는 말

「별무리 발간에 제하여」-길성운(교육회장)

「별무리 발간을 축함」-전인홍(도회의장)

「문학 지망 학도들에게」-장용직(지도위원, 제주도회의원)

「별무리 모임을 육성하자」-고순하(우생출판사 사장)

「별무리 모임에 기함」-김인호(제주대학 강사, 오고 교사)

「새로운 것을」-전영기(제주대학 강사, 제주중 교감)

「별과 나」-강창수(신성여중 교감)

「별무리에 부침」-양중해(제일중 교사)

「신문학오십년풍물지(1)」-계용묵

「한국 현대 문학의 특질」-현평효(제대 교수)

「세계문호소개(1) 썩쓰피어편」-정치근

시단

「사랑」-김성주(오고)

「낙화부」-김미형(오고)

「밤」-문인자(제여고)

「잎이 지면」-김종두(제일중)  
 「달밤」-최평근(오중)  
 「산비둘기」-문충성(제일중)  
 「가을」-강추자(제여고)  
 「황혼」-고문웅(한림중)  
 「가을밤」-김청신(신여고)  
 「남해」-장현기(대정중)  
 「꿈」-백달정(제여중)  
 「별 뜨는 밤이면」-허재민(오고)  
 「축복」-김병욱(제상고)  
 「사장에서」-강통원(오고)

수필

「해변의 생리」-박철휘(오고)  
 「잊히지 않은 밤」-김은조(신여중)<sup>92)</sup>  
 「누님의 서름」-임병규(제사)  
 「귀뚜라미」-김상옥(제여고)  
 「내 고향」-김봉익(서귀농고)  
 「위문문은 어디로」-부택훈(제농고)

동화

「돌이와 안개」-김종원(오고)

창작

「고향집」-고영기(제대)

방송극

「대한의 아들딸」-강군황(제대)

학생 문예작품 모집

본 모임 일지

편집후기

앞에서 짚었듯이 《별무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별무리》 발간이 도내 중·고등 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결집하고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별무

92) 수록된 작품의 제목은 「잊지 못할 밤」으로 목차의 제목과 다소 다르다.



리》 발간 이후 실제로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문학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sup>93)</sup>도 있다.

1950년대 후반 등장한 제주 학생 동인지는 《석좌》와 《창립》이다. 전자는 소설, 후자는 시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별무리》 다음으로 등장한 《석좌》는 《별무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기영은 별무리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성좌(星座)이듯 돌무리를 뜻하는 석좌(石座)를 제호로 지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94)</sup> 제주시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석좌’는 1957년 7월 26일에 《석좌》 창간호(제1집)를 발간하고, 같은 해 12월 25일에 제2집을 내놓는다. 이후 동인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동인 활동은 상당 기간 이어졌다.<sup>95)</sup>

《석좌》와 1년 간격으로 학생 시동인지 《창립》이 나온다. ‘석좌’가 학생 연합동인이라면, ‘창립’은 제주상업고등학교 야간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창립》은 1958년 8월 5일에 창간호가 나오고, 같은 해 1958년 11월 25일에 제2집을 우생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창간호는 강통원의 지도로 조진춘, 정영택, 유춘원, 김용화, 이현근 등 다섯 명이 참여했다.<sup>96)</sup> 제주대학에 재학 중이던 선배 장순용이 ‘서시’를 썼다. 장순용은 ‘창립’보다 한 해 앞서 동인지를 발간한 ‘석좌’ 동인이기도 하다. 수록 작품으로 조진춘의 「야목」과 「물새」, 정영택의 「바위」와 「7월」, 유춘원의 「석상」과 「순정에서」, 김용화의 「고독」과 「어항」, 이현근의 「별」 등 9편의 시(詩)가 실려있다. 이들은 도내 백일장이나 작품 모집에서 수상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서 ‘제상 5인 문우회’라 할 수 있는 동인이다.<sup>97)</sup>

《창립》 제2집은 68쪽의 분량으로 조진춘, 정영택, 유춘원, 김용화, 박연자 다섯 명이 참여했다. 제1집의 이현근이 빠지고, 여학생 박연자가 합류했다. 당시 제주상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인 현용준이 서문을 썼다. 수록 작품으로 조진춘의 「봄노래」, 「우정」, 「창」, 정영택의 「고향의 작업실」, 「하늘」, 「실제」, 유춘원의 「침묵」, 「황혼」,

93)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19쪽.

94) 2022년 11월 30일에 방송된 JIBS ‘문화공감 토크콘서트’ 7부 (현기영 편)에서 현기영은 《석좌》 제호를 짓게 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023년 4월 2일 현기영과의 면담에서 ‘별무리’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95) 《석좌》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96) ‘창립’ 동인 중 조진춘과 정영택은 훗날 ‘석좌’ 동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가입 시기가 확실하지 않아 두 동인회 활동을 동시에 이어나갔는지, ‘창립’ 활동 이후에 ‘석좌’에 입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97) 제주상업고등학교·제주상업고등학교총동창회, 『제주상고오십년사』, 제주상고 50년사 편찬위원회, 2004, 128~129쪽.

「가을」, 김용화의 「참삶의 풀렌은 밤에」, 「가을의 합창」, 박연자의 「시냇물」, 「마음」 등 14편의 시(詩)다.

이제 《蒼林》이 두 살을 먹는다. 두 살 먹은 이 ‘개똥이’의 모습은 참 귀여운 것이다. 실로 미지수의 미래를 갖었기 때문이다. ‘10대의 청년들이 빛난 두 눈 속에 보아온 사회의 현실은 …… 자살구락부가 안 생긴 게 펍이나 이상할 정도로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동인들은 이미 목이 매였다. 밑받침은 공고해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고된 발굴작업에도 끄덕하지 않을 굳은 사랑은 가다듬어진 것이다.

언젠가 이 《蒼林》의 어깨에서 인류가 숨을 들리키게 될는지 어찌알랴. 이 귀염둥이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자.<sup>98)</sup>

녹록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인지 발간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당시 학생 문사들이 느꼈던 문학의 의미, 제2집 발간 후 학생들의 반응을 지도교사의 시각에서 쓴 것으로, 동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지도교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후기」에서 지도교사 현용준과 강통원, 우생출판사 사장 고순하, 장순용과 최승의 선배, 제주인쇄사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① 나는 2학년 국어를 맡아서도 교재 준비를 충실히 해서 수업에 들어갔다. 가령 이상(李箱)의 「권태(倦怠)」라는 단원을 하나 다루기 위해 이상전집(李箱全集)을 다시 읽고, 이상의 생애와 「권태」라는 수필의 내용을 전부 말해 주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은 그 중간 부분의 일부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단원을 가르쳤다. 이와 같이 해 가니 학생들이 국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나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문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도 꽤 많이 나타났다. 몇몇 학생은 소설이나 수필을 써서 가지고 와서 봐 달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읽고 고쳐야 할 대목을 일일이 고쳐 주고 평까지 써 주었다. 그리하였더니 3학년을 마칠 때 대학 국문학과에 들어가는 학생이 6~7명씩 나왔다.<sup>99)</sup>

② 가끔 《창림》을 꺼내 볼 때, 오싹하니 두려움이 전신을 떨게 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서툰 시가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하는 데서였다. 1집에 발표된 나의 시가 상당한 수정

98) 현용준, 「서」, 《창림》 제2집, 우생출판사, 1958, 37쪽.

99) 현용준, 「제주상고 교사」, 『한라산 오르듯이』, 각, 2003, 293쪽.

이 되어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나 싶은 것이다. 그땐 다소 기분이 언짢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중략)

나는 가끔 신통하지도 않는 동인지를 꺼내었다고 자설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다. 작품이 어찌다는 것보다 순진한 정열을 살리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낮엔 직장에 다니고 밤에 학교에 다니는 빈약한 포키트에서 1·2집 68페이지의 인쇄비를 감당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도 되지 않을까.<sup>100)</sup>

①은 현용준이 제주상업고등학교 재직 당시 국어 교과 수업 준비 과정과 창작 지도를 회고한 것이고, ②는 정영택이 《창림》 발간 10여 년 후에 당시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쓴 글이다. ①과 ②를 통해 당시 문학과 창작 수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지도교사의 첨삭지도가 학생들의 창작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간비 부담을 학생들이 짊어졌다는 것은 동인지 간행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게 하는 동시에 동인지 발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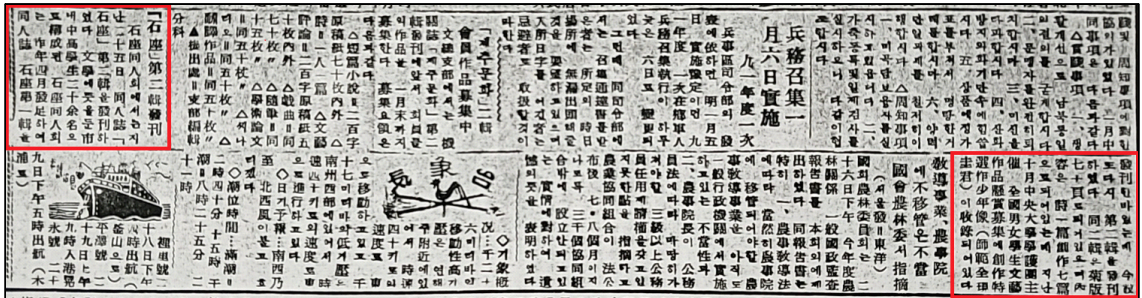
100) 정영택, 「제주문학 20년/창림」,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12. 4면.

### III. '석좌(石座)' 동인의 활동

#### 1. 동인 결성의 배경과 취지

지금까지 '석좌'의 결성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현길언의 슬회101)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57년 봄, 평소에 잘 어울려 다니던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칠성로에 있던 본인의 자취방에 곧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날 동인지 발간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나왔고, 오현고에 재직 중인 교사 김영돈의 지도로 동인지 발간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구체적인 의도 없이 우연처럼 동인이 구성되었고, 동인지 발간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연합동인을 결성하고 동인지 발간까지 해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1957년 12월 28일자 《제주신보》 2면에 실린 「『석좌』 제2집 발간」 기사를 보면, “문학에 뜻을 둔 시내 중고학생 이십여 명으로 구성된 석좌 동인회”는 “작년 사월” 그러니까 1956년 4월에 발족했다고 ‘석좌’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6> 《석좌》 제2집 발간 기사가 실린 《제주신보》

석좌동인회에서는 지난 25일 동인지 《석좌》 제2집을 발간하였다. 문학에 뜻을 둔 시내 중고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석좌동인회는 작년 4월 발족하여 동인지 《석좌》 제1집을 발간한바 있는데 금번 또다시 제2집을 발간하였다. 동 2집은 국판 70매로 되어있으며 내용은 시 1편 창작 7편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10월 중앙대학학회단 주최 전국남녀학생문

101) 현길언, 「제주문학 20년/석좌」, 앞의 기사.

예작품현상모집에 창작 특선작 「소년상」(사범 전현규 군)이 수록되어 있다.

- 『『석좌』 제2집 발간』 전문102)

지금껏 ‘석좌’가 제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문학에 뜻을 둔 중학생과 고등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석좌》 제1집이 발간되기 전인 1956년 4월에 결성되었다는 것이다. 현길언의 술회는 동인 결성보다는 동인지 발간에 대한 회고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석좌’의 시발 주체인 문학에 뜻을 둔 시내 중·고등학생 이십여 명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세상을 뜨거나 고령이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석좌’ 동인으로 회자되는 이들 역시 동인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문학적 성과를 거둔 문인들인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 동인일 경우 대개 졸업과 진학을 계기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해체의 길로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석좌’는 학생 동인으로 시작해서 성인 동인으로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연구자가 확인한 바로는 ‘석좌’를 거쳐 간 동인은 고치문, 김광협, 김철희, 박호길, 손춘, 장순용, 전달문, 전현규, 정영택, 조진춘,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 홍희구 등 14명이다.

정리하자면, 1956년 4월에 제주시내 중·고등학생 문학 동인 ‘석좌’가 결성되었고, 그 동인들 가운데 평소에 잘 어울려 다니던 시내 고등학생들이 칠성로에 있던 현길언의 자취방에 모여 동인지 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서 1957년 7월 《석좌》 제1집을 간행한다. 오현고등학교의 김철희, 현기영, 홍희구, 제주상업고등학교의 고치문, 장순용, 제주사범학교의 전현규, 현길언 등 7명이 제1집 간행에 참여했다. 제2집을 발간할 때에는 오현고등학교의 홍권홍이 참여해 모두 8명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서로 같이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제주시에 남아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박호길, 정영택, 조진춘이 입회하였다. 좀 더 후에는 김광협, 전달문도 함께 하게 되었다.

102) 『『石座』第二輯發刊』,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7. 12. 28. 2면.



<사진7> '석좌' 합평회 기념(1964년)<sup>103)</sup>

1964년 8월 10일에 찍은 합평회 기념사진(<사진7>)을 보면 뒷줄 왼쪽부터 정영택, 장순용, 현길언, 전달문이고, 아랫줄 왼쪽부터 박호길, 손춘, 전현규이다. 손춘의 경우 1960년에 찍은 사진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석좌' 동인인 것은 확실하나 가입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현기영과 김철회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후에 입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출신 학교 기록이나 문학 활동 등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철회에 따르면 정영택의 경우 동인지에 작품을 발표하지만 않았을 뿐 학창시절부터 함께 동인 활동을 했다고 한다. 특히 제2집 발간에 정영택의 힘이 컸다면서 동인지 제2집 축사를 당시 제주상업고등학교 교장이 써준 사실을 환기했다. 하지만 고치문과 장순용 역시 제주상업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축사 원고 수록을 근거로 정영택의 활동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무리다. 정영택은 1958년 시동인지를 발간한 '창립' 동인이기도 하다. 또한 홍권홍의 경우에는 동인지 제1집을 발간할 때는 활동하지 않았다가 제2집 발간 전에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철회가 증언했다.

103) 이 사진은 우도에 위치한 남훈문화관이 소장한 것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8> 1960년 활동 중인 '석좌' 동인<sup>104)</sup>

<사진8>은 1960년 4월에 활동했던 '석좌' 동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문학청년 시절 석좌 동인들과 함께'란 부제가 달린 사진에는 모두 10명의 동인이 있으나 4명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동인이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뒷줄 왼쪽부터 전달문과 전현규, 다섯 번째가 현길인, 아랫줄 맨 오른쪽이 손춘이다.

전달문은 자신의 저서<sup>105)</sup>에 1962년 2월부터 '석좌' 동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위 사진은 동인 자격으로 찍은 것은 아니다. 그가 동인 활동 시기를 밝히면서 함께 활동한 동인으로 오성찬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sup>106)</sup> 입회 시기와 저서 발간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 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전달문의 가입 시기 역시 못 박기 어렵다. 다만 그가 1956년 4월 '석좌'가 발족할 당시 함께 있었던 20여 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104) 전달문, 『방향유곡』, 선우미디어, 2008, 158쪽.

105) 전달문, 『전달문 시문집』, 순수문학사, 1999, 265쪽.

106) 오성찬은 소설가 정영택을 추모하는 글에서 20대 전후 자신은 서귀포시 서호리 고향에 머물던 터라 '석좌' 멤버에 갈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뜻한 가슴과 자신에게 엄격함-소설가 정영택 형을 추모함」, 《서귀포문학》 제15집, 한국문협서귀포지부, 2004, 20쪽.

《석좌》 제2집 발간 기사와 현길언과 김철희의 회고로 미루어 보면, 학생 동인인 ‘석좌’는 체계적으로 조직되거나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인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도 없었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도 않았다. 상황에 따라 모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동인의 가입 시기와 탈퇴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석좌’는 동인지 발간의 주축이 되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장순용, 전현규, 현길언, 홍희구가 졸업하고,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김철희와 현기영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그만두면서 동인 활동이 주춤해졌다. 졸업과 진학을 계기로 동인의 이동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석좌’에 남은 동인은 장순용, 전현규, 현길언이다. 고치문<sup>107)</sup>, 홍권홍, 홍희구의 경우 이후 문학 활동이나 작품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들 역시 졸업과 동시에 동인을 그만두었으리라 추정된다.

내 글재주를 좋게 평가해 주면서 학교를 대표하는 ‘문학 선수’로 뽑아준 분이 다름 아닌 국어 담당 김영돈 선생님이다. 다른 몇몇 아이들과 함께 문학 선수가 된 나는 각종 백일장에 나가 상을 받아오곤 했다. 중2 때는 학도호국단이 주최하는 전국학생문예콩쿨에서 콩트 「행군소리」로 2등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김영돈 선생님의 착실한 제자가 된 나는 그분의 방을 무상 출입할 수 있었고, 서가에 꽂힌 문학책을 마음대로 빌려다 볼 수 있었다. 중2 때 벌써 나는 이상, 김유정, 김동리, 황순원, 오영수, 안수길 등의 소설들을 읽었고, 그 무렵 갖 창간한 《현대문학》의 애독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독서 경험이 나를 문학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중략)

말에서 실패한 나는 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최초의 안내자가 김영돈 선생님 이었던 셈이다. 문학청년이었던 선생님은 그 풍부하고 예리한 문학적 감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들 중학생에겐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존재였다.<sup>108)</sup>

현기영은 자신을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한 최초의 안내자가 김영돈이라 밝힌다. 김

107) 고치문의 경우 졸업 후 문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시내 고교 문예애호학생 대של문’에서 고치문은 장차의 포부에서 문학을 “학생 시절의 취미 정도로 끝장”을 보겠다고 밝힌다. 오현고등학교, 앞의 책 제3호, 183쪽.

108) 현기영, 「나의 스승, 김영돈 선생님」, 『삶과 문화』 56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15, 60~61쪽.



철희 역시 오현중학교 야간부 재학 중 국어교사 김영돈과의 만남이 문학 소년의 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김영돈의 서가에서 《현대문학》을 꺼내 읽었던 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현기영과 비슷한 경험을 언급했다. 또한 ‘석좌’ 결성은 김영돈의 중학교 제자들이 구심이 되었다고 밝혔다. 현길언도 오현중학교 재학 시 김영돈을 만나면서 문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sup>109)</sup> 지금까지 연구자가 확인한 ‘석좌’ 동인 중 오현중학교 출신 구성원은 고치문, 김철희, 전현규,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 등이다. 김영돈은 당시 장순용의 형인 장용직의 집에 세 들어 살았기 때문에 장순용 역시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유추된다. 현기영과 김철희는 김영돈의 집에서 장순용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서로 교류하며 ‘석좌’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김영돈의 중학교 제자들이 구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문학청년이었던 김영돈은 오현중학교 국어 교사를 거쳐 오현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오현중학교 재직 당시 계용묵과 자주 만나며 소설습작에 매진했다. 계용묵은 그의 습작품을 꼼꼼하게 첨삭 지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계용묵의 가르침 속에서 터득한 창작법과 그의 순수한 문학 열정은 교실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손바닥 위에 분필 토막을 굴리며 울림 좋은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거나 소음이 오히려 침묵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자신의 문학적 열정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잠자리에 든 학생들은 한밤중 낙엽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곱씹으며 문학의 어법을 깨우쳤다.<sup>110)</sup> 계용묵은 제주를 떠날 때 조연현과 함께 《현대문학》을 꾸미게 되었다며 그에게 소설 공부를 당부했다. 김영돈은 훗날 민요 등 구비문학 공부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 어떤 동기에서 바꾸게 되었는지 아리송하다고 회상했다.<sup>111)</sup> 문학청년이었던 그의 서가에 《현대문학》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현기영과 김철희 역시 그의 서가 중에서 《현대문학》을 꺼내 읽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정도면 여느 책들과는 다른 의미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 김영돈은 피난 문인이었던 계용묵에게 받은 영향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인 ‘석좌’에게

109) 현길언, 「기억과 기록」, 앞의 책, 96쪽.

110) 현기영은 그의 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 중 「글쓰기」에서 김영돈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우상인 ‘김선생’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의 문학적 열정이 은연중 자신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상의 순가락 하나』, 실천문화사, 2003, 296쪽.

111) 김영돈, 「사람살이의 바탕을 헤아린다」, 《제주문학》 제31집, 제주문협제주도지회, 1998, 38~41쪽.

전하는 전수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그의 국어 수업을 비롯하여 학생 문학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책이 귀한 시절 문학청년인 자신의 서가를 함께 이용하게 했던 그의 노력이 제주의 문학후속세대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다고 김영돈의 주도로 ‘석좌’가 꾸려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철희는 ‘석좌’가 누군가의 지시와 강요로 움직이는 동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석좌’는 1950년대 후반 제주의 문단 흐름에 맞춰 탄생한 것으로, 김영돈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연합동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석좌’ 중에는 학생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동인 활동을 이어온 부류와 졸업과 동시에 활동을 그만둔 경우, 성인이 되어서 가입한 경우로 나뉜다. 이들은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석좌’ 동인과 출신 학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출신고등학교	출신 중학교	동인지 작품 발표 여부
고치문	제주상업고등학교	오현중학교	○
김광협	서귀농림고등학교	서귀중학교	
김철희	오현고등학교	오현중학교	○
박호길	제주사범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손춘	미확인	미확인	
장순용	제주상업고등학교	애월중학교	○
전달문	오현고등학교	제주피난중학교(배재중)	
전현규	제주사범학교	오현중학교	○
정영택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조진춘	제주상업고등학교	미확인	
현기영	오현고등학교	오현중학교	○
현길언	제주사범학교	오현중학교	○
홍권홍	오현고등학교	오현중학교	○
홍희구	오현고등학교	미확인	○

<표3> ‘석좌’ 동인과 출신 학교

고치문, 김철희, 전현규,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은 김영돈의 오현중학교 제자로 ‘석좌’ 원년 동인으로 추정된다. 박목월의 문학 수업에 동참한 홍희구와 장순용 역시 함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8명은 모두 동인지에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김광협, 박호길, 손춘, 정영택, 조진춘은 후에 입회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달문은 본인이 밝힌 대로 중앙대학교 재학 중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시대의 경향을 대변하고 그들 나름의 문학적 천착과 방법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동인의 특징이라고 볼 때, 동인으로서 ‘석좌’가 지향했던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석좌. 우리들 문예를 □동경(憧憬)하는 무력한 학도들이 여기에 모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버젓한 어(語)□에 깨끗하게 살아갈 만한 실감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향토적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대지 위에 앉은 ‘돌’의 자태는 미숙한 저희가 하나의 지상목표로 한다 해도 좋습니다.

(중략)

어수룩한 문장(文章)으로서 이 소책자에 수록된 작품은 참말로 저희의 자그만 심장에서 짜낸 피임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세상의 조소와 호통과 그리고 엄벌을 받으려고 일어난 것입니다.<sup>112)</sup>

② 석좌, 우리들 문학을 지망하는 학도들의 미약하나마 피땀 흘린 노고의 결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 지그시 깨문 침묵 속에 오히려 깨끗한 신심이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소박한 향토의 냄새가 풍기면서도 그렇지 않은 물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의젓하게 버티고 선 ‘돌’의 자태는 미숙한 저희들의 지상목표라 해도 좋습니다. (제2집, 70쪽.)

①은 《석좌》 제1집에 수록된 「편집후기」 일부이고 ②는 《석좌》 제2집의 「여적」 중 일부이다. ①과 ②에서 알 수 있듯이 ‘석좌’는 뚜렷한 문학 이념을 표방하지 않았다. ‘석좌’는 “향토적이면서도”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 문학을 하리라는 의지와 함께

112) 석좌클럽, 《석좌》 제1집, 1957, 67쪽. 《석좌》를 인용할 때 원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등사본 매체가 그러하듯 오타자와 관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아 현행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분명한 잘못은 바로잡아 인용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쉬운 한자는 대부분 한글로 바꾸고,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한자를 병기 하겠다. 관독 불가능한 글자는 글자 수만큼 □으로 표기한다. 앞으로는 인용문 뒤 ()안에 호수와 쪽수만 밝힌다.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의젓하게 버티”고 선 “돌”처럼 문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들의 문학적 기반이 돌로 상징되는 제주에 강하게 뿌리박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인 한 명 한 명이 제주의 돌과 같다는 것에서 착안해 동인지 제호를 지었다는 현기영의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좌’는 척박한 환경과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살아남은 제주 사람의 정신을 문학관으로 삼아 문학적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문학이 지역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리라는 것 또한 예측하게 만든다. 결국 ‘석좌’는 돌로 상징되는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결성된 동인이다.

## 2. 동인 활동의 양상

1956년 4월에 발족한 ‘석좌’의 활동은 학생 동인에서 성인 동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한다. 학생 동인일 때는 동인지를 발간하고, 문인 초청 좌담회 등 도내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백일장 및 문학작품 공모에 투고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면, 성인 동인이 되어서는 동인지 발간은 하지 못했으나 당시 발표된 문제작을 중심으로 작품 합평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작 공부에 열을 올렸으며, 작품 현상모집과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제주의 문화 기반을 다지는 주체로 성장했다. 또한, 신문과 기관지 등 지역 매체에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하면서 제주 문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석좌’가 결성된 후 처음으로 이룬 성과는 동인지 창간이었다. 1957년 7월 26일 《석좌》 제1집 발간 후 만 5개월 만인 12월 25일에 제2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제2집을 발간하기 열흘 전인 1957년 12월 15일에는 문덕수 초청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9> 《석좌》 제2집 발간일에 촬영한 사진113)

<사진9>는 동인지 제2집을 발간한 12월 25일에 촬영한 사진이다. 뒷줄 왼쪽부터 장순용, 전현규, 아랫줄 왼쪽부터 현기영, 현길언이다.

학생 동인 시절에는 백일장에 참여하거나 지역과 중앙을 막론하고 작품을 투고하는 등 활발한 습작 활동을 이어나갔다. <표4>는 ‘석좌’ 구성원의 수상작품과 수록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름	대회명	작품명	수록지
김철희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계모	《석좌》 제1집, 석좌클럽, 1957
박호길	제1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 특별상	삼성사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두부 장수 할머니와 나	
	제주대학 제1회 진도학생문예현상 입선작	춧불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교육주간기념 제1회 백일장 장원	기원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건국대학 전국고교생문예현상 당선작		
제주대학 한글시 백일장 장원	태풍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113) 정중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호, 현대소설학회, 2015, 37쪽.

	《학원》 입선작	저녁중-밀레에 부쳐	《학원》 9권 1호, 1960. 『시의 고향, 창조사, 1989
	제5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당선	등하기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제대개교8주년기념 제2회 현상문예 당선	가로수	《제대신보》 1960. 7. 5
장순용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어느 마을의 전설	
전현규	제주대학 한글날 기념 백일장 입선작	바다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특별상	해후	
	제2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산	
	제2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오(五)미터 <sup>114)</sup>	《제주신보》 (1957. 12. 20. ~27.5회연재)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 1958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제3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중앙대 제1회 전국 고교생 문예현상 당선작	소년상	《석좌》 제2집, 석좌동인, 1957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현기영	오현고 주최 전도 학생 종합예술제 현상공모 특선작	어머니와 어머니 <sup>115)</sup>	《현악》 제2호, 오현고등학교, 1955
	제2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행군소리	《글림》 제2호, 오현중학교학도호국단, 1956 『한국학생문학선, 제1집, 학도주보, 1956
	제3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하나의 노을 밑은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특별상		
	제주대학 한글날 기념 백일장 장원	나	《석좌》 제1집, 석좌클럽, 1957
현길언	제4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백치의 장	《석좌》 제1집, 석좌클럽, 1957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 1958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제2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종말	《석좌》 제2집, 석좌동인, 1957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 장원	섬	《들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홍권홍	오현고 주최 전도 학생 종합예술제 현상공모 특선작	바위	《현악》 제2호, 오현고등학교, 1955
	제1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청사에 부치는 노래	
	《학원》 입선작	소년상 <sup>116)</sup>	《학원》 6권 8호, 1957
	《학원》 입선작	影(그림자)	《학원》 7권 3호, 1958 『시의 고향, 창조사, 1989

114) 「오(五)미터」와 「5미터」는 같은 작품이다. 「오미터」는 제2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 입선작 제목이고, 「5미터」는 제3회 중앙학도호국단 주최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입선작 제목이다.

115) 홍권홍은 현기영이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지에 「어머니, 어머니」란 제목의 산문으로 1등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재앙과 원한의 불 또는 제주도의 땅울림-「아버지」에서 「지상의 숲 가락 하나」까지, 『작가세계』 36, ㈜도서출판 세계사, 1998, 23쪽) 수상 시기로 보아 1954년에 개최된 오현고등학교 주최 전도 학생종합예술제 현상공모 특선작인 「어머니와 어머니」와 같은 작품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기영의 중학교 1학년 때인 1954년을 전후해서 발간한 《학원》지 2

<표4> '석좌' 동인의 수상작품과 수록지<sup>117)</sup>

김철희, 박호길, 전현규,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 등의 수상작들이 교지나 문예지, 《석좌》에 재발표되고 있다. 장순용과 전현규, 현기영, 홍권홍의 수상작품 중 수상 사실만 확인될 뿐 수상작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는 수상작을 발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면이 제공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동인들은 의욕적으로 동인지 발간에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인들은 1958년에 결성된 '제주문학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 문학 사회에 진입한다. '제주문학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동인은 시분과에 김광협, 소설분과에 장순용, 정영택, 현길언, 아동분과에 전현규다. 소설을 주로 창작하던 전현규가 아동분과 회원이 된 것은 그가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학교를 졸업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당시 '제주문학인협회' 아동분과 회원이 전현규 한 명뿐인 것 역시 제주의 아동문학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한 아쉬움과 주문에 기인했을 것이다.<sup>118)</sup> 같은 해에 장순용은 『제대학보』 제2호(제주대학학도호국단)에 소설 「정점」을 발표했다.

1960년에 들어서면 '석좌'의 활발한 활동을 포착할 수 있다. 제주대학 신문인 《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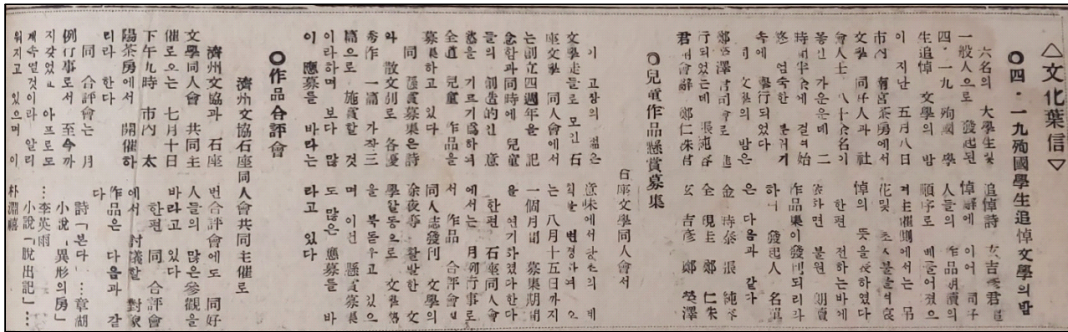
권 1호(1953. 1)부터 7권 8호(1958. 12)까지 확인한 결과 현기영의 수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116) 홍권홍의 시 「소년상」과 전현규의 소설 「소년상」은 제목만 같을 뿐 다른 작품이다.

117) 학생 동인 '석좌'에 활동 중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박호길의 경우는 입회 시기를 알 수 없어 표에 포함시켰다. 제1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에서 장순용은 산문부 가작, 현기영은 산문부 장려상을 수상했으나 작품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다.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 올림피아 고등부 산문부에서 1등에 현길언, 3등에 현기영, 4등에 전달문, 5등에 홍희구(《제주신보》 1957. 11. 27.)가 각각 순위에 들었으나 현길언을 제외하고 작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백일장에서 주어진 제목이 '섬'이었기 때문에 현기영과 전달문, 홍희구의 입선작 제목 모두가 '섬'일 가능성이 있다. 제3회 제주문화제 문학 올림피아에서는 정영택이 남자고등부 산문부 2등(《제주신보》, 1958. 11. 29)의 영예를 얻었으나 작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기영의 경우 「집결소」(《현악》 제3호, 오현고등학교, 1958) 역시 입선작(2023년 4월 2일에 이루어진 면담에서 현기영은 「집결소」 입상 이후로 학업에 매진했다고 밝혔다.)인데 대회명을 확인할 수 없어서 표에 포함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장편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 중 「책」에서 중3 무렵에 제주대 주최의 백일장에 참가하여 「나」라는 제목의 글이 장원이 되었다는 것과 「책」에 소개된 작품 내용과 《석좌》에 수록된 작품의 유사성으로 수상 여부를 추정해 표에 반영한 것이다.(『지상에 순가락 하나』, 앞의 책, 320쪽) 《석좌》에 수록된 「나」는 작품 마지막에 '1957. 3.'이라고 창작 시기를 명기했다.

118) 『제주아동문학40년사』(제주아동문학협회, 2021, 16쪽)에서 “1958년 결성된 제주문학인협회의 아동문학분과에는 전현규가 속해 있는데, 제주 출신인지, 피난 작가였는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윤이 2006년에 발간한 『기억의 현장과 체현의 언어』에서 전현규가 제주 출신이라 밝힌 바 있으나 제주아동문학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연구자가 확인한 전현규의 동화는 「관덕정의 돌할아버지」로 1966년 9월 10일부터 8회에 걸쳐 《제주신문》에 연재했다.

신보》 1960년 7월 5일자 4면 문화엽신 코너에서는 ‘석좌’ 기사 두 편과 동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연이어 실렸다.



<사진10> 1960년 ‘석좌’의 활동상을 보도한 《제대신보》 기사

○ 4·19 순국 학생 추도 문학의 밤

6명의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발기된 4·19 순국 학생 추도 문학의 밤이 지난 5월 8일 시내 남궁다방에서 문학 동호인과 사회 인사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반 여에 걸쳐 시종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되었다. 동 문학의 밤은 정영택 군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장순용 군 개회사 정인수 군 추도시 현길연 군 추도사에 이어 동호인들의 작품낭독의 순서로 베풀어졌으며 주최 측에서는 조화 및 촛불을 켜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한편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불원 낭독작품집이 발간되리라 하니 발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시태, 장순용, 전현규, 정인수, 현길연, 정영택.

○ 아동작품현상모집/석좌문학동인회서

이 고장의 젊은 문학도들로 모인 석좌 문학동인회에서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아동들의 창조적인 의욕을 기르기 위하여 전도 아동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동 현상모집은 시와 산문별로 각 우수작 1편, 가작 3편으로 시상할 것이라 하며 보다 많은 응모를 바라는 의미에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오는 8월 15일까지 1개월간 모집기간을 연기하였다 한다.

한편 석좌동인회에서는 월례행사로서 합평회, 동인지 발간, 문학의 제야 등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문학열을 북돋우고 있으며 이번 현상모집도 많은 응모를 바라고 있다.

○ 작품합평회/제주문협·석좌동인회 공동주최로

제주문협과 석좌문학동인회 공동주최로 오는 7월 10일 하오 9시 시내 태양다방에서 개최하리라 한다.

동 합평회는 월례행사로서 지금까지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 열 것이라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합평회도 동호인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한편 동 합평회에서 토의할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시 「분다」…장호, 소설 「이형의 방」…이영우, 소설 「탈출기」…박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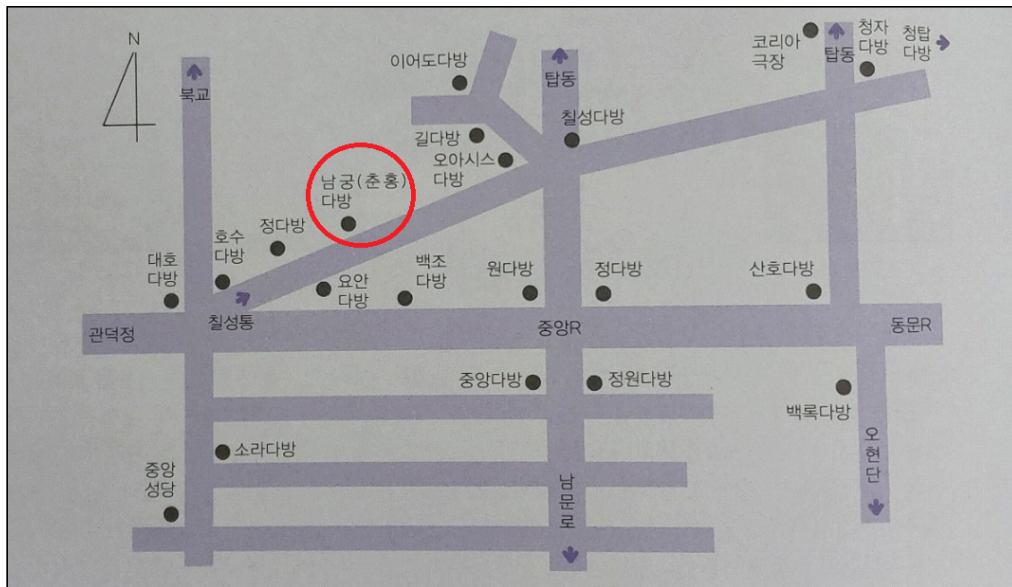


「4·19 순국 학생 추도 문학의 밤」 기사에 의하면, 1960년 5월 8일 4·19 순국 학생 추도 문학의 밤이 시내 남궁다방<sup>120)</sup>에서 문학 동호인과 사회 인사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되었다. 이때 정영택이 사회를 보고, 장순용의 개회사, 현길언의 추도사에 이어 작품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참여한 동인이 장순용, 전현규, 정영택, 현길언이다. 물론 이 기사에 ‘석좌’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좌’의 활동이라기보다 동인 중 몇 사람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듬해에 제2회 추도 문학의 밤을 ‘석좌’ 동호인의 이름을 내걸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작품낭독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동인 개인의 활동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아동작품현상모집/석좌문학동인회서」 기사에 의하면 ‘석좌’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동들의 창조적인 의욕을 기르기 위하여” 전도 아동작품을 현상 모집한다. 시

119) 《제대신문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 4면.

120) 당시 제주의 “다방은 문학적 대화의 장이면서 가끔 합평회, 시낭독회의 장”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제주문단은 다방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계용묵의 제주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백다방’과 명곡만을 들려주던 ‘남궁다방’, 구석진 곳 조용하기만 했던 ‘카네이션 다방’도 문학의 장이 되었다. 당시 문학적 공간이라면 다방과 함께 YMCA, 우생당서점을 들 수 있는데, 문학의 밤의 경우 행사 규모가 작으면 다방, 크면 YMCA나 학교의 강당을 이용했다.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과정」, 앞의 책, 11쪽) 다음은 당시 남궁다방 위치를 표시한 약도이다. (오승익, 「제주의 전시문화-60,70년대 다방전시 문화 중심으로」, 『삶과 문화』 1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14쪽)



와 산문별로 각 우수작 1편과 가작 3편으로 시상할 계획을 밝히며 많은 응모를 바라는 의미에서 모집 기간을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했다. 더불어 '석좌'의 활동을 덧붙였는데, 월례행사로 작품 합평회, 동인지 발간, 문학의 제야 등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문학열을 북돋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길언의 술회(21)처럼 동인지 발간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오고 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동인지는 제2집 이후에는 발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작품합평회/제주문협·석좌동인회 공동주최로」 기사에 의하면 1960년 7월 10일 오후 9시에 시내 태양다방에서 '제주문협'과 '석좌'의 공동주최로 작품 합평회가 개최될 것을 예고했다. 당시 합평회에서 토의할 작품도 안내되었는데, 장호의 시 「본다」, 이영우의 소설 「이형(異形)의 방」, 박연희의 소설 「탈출기」이다.

<사진11> '석좌'가 개최한 문학의 제야 관련 《제대신보》 기사

문학 동호인으로서 구성된 석좌동인회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7시부터 시내 남궁다방에서 문학의 제야를 가졌다.

121) 현길언, 「제주문학 20년/석좌」, 앞의 기사.

회원 장순용 군의 사회로 진행된 동회에서는 제대 문덕수 교수의 창작, 제상고 교사인 강통원 선생의 시, 최길두 씨의 희곡 시나리오 등에 대한 1960년도 문단 총평이 있었고 이기형 씨의 시나리움 현용준 선생의 민속학과 그 전망, 이치근 씨와 양순필 씨 등의 나의 시작 생활 등에 관한 말씀이 있는 후에 김종훈 씨의 자작시 「한라산정」과 김성주 씨의 유치환 지은 「무제」에 대한 시해설이 있었으며 김영돈 선생의 동인활동의 전망, 고영일 선생의 제주문단의 진로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상의 총평, 시해설, 강연이 끝난 후에 동인과 일반인의 작품낭독이 있었는데 그 작품명과 낭독자는 다음과 같다.

전현규(「엽서에」 수필), 조진춘(「어느 일요일의 우화」 콩트), 박호길(「병원철학」 수필), 현길언(「실향민」 단편), 정영택(「저무는 해에 부처」 수필), 김시대(「효종(曉鐘)」 시), 김용화(「사랑의 전설」 시), 김영환(「십자로에서」 시), 고정현(「바람의 모습」 시), 부청자(「눈길」 시), 양태조(「묘지 옆에서」 시) 외 일반인 수명.

그런데 금번으로써 제2회째인 동 문학의 제야에는 다수의 내빈과 청중이 참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제대의 현평호 교수와 오고 교사인 양중해 선생의 축사가 있었다.

- 「<문단 소식> 석좌동인회에서 문학의 제야 개최/1960년도의 제주문예총결산」 전문<sup>122)</sup>

1960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제2회 문학의 제야는 제주 문학 안에서 ‘석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석좌’ 동인의 숙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덕수의 소설, 강통원의 시, 최길두의 희곡 등 1960년대 제주 문단을 평가하고, 김영돈의 ‘동인활동의 전망’과 고영일의 ‘제주 문단의 진로’에 관한 강연이 마련될 정도로 ‘석좌’의 문학적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치근과 양순필의 시작 생활, 김성주의 시해설과 더불어 동인과 비동인의 작품 낭독의 자리 등을 마련해 제주도민들이 더욱 쉽게 문학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현규 「엽서에」(수필), 조진춘 「어느 일요일의 우화」(콩트), 박호길 「병원철학」(수필), 현길언 「실향민」(단편), 정영택 「저무는 해에 부처」(수필) 등 ‘석좌’ 동인과 김시대 「효종(曉鐘)」(시), 김용화 「사랑의 전설」(시), 김영환 「십자로에서」(시), 고정현 「바람의 모습」(시), 부청자 「눈길」(시), 양태조 「묘지 옆에서」(시) 등의 비동인이 작품을 발표했다.

이처럼 ‘석좌’는 당대 문제작인 작품을 중심으로 합평 공부를 이어가다가 하면, 제주 문학에 애정을 쏟으며 문단 총평을 할 정도로 중앙과 지역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소설 창작에 좀 더 무게를 실었던 동인지와 달리 그 활동에서는 다양한 문

122)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12. 25. 4면.

학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동인의 확대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은 현길언과 박호길이 제주대학 개교 8주년을 기념하여 국어국문학회에서 주최한 현상문예작품 공모에 당선되었다. 당선작은 현길언의 「체온」과 박호길의 「가로수」이다.<sup>123)</sup> 당시 박호길은 제주사범학교 학생이었다. 정영택은 「비 오는 날의 창가에서」로 용아문학상을 수상하고, 장순용은 종합잡지 《새생활》<sup>124)</sup>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작품 발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조진춘의 「무제」와 「바다와의 대화」, 정영택의 「귀향」, 「잔영」, 현길언의 「체온」,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박호길의 「가로수」가 그것이다.

1961년 1월 31일자 《제대신보》에 게재된 「제6회 작품합평회」 기사에서는 석좌동인회의 작품 합평회가 끈기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6회 작품 합평회는 1월 31일로 196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소설인 김문수의 「이단부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61년 4월 20일자 《제대신보》는 ‘석좌’가 제2회 4·19 추도 문학의 밤을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주 출신 재경 대학생 시 특집도 함께 다뤘는데,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인 박호길의 시 「열도(熱度)있는 밤」과 중앙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전달문의 「서(書)」를 수록했다.

1963년에는 김광협<sup>125)</sup>이 《신세계》 9월호에 「빙하를 위한 시」로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196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기」가 당선되어 중앙

123) 제주대 현상문예작품공모는 소설과 시부문으로 나뉘어 모집했다. 시상은 일반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이루어졌는데 입선 4편과 가작 6편을 뽑았다. 4·19로 중앙문인에게 심사를 위촉하려던 계획이 무산돼 제주대 국문과 교수들이 심사를 했다. 일반부 소설 입선작은 현길언의 「체온」, 가작은 강관옥의 「출세비결」, 일반부 시 입선작은 정인수의 「상실」, 가작은 강춘래의 「無료의丹粧」, 박성원의 「호수」, 고등부 소설 입선작은 유영부(오현고)의 「어떤 하루」, 가작 안성찬(농고)의 「태풍」, 양관홍(오현고)의 「모성애」, 고등부 시 입선작은 박호길(제주사범)의 「가로수」, 가작 김기원(오현고)의 「불꽃의 기억」이다. 문덕수가 쓴 선후감(選後感)을 보면 일반부 소설 가작으로 거론되었던 작품 중에 오성찬의 「슬픈 전설」, 정영택의 「또 하나의 반역」, 김용길의 「흐르지 않은 강은」이 있다.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 4면.

124) 《새생활》은 국판 크기 102면 규모로 제주에서 발행된 종합잡지로 창간호를 발행하고 중단되고 만다. 발행인은 김동해, 주간은 강군황, 편집위원으로 김종훈, 좌동배, 장순용이었다. 17면에 걸쳐 103건의 창간 축하 광고와 일반 광고를 실었으며 정가는 300환이다.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1997, 215~217쪽.

125) 김광협(1947~1993)은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태어났다. 1956년 서귀농림고등학교에 입학해 국어교사 강군황의 문학 지도를 받았다. 196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이후 1974년에 현대문학상, 1981년에 대한민국문학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김광협을 기리는 ‘김광협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시집으로는 『강설기』(1970), 『천과반과』(1973), 『농민』(1981), 『황소와 탱크』(1983), 『예성강곡』(1983),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1984), 『유자꽃 피는 마을』(1990), 『산촌서정』(1992), 번역시집으로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시집』(1991), 『투르게네프 산문시』(1992) 등이 있다.

문단에 진출했다.

‘석좌’의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진7>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1964년까지 합평회 등 동인 활동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좌’를 다룬 여러 자료<sup>126)</sup>에서 1960년대 초까지 동인 활동이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석좌’ 동인 활동의 흔적은 훨씬 더 오래 남아있다. 이번에 동인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1975년까지도 동인 활동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성인인 된 동인들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석좌’ 동인임을 밝히기 시작했다. 다음은 글쓴이가 ‘석좌 동인’이라 명기한 작품들이다.

정영택, 「표백(1)」, 《제주신보》, 1962. 9. 16. 4면.

박호길, 「겨울의 서곡」, 《제주도》 제10호, 1963.

현길언, 「소리가 그치다」, 《제주도》 제13호, 1964.

전달문, 「실향인의 귀향」, 《제주신문》, 1964. 7. 9.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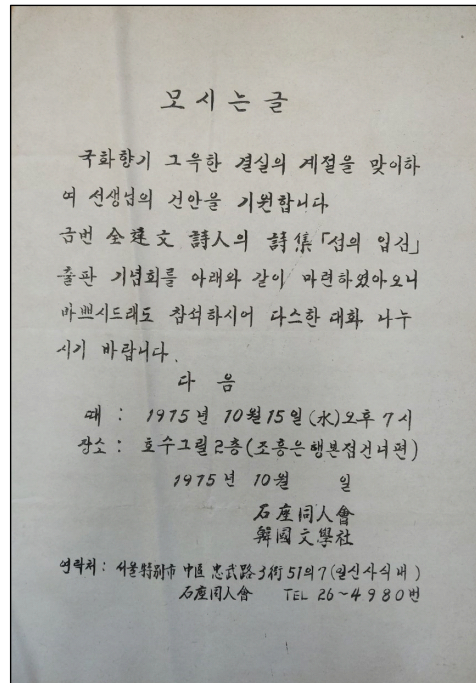
장순용, 「가을에의 초대」, 《제주도》 제26호, 1966.

정영택, 「일상의 권태」, 《(월간) 개발제주》 10월호, 1975.

‘석좌’ 동인임을 내세운 작품이 1975년 정영택의 단편소설 「일상의 권태」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달문이 시집 『섬의 입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쓴 ‘모시는 글’ 발신에 행사 주최로 ‘석좌동인회’를 명기하고 있다(<사진12>). 따라서 ‘석좌’의 활동 시기는 1975년 10월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

126)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521쪽; 고시홍, 앞의 책, 78쪽.



<사진12> 전달문 출판기념회 「모시는 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제주 문단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해체 상태나 다름없던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가 1972년 8월 30일에 재발족하면서 제주의 문학단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석좌’ 동인인 정영택, 조진춘, 현길언이 소설분과 회원으로 활동했다.<sup>127)</sup> 정영택은 초대 부지부장, 현길언은 초대 감사에서 제2대 부지부장을 맡기도 했다.<sup>128)</sup> 1974년에는 박호길이 제주제일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입회원이 되었다.<sup>129)</sup> 1976년 10월 당시 ‘제주문협’ 회원 중 ‘석좌’ 동인으로는 시분과에 박호길, 소설분과에 정영택, 조진춘, 현길언 등이 있었다.<sup>130)</sup> 이처럼 ‘석좌’ 중 다수가 당시 제주 문단의 가장 중요한 문학단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제주 문학의 저변을 다지는 데 한몫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순용의 경우 ‘제주문학인협회’ 소설분과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작품 발표가 많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작품으로는 1958년 《제대학보》 제2호에 실린 단편소설 「정점(定點)」과 1959년 《향림》 창간호에 4회 졸업생 자격으로 발표한 소

127) 「한국문협 제주도지부 회원명단」, 《제주문학》 창간호, 1972, 119~120쪽.

128) 고시홍,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제13집, 1984, 265쪽.

129) 「회원동정」, 《제주문학》 제3호, 1974, 155쪽.

130) 「회원주소록」, 《제주문학》 제5호, 1976, 173~175쪽.

설 「산울림」, 1964년 《제주도》 제17호에 발표한 시 「산」, 1966년 《제주도》 제26호에 발표한 수필 「가을에의 초대」, 1967년 《제주도》 제29호에 발표한 시 「얼굴」 이전부다.

박호길 역시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주문협’ 시분과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작품 발표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한 그의 시는 1960년 《제대신보》에 발표한 「가로수」, 1961년 《제대신보》에 발표한 「열도(熱度)있는 밤」, 1963년 《제주도》 제10호에 수록된 「겨울의 서곡」, 1971년 《교육회보》 제4호에 수록된 「A N/PRC-9」, 1974년 《제주문학》 제3집에 수록된 「조율」과 《교육제주》 제26호에 발표한 「문」 등이다.

조진춘 또한 ‘제주문협’ 소설분과 회원으로 있었으나 1960년 제주중·상업고등학교 교지 《향림》 2호에 5회 졸업생 자격으로 발표한 시 「무제」와 1962년 《제주도》 제6호에 수록한 수필 「바다와의 대화」, 1965년 《제주도》 제24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3각의 주변」만 확인됐다.

전현규 역시 ‘제주문학인협회’ 아동분과 회원으로 되어있으나 《제주신문》에 연재한 「관덕정의 돌할아버지」 외엔 그의 아동문학 작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청에 퍼내는 기관지 《제주도》 제17호에 수록된 그의 소설 「4·3아(四·三兒)」(1964)는 4·3을 다룬 제주 출신 최초의 작품으로 초창기 4·3 문학으로서 의미 있다.<sup>131)</sup> 이 밖에 그가 발표한 소설은 「오메타」(《제주신보》), 「소년상」(《돌다리》 제1집), 「구혼기」(《제주도》 제22호)가 있으며 수필 「비극적」(《제주도》 제10호)과 「계절의 감각」(《제주도》 제27호)이 있다.<sup>132)</sup>

전달문<sup>133)</sup>은 평양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을 피해 1953년 부친을 따라 제주로 이주했다. 제주에 임시 개설된 피난종합학교 배재중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한 그는 1955년에 오현고등학교에 입학한다. 1958년 중앙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고 재학 중 ‘석좌’에 입회한다. 전달문은 제주에 내려와 두어 번 시화전을 열었는데 우도에 “시비를 세우는 것이 소원”<sup>134)</sup>일만큼 제주에 대한 문학적 애정을 쏟았다. 그는 1975년 《심상》에 시

131)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앞의 책, 42쪽.

132) 「오메타」,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7. 12. 20.~27.(5회 연재); 「소년상」,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구혼기」, 《제주도》 제22호, 제주도, 1967; 「비극적」, 《제주도》 제10호, 제주도, 1963; 「계절의 감각」, 《제주도》 제27호, 제주도, 1966.

133) 전달문(1938~2017)의 저서로 『섬의 입김』(한국문학사, 1975), 『꿈과 사랑과 바람의 시』(청환, 1989), 『전달문 시문집』(순수문학사, 1999), 『망향유곡』(선우미디어, 2008) 등이 있다.

「석비(石碑)」로 박목월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미주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현기영은 197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진출한다. 1955년 중앙학도호국단이 주최한 제2회 전국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행군소리」로 2등 수상을 했을 때 키웠던 작가의 삶에 20년 만에 진입한 것이다.

손춘에 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현기영과 김철희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1975년 당시까지 제주에 남아 문학 활동을 이어간 동인은 현길언과 정영택 두 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 두 사람은 한국 문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현길언은 늦게나마 등단의 대열에 올라섰으나 정영택은 등단 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기관지 등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제주를 떠나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한 경우는 현기영, 김광협, 전달문 등이 있다. 다음은 ‘석좌’ 동인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1975년까지 제주 지역 매체(《석좌》 제외)에 발표한 작품들<sup>135)</sup>이다.

연도	‘석좌’ 동인의 작품과 지역 매체
1957	전현규 「오메터」, 《제주신보》 연재(5회)-소설
1958	장순용, 「정점(定點)」, 《제대학보》 제2호-소설
1959	장순용, 「산울림」, 《향림》 창간호-소설 정영택, 「불안한 인간상」, 《향림》 창간호-소설
1960	조진춘, 「무제」, 《향림》 2호-시 정영택, 「귀향」, 《향림》 2호-소설 정영택, 「잔영(殘影)」, 《제대학보》 제3호-소설 현길언, 「체온」, 《제대신보》 연재-소설 현길언,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제대학보》 제3호-소설 박호길, 「가로수」, 《제대신보》-시
1961	박호길, 「열도(熱度)있는 밤」, 《제대신보》-시 전달문, 「서(書)」, 《제대신보》-시
1962	정영택 「우중의 창밖을 향하여」, 《제대신보》 연재(4회 연재)-소설

134) 현길언, 「석좌 동인과 남훈」, 『전달문 시문집』, 순수문학사, 1999, 220쪽.

135) 현길언과 정영택의 경우 소설과 수필 등 다수의 작품을 지역 매체에 발표했으나 여기에서는 소설에만 한정하여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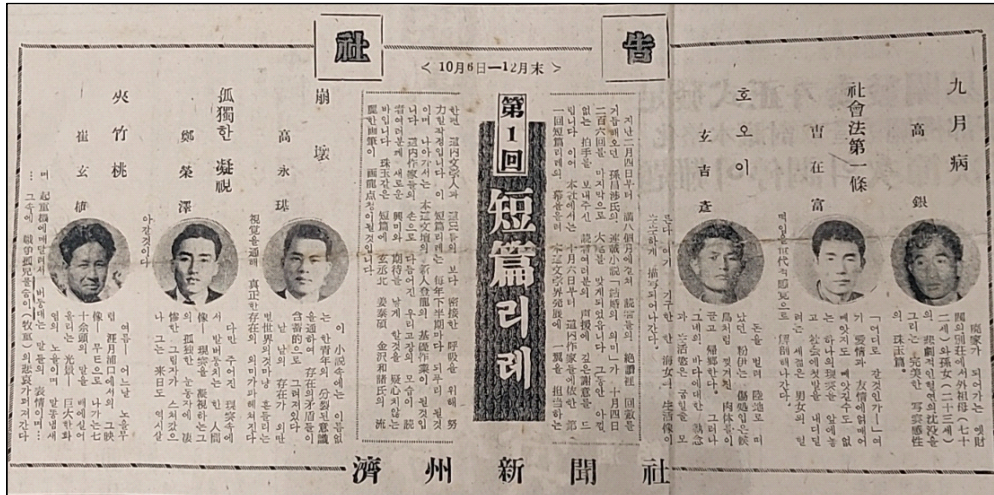


	정영택, 「이 진(津)한 비명(悲鳴)을」, 《제대학보》 제4호-소설 정영택, 「귀정(歸程)」, 《제주도》 제4호-소설 조진춘, 「바다와의 대화」, 《제주도》 제6호-수필
1963	김철희, 「천사가 질투하다」, 《제대신보》-콩트 박호길, 「겨울의 서곡」, 《제주도》 제10호-시 전현규, 「비극적」, 《제주도》 제10호-수필
1964	김광협, 「동백촌 서정」, 《제주도》 제13호-시 김광협, 「오수록(午睡錄)」, 《제주도》 제16호-시 장순용, 「산」, 《제주도》 제17호-시 전달문, 「욕망유곡(慾望類曲)」, 《제주도》 제15호-시 전현규, 「4·3아(兒)」, 《제주도》 제17호-소설 정영택, 「고독한 응시」, 《제주신문》 연재-소설 현길언, 「호오이」, 《제주신문》 연재-소설 현길언, 「소리가 그치다」, 《제주도》 제13호
1965	김광협, 「환상적(幻想的) 숲」, 《제주도》 제20호-시 전달문, 「무아유희(無我遊戲)」, 《제주도》 제24호-시 정영택, 「상실」, 《제대신보》 연재(4회연재)-소설 조진춘, 「3각의 주변」, 《제주도》 제24호-소설 현길언, 「귀향」, 《연수》 53호-소설
1966	장순용, 「가을에의 초대」, 《제주도》 제26호-수필 전현규, 「계절의 감각」, 《제주도》 제27호-수필 전현규, 「관덕정의 돌할아버지」, 《제주신문》 연재-동화
1967	김광협, 「월라산(月羅山) 진달래꽃」, 《제주도》 제29호-시 장순용, 「얼굴」, 《제주도》 제29호-시 전현규, 「구혼기」, 《제주도》 제22호-소설 현길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제주시》 제5호-소설 현길언, 「바다」, 《제주시》 제6호-소설
1968	김광협, 「나무 유추법(類推法)」, 《제주도》 제34호-시 정영택, 「허(虛)」, 《북제주》 제57호-소설 정영택, 「허(虛)(완)」, 《북제주》 제58호-소설 정영택, 「금간 표정(表情)」, 《남제주》 5-6호 합본 <sup>136</sup> -소설 현길언, 「호오이(II)」, 《북제주》 제59호-소설 현길언, 「바다 2」, 《제주시》 제7호-소설 현길언, 「전설」, 《남제주》 제4호-소설
1969	정영택, 「금간 표정」, 《남제주》 제7호-소설 현길언, 「신장개업하는 마을」, 《제주신문》 연재-소설 현길언, 「정원풍경」, 《제주도》 제41호-소설
1970	정영택, 「또 하나의 반역」, 《제주신문》 연재-소설

	<p>정영택, 「하얀 목마름」, 《제주신문》 연재-소설</p> <p>정영택, 「어떤 기대」, 《교육제주》 제15호-소설</p> <p>정영택, 「시련」, 《제주도》 제47호-소설</p> <p>현길언, 「유자꽃」, 《제주신문》 연재-소설</p> <p>현길언, 「질식사」, 《제주도》 제45호-소설</p> <p>현길언, 「장군의 귀향」, 《월간제주사》 8월-소설</p>
1971	<p>김광협, 「봄의 노동」, 《남제주》 제15호-시</p> <p>박호길, 「AN/PRC-9」, 《교육회보》 제4호-시</p> <p>정영택, 「귀향기」, 《제주신문》 연재-소설</p> <p>정영택, 「어떤 죽음」, 《제주신문》 연재-소설</p> <p>현길언, 「목련 꺾어지다」, 《제주신문》 연재-소설</p> <p>현길언, 「유산」, 《제주도》 제49호-소설</p> <p>현길언, 「독고장군진」, 《남제주》 제15호-소설</p> <p>현길언, 「독고장군진」, 《남제주》 제16호-소설</p> <p>현길언, 「아무래도 어긋나기만 하다」, 《교육제주》 제16호-소설</p> <p>현길언, 「죽어 고향에 묻히리」, 《제주도》 제52호-소설</p>
1972	<p>정영택, 「하루」, 《교육제주》 제18호-소설</p> <p>정영택, 「어떤 관계」, 《남제주》 제18호-소설</p> <p>현길언, 「바람이 분다」, 《제주신문》 연재-소설</p> <p>현길언, 「등애(비명)」, 《제주문학》 제1집-소설</p>
1973	<p>김광협, 「여자의 행복」, 《제주문학》 제2집-시</p> <p>정영택, 「찬란한 햇살」, 《교육제주》 제23호-소설</p> <p>현길언, 「전설」, 《제주도》 제58호(137)-소설</p> <p>현길언, 「긴달게」, 《제주문학》 제2집-소설</p> <p>현길언, 「무덤고 긴여름」, 《교육제주》 제25호-소설</p>
1974	<p>김광협, 「제주인송」, 《한라산》 제5호-시</p> <p>박호길, 「조율」, 《제주문학》 제3집-시</p> <p>박호길, 「문」, 《교육제주》 제26호-시</p> <p>정영택, 「기성의 의미」, 《제주문학》 제3집-소설</p> <p>정영택, 「사설」, 《제주시》 제28호-소설</p> <p>현길언, 「피서기」, 《제주문학》 제3집-소설</p> <p>현길언, 「열아홉 살」, 《제주도》 제62호-소설</p> <p>현길언, 「무덤고 긴여름 2」, 《교육제주》 제26호-소설</p> <p>현길언, 「무덤고 긴여름 3」, 《교육제주》 제27호-소설</p>
1975	<p>정영택, 「일상의 권태」, 《월간 개발제주》 10월호-소설</p> <p>현길언, 「무덤고 긴여름 4」, 《교육제주》 제28호-소설</p> <p>현길언, 「상흔(傷痕)」, 《제주문학》 제4집-소설</p> <p>현길언, 「곤혹(困惑)」, 《개발제주》 12월-소설</p> <p>현기영, 「동사자(凍死者)」, 《제주문학》 제4집-소설</p>

<표5> 1975년까지 지역 매체에 발표된 ‘석좌’ 동인의 작품

<표5>와 같이 ‘석좌’ 구성원들이 지역 매체에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하면서 제주 문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들을 작가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3> 1964년 《제주신문》 1면에 실린 ‘제1회 단편 리레’ 작가 소개

지난 2월 4일부터 만8개월에 걸쳐 독자들의 절찬리 회수를 거듭해오던 손창섭 씨의 연재소설 「결혼의 의미」가 10월 4일 206회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사의를 드립니다. 이어 본사에서는 10월 6일부터 도내작가들에 의한 제1회 단편 리레의 막을 올려 본도 문학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도내 문학과 도민들의 보다 밀접한 호흡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단편 리레는 매년 하반기마다 되풀이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본도 문단의 신인 등용의 기초작업이 될 것입니다. 도내작가들의 손으로 다듬어진 우리 고장의 모습이 독자 여러분

- 136) 정영택의 「금간 표정」은 《남제주》 통권5-6호 합본과 7호에 2회 연재된다. 처음 연재되는 《남제주》 통권5-6호 합본 목차에는 ‘금간 표정’으로 명기되나 작품이 게재되는 면에는 ‘금산 표정(表情)’으로 제목이 다소 다르게 표기된다. 소설이 완결되는 《남제주》 7호의 목차와 작품 게재 면에 다시 ‘금간 표정’으로 명기되는 것으로 보아 소설가가 의도한 제목은 「금간 표정」으로 보여진다.
- 137) 《남제주》 4호와 《제주도》 제58호에 발표한 현길언의 소설 「전설」은 제목만 다를 뿐 서로 다른 작품이다. 전자는 일제강점기부터 4.3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으로 한 몰락하는 송영감네 가족 이야기를 다뤘고, 후자는 4.3 당시 소개 당했던 마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자본이 마을공동체를 침식하는 과정을 그렸다.

게 새로운 흥미와 기대를 낳게 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주옥같은 단편에 현승복, 강태석, 김택화 제씨의 유려한 화필이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구월병」 고은 (중략)

「사회법제1조」 조재부 (중략)

「호오이」 현길언

돈을 벌려 육지로 떠났던 분이는 상처입은 후조처럼 찢겨진 육체를 이끌고 귀향한다. 그러나 그녀의 바다에 대한 집념과 생활욕은 굽힐 줄 모른다. 여기 기구한 한 해녀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나간다.

「붕괴」 고영기 (중략)

「고독한 응시」 정영택

다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발버둥치는 한 인간상-현실을 응시하는 그의 고독한 눈동자에 처참한 그림자가 스쳐갔으나 그는 내일도 역시 살아갈 것이다.

「협죽도」 최현식 (중략)

-사고 「<10월 6일-12월 말> 제1회 단편 리레」 전문138)

단편적인 예로 1964년 10월 2일자 《제주신문》은 도내작가들에 의한 제1회 단편 릴레이의 시작을 알리는 사고(社告)를 1면에 게재했다. 여기에 참가하는 ‘석좌’ 동인으로 현길언과 정영택이 포함돼 있다. 당시 함께한 작가로는 고은, 조재부, 고영기, 최현식이다. 고영기, 정영택, 현길언은 등단하지 않은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이들을 도내작가라 칭하고 이들의 소설을 연재했다.

‘석좌’는 지역에서 문학을 실천하면서 도중에 문학의 꿈을 접은 동인도 있었고, 중앙 문단에서 등단하기 전까지 제주를 창작의 실험대로 삼아 끊임없이 창작열을 이어나간 동인도 있었다. 일찍이 등단해서 서울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벌이는 이가 있었는데, 멀리 미국으로 가 황폐한 미주 문단에 문학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자처한 이도 있었다. 그리고 제주에서 끝까지 제주 문단의 명맥을 이은 이도 있었다.

정영택이 1976년 《제주문학》 제5호에 발표한 소설 「향수」는 사회에 나온 ‘석좌’ 동인의 일면을 보여준다. 1976년이라는 시기는 동인들의 나이가 마흔의 문턱에 가까워 지던 때다. 소설은 고등학교 문학동아리 ‘석경(石經)’의 다섯 멤버가 불혹 즈음에 고향 산소의 별초를 위해 내려 왔다가 회동하는 이야기다.

138)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4. 10. 2. 1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 고장에서 베풀어지던 문학백일장이나 현상모집이 있을 때, 가끔 입선을 하곤 하던 문학 지망생들이었다. 그런 행사가 다가오면 마치 자기들을 위하여 마련된 행사인 것처럼 시가지를 누비며 까불어 댔던 것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입선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쩌다가 한 둘이 입선이 되는 것인데. 입선에서 제외된 동인들은 심사가 영터리라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열을 올리던 것이었다. 자기의 작품이 후세에 영구히 남을 걸작인 것처럼. 그러면, 입선된 동인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기회엔 입선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지만, 그 말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기 글이 가장 잘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다 같이 자기가 제일 먼저 문단에 데뷔하여 뽐낼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을 쓰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쓰지 않고는 못 배길, 죽어도 못 배길 내심의 요구가 있다면, 그때 너는 내 생애를 이 필연성에 의하여 건설하라.’고 말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런 사실을 들었으면 기절낙담할 일이었다. 그래도 학교에선 우리들을 대접해주고 있었다. 우리들이 중심이 되는 문학의 밤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학생들은 우리들에게 시인 작가라는 호칭으로 대우해 주던 것이었다. 그것도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던 것이었다. 어쭙지 않은 글을 학교 신문에 발표하곤 으스스대던 그 시절이 어스레하게 떠올라, 근수는 아까 헛헛한 웃음을 속으로 삼켰던 것이었다.

그때 우리들은 “석경(石經)”이라는 동인회를 만들어 동인지도 두세 권 만들었다. 그때마다 이 지방의 문인들은 미지의 가능성을 보이는 우리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그 시절 석경은 학교 사회에 비교적 알려져 있는 동인회였다. 문학의 밤을 여는가 하면, 이미 문단에 데뷔한 선배들을 모시고 합평회를 갖기도 했었다.<sup>139)</sup>

동인회 ‘석경’은 ‘석좌’를 연상시킨다. 백일장과 현상모집에 입선한 이력과 더불어 이들이 중심이 된 문학 행사와 학교 신문 등의 작품 발표 경험, 동인지 발간 등은 ‘석좌’의 동인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제주의 문인들 사이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석경’ 또한 ‘석좌’와 닮았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영규, 병진, 진혁, 학동, 근수로 다섯이다. 고향에 남아있으면서 지방의 어느 사립 중학교 국어교사를 하는 영규는 문단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문학지에서 1회 추천을 받았지만 5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그는 실망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계속 그 잡지에 작품을 보내고 있다. 병진은 고향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139) 정영택, 「향수」, 《제주문학》 제5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6, 101~102쪽.

있다. 진혁은 신춘문에 가작 이석으로 입선된 적이 있으나 대구에 있는 먼 친족과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해버렸다. 그가 동인회의 이름을 붙였다. 시를 쓰는 학동은 신춘문에 여러 번 선후평에 언급되었으나 결국 문학의 길을 접는다. 서울에서 어느 출판사 편집을 담당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근수는 어느 단명한 잡지의 현상모집에 당선되어 등단했지만, 원고 청탁이 별로 없어 작품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수와 영규만이 문학의 길을 어렵게 걷고 있을 뿐 진혁과 병진, 학동은 문학을 포기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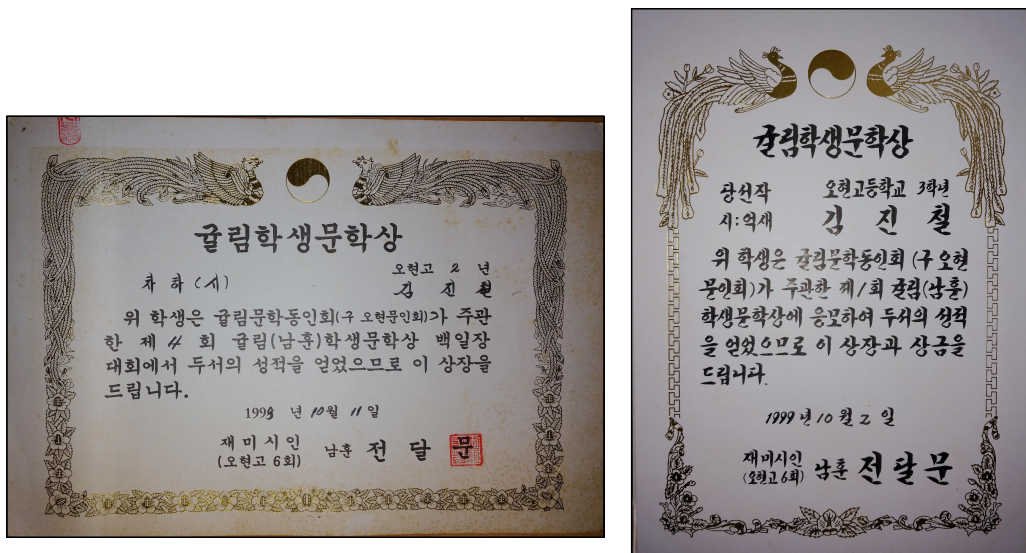
영규와 근수는 ‘석좌’ 동인 중 정영택과 전현규를 연상시킨다. 고향에 남아 지방의 어느 사립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는 영규는 사립학교인 신성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정영택의 이력과 유사하다. 게다가 소설 속 영규는 시를 가끔 발표하는데 정영택 역시 시와 소설을 넘나들며 창작하다가 소설 창작에 매진했다. 서울의 어느 출판사에서 편집을 담당하면서 소설을 쓰는 근수는 1966년에 제주동국민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초혜와 결혼하면서 서울로 올라가 세광출판사에서 근무했던 전현규의 이력과 비슷하다. 소설은 빠듯한 출판사 월급으로 창작집 발간이 어려운 근수에게 병진이 출판비를 내주겠노라 제안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향수」는 학생이었던 ‘석좌’ 동인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단선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의 문학을 향한 열정과 고민, 좌절은 당시 제주 문학의 상황과 연결된다. 가난은 문학청년들의 꿈을 꺾게 했으며, 제주에서의 등단 역시 쉬운 게 아니었다. 어렵게 등단을 했더라도 발표 지면을 가질 수 없었던 게 제주 문인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게다가 문예지의 난립 속에서 중앙의 유명 문예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당시의 상황도 읽을 수 있다. 소설은 돌이 많은 좁은 길을 뜻하는 ‘석경’이 제주에서 문학을 하는 길과 같다고 말한다.

‘석좌’ 동인들은 자신들을 문학의 길로 이끌었던 피난 문인과 제주의 문학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주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석좌’가 제주 문학사에서 갖는 중요한 지점은 문학후속세대의 견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교직 생활이었겠지만 동인 다수가 학교에 재직하면서 문학 수업을 이끌었다. 특히 현길언은 학생 동인 ‘향원’의 지도교사였다. 1967년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김동훈, 문무병, 장일홍이 주축이 돼 만든 동인 ‘향원’은 오현고의 문정인, 김학렬, 강요배, 강법선, 제

주일고의 김재천, 김석희, 김대용, 김광렬, 제주여고의 정순희, 김정옥(김가영), 정복희, 신성여고의 강방영 등이 참가하여 네 번의 동인지를 발간하고, 시화전과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sup>140)</sup> 이들 중 다수는 현재 제주 문단의 원로가 되어 있다.

또한, 전달문은 모교인 오현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문예 장학금 \$1,500(한화 약 120만원)을 굴림문학회(오현고 출신 문인 모임)에 출연해 ‘굴림학생문학상’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sup>141)</sup> 이에 굴림문학회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굴림학생문학상을 실시했는데 1회부터 4회까지는 백일장 형식으로, 5회부터는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달문은 5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 이후로는 굴림문학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142)</sup> 전달문이 지원한 문예 장학금 마지막 수혜(1999년) 학생은 현재 제주에서 동화를 쓰고 있는 김진철 작가이다.



<사진14> 전달문 이름으로 수여된 ‘굴림학생문학상’ 상장

전달문은 우도를 소재로 한 산문 ‘섬’으로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에서 입

140)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제주도문학사』,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8, 494쪽.

141) 『굴림문학』 제4호, 굴림문학동인회, 1995, 158쪽.

142) 이지훈, 「지구촌제주인(3) 이민문학의 선구자 전달문 국제펜클럽 미주지역회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2007. 10. 1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17> 접속일자 2023. 6. 17.

상<sup>143)</sup>하면서 우도와 인연을 맺게 된다. 그 후 1960년대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서를 기증해 왔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도서 대부분을 기증하면서 2013년에는 전달문의 호를 딴 ‘남훈문학관’이 개관되었다. 이후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문예 백일장이 매해 개최되고 있다. 2012년에는 하우목동항(우도면 우도해안길)에 우도항을 배경으로 한 시 「섬의 입김」을 새긴 시비가 세워졌다. 전달문이 ‘석좌’ 동인일 때 꾸었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좌’ 동인들은 1950년대 후반 학생 동인으로 등장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활동을 해나갔다. ‘제주문학인협회’와 ‘제주문협’에 이르기까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문학의 저변을 확장하는 동시에 문학후속세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이어왔다.

### 3. 《석좌(石座)》의 서지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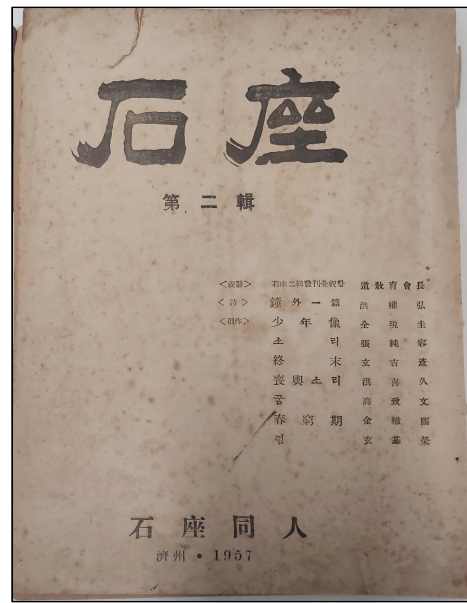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던 《석좌》는 2009년 12월<sup>144)</sup> 현길언의 기증으로 현재 제주 교육박물관이 창간호와 제2집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석좌》는 1957년 7월 26일에 제1집이, 같은 해 12월 25일에 제2집이 발간됐다.

---

143)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는 ‘섬’이란 제목으로 시와 산문부로 나뉘어 진행했는데 전달문은 산문으로 고등부 4등의 성적을 거뒀다. 「350명이 참가-백일장, 입선자 결정」,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7. 11. 27.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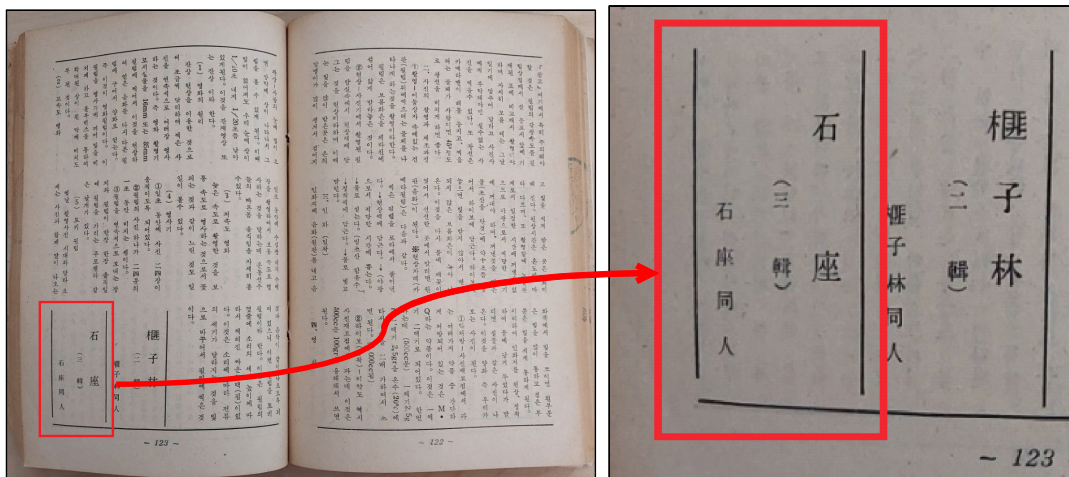
144) 《석좌》 제1집의 제주교육박물관 등록번호는 ‘19081’이며 등록 일자는 ‘2009년 12월 24일’로 되어있다. 《석좌》 제2집의 등록번호는 ‘19078’이며 등록 일자는 ‘2009년 12월 28일’이다.





<사진15> 《석좌》 표지(제1집, 제2집)

제3집인 경우 현길언은 원고를 모으고 계획까지 세웠으나 무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959년 3월 3일에 발행된 제주중·상업고등학교의 교지 《향림》 창간호 123쪽에 《석좌》 제3집 광고(145)가 실려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제3집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을 현길언이 몰랐을 수도 있고, 발간이 무산되기 전에 광고가 수록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16> 《석좌》 제3집 광고가 실린 《향림》 창간호

145) 《향림》 창간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59, 123쪽.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좌》의 제호는 현기영이 명명했다. 제주의 특징 중 하나가 돌이 많다는 것이고, 동인 한 명 한 명이 제주를 채우는 돌맹이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서 돌의 무리를 뜻하는 ‘석좌(石座)’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석좌를 뜻하는 ‘별무리’에서 착안한 것으로 《별무리》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했다. 《석좌》는 돌로 상징되는 제주의 향토성을 담으면서도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 문학을 하리라는 의지가 실현된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문학이 제주에 뿌리를 두지만, 그렇다고 지역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게 만든다.

《석좌》 제1집의 판형은 18.3×24cm이며, 지질은 갱지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있으며 가로쓰기로 좌우 이단 편집된 등사본이다.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다 귀향한 김택화<sup>146)</sup>가 표지를 비롯한 삽화를 그렸다. 김택화는 김철희와 오현중학교(야간) 같은 반이었다.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쪽수는 71쪽이나 5쪽부터 8쪽까지 4페이지가 낙장<sup>147)</sup>됐다. 마지막 장에 편집후기와 간기, ‘우리의 맹세’가 수록되어있다. 편집후기 하단에 있는 간기를 보면 발행인은 ‘石座클럽’으로, 발행일은 단기 4290년 7월 26일로 명기되어 있다. 소설 4편과 수필 7편이 실려있으며 등사기용 첩필을 잡는 데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글씨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편집 또한 산만하다.

현길언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아마 1학기 말 시험이 끝난 직후”에 “종이와 원지와 등사잉크를 장만하고 등사판까지 동원하여 지금 ‘라이언즈’ 호텔 부근의 김철희 집에서 ‘석좌’ 창간의 산고를 감당”했다며 “귀향한 김택화 형이 첩필을 잡아 표지와 원지를 써주었고 이수웅 형도 많이 도와주었다”<sup>148)</sup>고 당시를 회고했다. 당시 김철희의 부모가 칠성동 제일극장<sup>149)</sup> 인근에서 양복점을 운영했던 터라 그곳에 모여 동인지들

146) 김택화(1940~2006)는 제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제외하곤 평생 제주에서 제주를 그리는 화가다. 오현중학교를 다니며 강태석, 현승복과 함께 월남화가 홍종명(1922~2004)에게 그림을 배웠다. 홍익대 재학 중인 1962년 국전에서 서양화 특선에 입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귀향한다. 그는 젊은 작가로 추상화가 그룹 ‘오리진’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추상에 몰두하였으나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에 몰입하면서 화풍을 바꿔 제주 풍광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70년대 신성여자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대학에 출강하면서 많은 제자와 후배를 양성하였다. 지금 제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서양화가와 교육현장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 교사의 대부분이 그의 제자이다. 제주미술협회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신천지 미술관장, 제주도립미술관 추진 위원장을 지냈다. 1988년 제주도 문화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문화예술계와 미술교육에 평생을 헌신했다. 오승익, 『제주 풍광 속의 화가의 삶과 예술-故김택화 선생』, 『KIMT EKHWA』, 김택화미술관, 2022.

147) 김철희에 의하면 당시에 페이지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현길언이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발간 시 누락 되진 않았을 거라 했다. 발간 이후 찢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48) 현길언, 『제주문학 20년/석좌』, 앞의 기사.

149) 지금은 사라진 제일극장의 현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길 15이다. 《석좌》 제1

만들 수 있었다. 제주 동부교회에서 프린트 일을 하던 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이수용이 큰 도움을 주었다. 동인지 발간비는 동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발간 부수와 배포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세월과 보관 상태 문제로 활자들이 지워진 부분이 많아 수록된 작품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낙장이 되지 않고 온전한 《석좌》 창간호가 발굴되어 동인지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석좌》 제2집은 제1집과 외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제2집의 크기는 17.7×24.7cm이고 지질은 갠지, 등사본이다. 제호를 서예가 현중화<sup>150)</sup>가 썼다. 당시 그는 제주사범학교 한문 서예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전현규·현길언과의 인연으로 제호를 써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모반듯하고 굵기도 일정한 예서체의 제호는 묵직하면서도 힘차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의젓하게 버티”는 “돌”처럼 문학의 길을 가리라는 ‘석좌’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대중성 있는 서체에는 《석좌》가 널리 읽히고 사랑받길 바라는 스승의 마음이 담겨있다. 제1집과 달리 제2집은 표지 그림과 삽화가 없다. 대신 표지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 참여 동인 이름과 수록 작품이 쓰여있으나 실제 수록된 작품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목차 또한 따로 수록하지 않았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였으며 세로쓰기의 상하 이단 편집으로 제작되었다.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분량은 70쪽이다. 희망프린트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글씨가 정갈하고 편집이 안정되었다. 보관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현길언의 「종말」이 끝나는 자리에 ‘우리의 맹세’<sup>151)</sup>가

집은 제일극장 부근 김철희의 부모가 운영하던 양복점에서 제작되었다.

150) 소암 현중화(1907~1997)는 일제강점기의 서예가로는 보기 드문 유학파로 20세기 한국서단에서 비(碑), 첩(帖) 혼용이라는 동아시아 서예의 흐름을 선도한 인물인 동시에 삶·자연·예술을 하나가 되도록 실천한 인물로 평가된다. 1907년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에 제주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1학년 말에 중퇴하고 잠시 화물여객선 하급 선원을 하다 일본으로 도향했다. 마츠모토 호우수이 문하(3년)와 츠지모토 시유우 문하(8년)에서 진(晉), 당(唐), 고법으로서의 해서, 행초는 물론 전예와 20세기 시대 서풍인 육조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체를 습득한 후 녹담서원을 개설, 본격 서가로서의 토대를 닦는다. 1955년 49세가 되던 해 고향 제주로 돌아와 제주사범학교 한문 서예 교사로 재직하며 제주대학 윤리학 강사로 출강했다. 그 후 1968년까지 11년간 서귀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소암은 행초서와 육조해의 이질적 조형요소와 미감을 하나로 혼용시켜, ‘소암체’라 할 수 있는 탈속과 ‘야취(野趣)’의 행초서와 ‘파체(破體)’를 완성했다. 김병택, 앞의 책, 310~338쪽; 전은자, 『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152~157쪽.

151) ‘우리의 맹세’는 1949년 7월 문교부가 제정한 맹세문으로 출판물의 내용과 관계없이 교과서에는 물론 모든 서적에 반드시 인쇄해야 하는 문구였다. 이 맹세문은 각종 행사에서 복창되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암기해야 했다. 이는 반공주의를 강압적으로 강요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임수정·이혜은, 『1950년대 잡지 창간호에 나타난 반공담론』, 『서지학연구』 제70호, 한국서지학회, 2017, 102~104쪽. 《석좌》 제1집과 제2집에 명시된 ‘우리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놓이고, 마지막 장에 편집후기인 여적과 간기가 위치한다. 발행일은 서기 1957년 12월 25일, 발행인은 ‘石座同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쇄소는 제주시 남문로에 위치한 희망프린트사<sup>152)</sup>이다. 비매품이란 표기가 있으며 몇 부가 제작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김철희는 제2집 발간 비용을 부담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주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석좌》 제2집을 발간했을 가능성이 있다. 《석좌》 제1집과 제2집의 목차와 글쓴이는 <표6>과 같다.

目次		
序言	金永三	
創作		
白痴의草	玄吉秀	1
繼母	金轍熙	17
脫衣	金現圭	25
終點	張純容	35
隨筆		
窓(一編)	洪喜久	45
山(外一編)	高致文	55
隨筆抄	玄基榮	59
編輯後記	表紙 金澤和	

<사진17> 《석좌》 창간호 목차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과 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

152) 현용준이 1953년 4월에 남문로에 개업한 ‘삼광프린트사’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제주농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공식과 지인의 소개로 현상종을 고용하여 재정비했다. 김공식이 필경사로, 현상종이 프린트하는 일, 제본하는 일 등 잡무를 맡았다. 1955년에 김공식과 동업으로 ‘희망프린트사’로 재개업한다. 현상종은 당시 제주상고 학생으로 잡무를 맡았다. 1957년에 현용준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면서 ‘희망프린트사’를 김공식, 현상종에게 넘긴다. 현용준, 『연보』, 『한라산 오르듯이』, 각, 2003, 538~541쪽. 《석좌》 제2집을 ‘희망프린트사’에서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상고 출신인 현상종의 호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목	글쓴이	장르	수록 쪽수	비고
제 1 집	서언	김영삼			원고 마지막에 단기 4290.7.15. 표기
	석좌창간을 축함	안경규			원고 마지막에 단기 4290.7.25. 표기
	목차				「석좌 창간을 축함」 누락
	작품 수록 동인과 출신학교				
	백치의 장	현길언	소설	1~16	5~8쪽 낙장
	계모	김철희	소설	17~24	(1)장 표시가 없음
	탈의	전현규	소설	25~34	
	종점	장순용	소설	35~44	44쪽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41쪽에 삽입
	창	홍희구	수필	45~48	
	권태			48~54	
	산	고치문	수필	55~56	
	실수			57~58	
	나	현기영	수필	59~62	
	그림자			62~64	
	영원히 잊지 못할 일			64~66	
	편집후기, 간기, 우리의 맹세				
제 2 집	“석좌” 제2집 창간을 축함	강석범		1	
	종	홍권홍	시	3~4	
	슬픈 지역			5~6	
	껌	현기영	소설	7~16	
	꿈	고치문	소설	17~21	21쪽 소설 마지막 부분이 31쪽에 삽입
	소년상	전현규	소설	22~30	30쪽 소설 마지막 부분이 16쪽에 삽입
	춘궁기	김철희	소설	31~36	
	상여소리	홍희구	소설	37~46	
	소리	장순용	소설	47~58	58쪽 소설 마지막 부분이 36쪽에 삽입
	종말	현길언	소설	59~69	

우리의 맹세			69	
여적, 간기			70	

<표6> 《석좌》 제1집과 제2집 목차

제1집의 「서언」은 당시 전국문총 제주지부장이자 제주대학 교수인 김영삼이 썼다. 그는 제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예열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놀라면서 그 수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석좌》에 대한 사회 선배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안경규 제주도 학무과장이 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는데, 목차에는 누락되었다. 원고 마지막에 단기 4290년 7월 25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목차에 신지 못한 것 같다. 그는 “文化의 씨는 뿌리는데 보다 가꾸고 다듬어서 더욱香氣롭고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잘 생각하여 이 創作集만에 그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훌륭한 文化誌를 育成시키고 全島 학생들에게 좋은 벗이 되어 주도록 내용을 기쁘지게 꾸며 가기에 온 정성을 기울리 말기를 빌며” 창간호 발간을 축하했다. 제2집에서는 제주도교육회장 강석범<sup>153)</sup>이 《석좌》 제2집 발간을 축하하며 ‘석좌’가 “오직 忍耐와 熱情으로써 研鑽을 거듭하여 偉大한 筆力을 기르고 여러 學兵들의 등불이 되어”주고, “祖國과 人類의 등불이 돼주기”를 빌었다.

제1집에 수필과 소설이 실렸다면, 제2집에서는 수필이 없는 대신 제1집에 없었던 시 2편이 추가되고, 소설이 7편으로 늘어난다. 제1집에서 수필을 발표했던 홍희구, 고치문, 현기영이 제2집에서 소설을 발표하면서 작품 수적인 면에서 소설 중심의 동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인지에 참여한 동인은 제주사범학교 3학년인 전현규와 현길언, 제주상업고등학교 2학년 고치문과 3학년 장순용, 오현고등학교 1학년 현기영, 2학년 김철희, 3학년 홍희구, 홍권홍이다. 홍권홍의 경우 제1집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2집에서 시 부문으로 합류했다. 김철희, 장순용, 전현규, 현길언은 제1집과 제2집에 계속해서 소설을 싣고, 홍희구, 고치문, 현기영은 수필에서 소설로 글의 갈래를 달리해서 수록했다.

《석좌》 제1집과 제2집은 각각 제주미술의 풍부한 자양분을 공급한 김택화의 표지화·삽화와 동아시아 서예의 흐름을 선도한 소암 현중화의 제자가 있어 예술사적으로

153) 강석범은 당시 제주상업고등학교 교장이었다.

도 의미가 있다.

#### IV. 《석좌(石座)》의 작품세계

동인지 창간 취지에서 확인했듯이 《석좌》에 수록된 작품들은 제주에 문학적 기반을 두고 창작되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 역시 4·3과 한국전쟁, 전쟁 후를 그린 작품이 적지 않으며, 가난과 진학, 사랑에 관한 작품도 있다. 4·3과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살기 어려워진 제주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난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 역시 한국전쟁 후의 피폐해진 사회를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두 권의 동인지에 수록된 작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7>과 같다.

작가명	제목	장르	주요 내용	시대 배경
고치문	산	수필	극복할 수 없는 가난	-
	실수		사장의 은행 심부름 중 돈이 비어 궁지에 몰림	-
	꿈	소설	빌린 돈으로 차린 양복점 운영의 곤란	한국전쟁 후
김철희	계모	소설	계모와의 갈등, 가난과 진학 문제	-
	춘궁기		가난과 종교인의 자세	-
장순용	종점	소설	치정에 의한 살인과 그에 대한 복수	4·3
	소리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함	-
전현규	탈의	소설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두 친구	한국전쟁
	소년상		마을 소녀를 죽이려는 빨치산 대장의 부당한 명령과 거부	4·3
현기영	나	수필	생환의 이유와 죽음의 두려움	-
	그림자		그림자의 속성과 이를 무시하는 인간	-
	영원히 잊지 못할 일	소설	실수로 인한 화재와 증조할아버지의 죽음	해방 전후
현길언	검	소설	피난 가족의 고단한 삶과 가족 해체	한국전쟁
	백치의 장	소설	타락을 중용하는 사회와 개인의 선택	한국전쟁 후
종말	상이용사를 외면하는 사회와 개인의 선택		한국전쟁 후	
홍권홍	중	시	태양도 엄숙히 조의를 표하는 비통한 지역	한국전쟁
	슬픈 지역		포성과 아우성, 비명이 견힐 줄 모르는 슬픈 지역	한국전쟁
홍희구	창	수필	'창'을 통해 떠오르는 단상	-
	권태		배앓이하는 화자가 바라보는 주인집 할아버지에 대한 단상	-
	상여소리	소설	가난한 주인공을 뒷바라지하던 친구의 죽음	-

<표7> 《석좌》 수록 작품의 주요 내용



4·3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전현규의 「소년상」과 장순용의 「종점」이 있으며 현기영의 수필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은 해방 전후의 제주를 묘사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현길언의 「백치의 장」과 「종말」, 전현규의 「탈의」, 고치문의 「꿈」, 현기영의 「껌」이 있다. 홍권홍의 시 「종」과 「슬픈 지역」 역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가난을 주요 소재로 삼은 작품으로는 김철희의 「계모」와 「춘궁기」, 홍희구의 「상여소리」, 고치문의 수필 「산」이 있다. 《석좌》에 수록된 작품에서 가난은 진학과 연계되거나 섬인 제주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김철희의 「계모」와 홍희구의 「상여소리」, 장순용의 「소리」는 섬 혹은 제주의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처럼 ‘석좌’는 제주를 기반으로 4·3과 한국전쟁을 적극적으로 작품 안에 끌어들이었다. 이는 당시 학생 동인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반공교육의 강화로 4·3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기 힘들었던 시기에 4·3 소설 두 편이 수록된 것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과 전후 공동체의 모습,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군상들이 작품 곳곳에 포진된 것 역시 《석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4·3과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과 제주(섬)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석좌》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금기된 4·3의 틈새 담론

《석좌》 제1집과 제2집에서 4·3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으로는 장순용의 소설 「종점」과 전현규의 소설 「소년상」을 들 수 있다. 수년 전에 겪은 역사적 사건이 고교생들에 의해 형상화된 것이다. 장순용의 「종점」은 4·3에서 한국전쟁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데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은 4·3을 기점으로 변해버린 친구 홍춘식의 행동이다. ‘한라산 공비’가 된 춘식이 둘도 없는 친구이자 매제인 덕이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지만 공비의 만행에 염증을 느낀 덕이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군에 지원한다. 소설은 표면적으로 공비들의 야만적인 폭력성에 염증을 느낀 덕이의 군 지원이 그의 가족의 몰락을 가져온 원인처럼 보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홍춘식의 사

랑 실패로 인한 살인이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홍춘식은 짝사랑하는 애인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그녀를 살해한다. 이에 자신의 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안 대장이 동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홍춘식을 조직부장 자리에 앉혀 복수를 감행한다. 홍춘식의 누이 가족을 똑같이 죽이려는 대장의 복수와 애인의 남자로 암시되는 박 부하의 복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홍춘식의 욕망이 엉켜 결국 죄 없는 한 가족이 죽음에 내몰린 것이다.

그럼에도 소설은 ‘한라산 공비’의 비인간화를 군에 지원하는 주인공 덕이의 모습과 대치하면서 더욱 강화한다. 홍춘식이 말하는 ‘애국애족’은 “대한민국의 심장부에다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망각의 애국”이고, “대한민국의 틀림없는 반역”이란 서술 태도가 이어지면서 반공적인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국군이 된 덕이는 “호국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공산주의는 “그리도 암전하고” “선생님들의 총애와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춘식을 야비하고 야만적인 인간으로 바꿔놓는 힘을 발휘한다.

「종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비인간적인 ‘한라산 공비’의 야만적인 폭력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이다. 4:3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반공이데올로기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공비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면서 덕이 가족의 몰락이 무자비한 공비와 이념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공비들이 하는 행동에 염증을 느낀 덕이는 그들이 하는 허수아비 같은 말을 꿈에라도 들을 맘은 조금도 없었다. 공비가 간간이 마을마다 노략질하러 자주 드나들었을 때마다 경찰은 놈들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으나 아군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을 때와 놈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많았지만, 놈들은 워낙 수가 많은지라 경찰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때도 허다했다.

그랬음인지 놈들은 바짝 기세를 올리며 어떤 때는 낮에도 습격 들었고 심지어는 주체소가 주둔한 곳에도 들어 주체소를 불태우고 경찰을 뺄스만 입힌 채 나무에 매달아두기까지 하는,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무서운 천벌을 받고도 시원치 못할 일들을 하기가 그들의 직업처럼 해대었다.

덕이는 이러한 일에 놈들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있는 터다. 그랬기에 그들의 요구를 강경히 반대했다. 인정과 사랑이란 쥐꼬리만큼도 없는 너희들 같은 놈들과 단 몇 초라도 마주 서서 꼴 보기도 싫으니 당장 나가 달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제1집, 36쪽)

“……그건 왜요? 내 남편이 오빠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도망이니……하세

요.”

“죄, 정말 죄가 없단 말이지?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우리의 말에 반대를 하는 놈은 반동으로 우리에게서 죽을죄를 지었던 말이야. 그리고 애국애족하는 것은 그래 나쁘고, 우리 의사를 무시했거든.”

“뭐라구요? 애국애족 흥, 그 소리 참 명랑하구요. 오빠네는 아무 죄 없는 농민을 학살하고 약탈, 방화를 일삼는 것이 오빠네가 말하는…”

“에잇 닥쳐! 계집년이 뭘 안다고 재수 없게…”

“그래요, 나야 뭘 아나요. 밥이나 쳐 먹고 똥이나 싸고, 그것뿐이죠만 어서 가서 오빠는 놈들의 훌륭한 사냥개가 되세요.”

“사냥개? 오빠한테 하는 말이 고작 그 말뿐이나. 요년 죽어 되져라.” (제1집, 37~38쪽)

작중에서 공비들은 공산주의에 토를 다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아무 죄 없는 농민들을 학살하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그들에게서 “쥐꼬리만큼”의 “인정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소설은 대놓고 경찰은 아군으로, 공비를 놈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열을 올린다. 공비는 곧 ‘적’인 것이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규정된 ‘4·3공산폭동론’에 거스르는 담론은 철저히 금기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sup>154)</sup> 이 소설은 4·3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입체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4·3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단계’<sup>155)</sup>에 창작된 작품들이 갖는 특징이다. 하지만, 4·3이 금기의 영역이었던 시대 상황과 창작자가 4·3을 다각적으로 인식

154) 19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온 작품들에서 한라산무장대들이 주로 가해자로 등장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되다가 그 이후로는 부정적인 태도가 많이 극복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김동윤, 「한라산무장대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앞의 책, 131~143쪽.

155) 김동윤은 4·3 문학의 시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그 구분의 계기나 기점이 되는 것은 ‘순이 삼촌’과 ‘6월 항쟁’, ‘4·3 특별법’이다. 4·3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1978년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를 첫 번째 단계, ‘순이 삼촌’이 발표된 시기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두 번째 단계, 6월항쟁 이후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를 세 번째 단계, 4·3 특별법 제정 이후를 네 번째 단계로 나누고, 그 첫 번째 단계를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년), 두 번째 단계를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년), 세 번째 단계를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년), 네 번째 단계를 ‘전환기적 모색과 다양한 담론의 단계’(2000년~)로 각각 명명하였다. 「2000년대 4·3 문학의 양상과 의미」, 『작은 섬 큰 문학』, 앞의 책, 295~320쪽.

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3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설정한 것 만으로도 일정 부분 평가받을 만하다.

「종점」에서 손녀에게 살의를 느끼는 최노인의 모습과 손녀를 살해한 괴한이 춘식이 라는 설정, 오빠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 쌍두마차를 탄 모습으로 죽은 며느리가 꿈 에 나타나는 장면은 개연성이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석좌》가 고등학 생들의 습작 공간인 만큼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는 무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험 역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현규의 「소년상」은 중앙대 제1회 전국 고교생 문예현상 당선작으로 4:3을 소재로 한 소설을 중앙 학생문단에 발표했다는 것으로도 의미 있다. 「소년상」은 5장으로 구성 된 소설이다. 4:3을 일제강점기의 폭력성과 연계선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특별한 의미 를 만들어낸다. 4:3 이전 역사적 폭력에 노출된 트라우마가 폭력성이 팽창하던 4:3에 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구한국시대 병정”이었던 남편이 일본놈과 싸우다 죽고, 독립운동을 하던 큰아들마 저 일경의 고문에 죽자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혈육인 태준에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 게 살라 가르친다. 여덟 살 때 어머니를 끌고 가던 일경에게 대들었다가 무차별 폭력 을 경험했던 태준 역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다. 강력한 폭력의 경험은 “지워질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낮선 고장에 처음으로 이사”한 것처럼 세계를 낯설게 만들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자동 복기하면서 이 모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야만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것이 다. 하지만 세상은 이 모자에게 죽은 듯 사는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해방의 기쁨 도 꿈결처럼 흘”러가 버린 해방공간은 “찬탁과 반탁의 절규”와 “우익과 좌익”, “민주와 공산의 숨 막히는 교차로 피를 뿜는” 대결장으로 변해버렸다. 가족을 불모로 혁명에 합류하라 겁박하는 희철에게 태준은 속수무책으로 빨치산이 된다. 그를 완전한 코뮤 니스트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마을로 갔다가 데리고 온 소녀를 살해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태준을 각성하게 만든다. 무차별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기계’일 뿐이라는 깨달음은 그가 이전까지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대장에게 총을 겨 누게 만든다. 이러한 결말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죽은 듯이 사는 삶보다 하루를 살 더라도 부당한 것에 맞서는 삶에 가치를 둔 작가의 의도라 볼 수 있다.

「종점」과 「소년상」 두 소설 모두 친구로부터 “공산당 유격대 동참”과 “혁명에 참여”

라는 제안을 받지만,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종점」에선 덕이 스스로 선택권을 발휘해 제안을 거부하지만 「소년상」에서는 태준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된 채 역사의 흐름에 무방비상태로 휩쓸려버리게 된다. 두 소설은 두 친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종점」에서는 한라산 공비인 춘식의 야만적인 행동에 집중해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면 「소년상」은 ‘유행가’처럼 혁명의 구호들을 외쳤던 희철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 휩쓸려버린 멧모르는 중학교 3학년으로 설정함으로써 태준의 각성과 저항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4·3을 역사적 폭력에 초점을 맞춰 전개함으로써 빨치산의 비인간화와 야만성 부각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다고, 「소년상」이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한 소설이라 할 수는 없다.

1949년 4월 3일 밤. 드디어 분화구는 터졌다. 오랫동안 저기압이 흐르던 사태가 폭발된 것이다. 좌익계열은 거족적으로 일제히 지서를 습격했다. 아무런 방비 태세도 없었던 순경들을 학살했다. 다리를 폭파시키고 도로를 파괴했다. 관공서에 불을 질렀다. 비협력자는 거의 죽음을 당했다. 혼란과 알력.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전투. 억울한 죽음. 길 위에 튀구는 시체.

경찰이 세력을 만회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시작하자 일제히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태준은 애써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나 혼자만 언제나 나 혼자만 하고 뇌까렸다. 그러나 태준만이 이 혼란된 세태에서 탈피할 수는 없었다. 마을마다 치밀하게 조직된 연락망. 산속과 마을과의 연결. 그들은 산속에 깊이 숨어 있으면서도 마을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들 빨치산들은 젊은 청소년 특히 학생들을 노렸다. 애써 그들의 사상을 주입해야만 했던 것이다. (제2집, 27쪽)

인용문은 「소년상」에서 4·3 당시를 형상화한 장면이다.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한다. 하지만 빨치산에 의해 마을이 파괴되는 장면만 나왔지 이들의 의도와 시대적 배경은 설명되지 않는다. 심지어 4·3 발발 시기를 ‘1948년 4월 3일 새벽’이 아닌 ‘1949년 4월 3일 밤’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영웅 동무들이여!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라. 마을마다 우리는 증오의 씨를 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감상(感傷)인 것이

다. 이 감상이 있는 한 진정한 코뮤니스트는 될 수 없다. 감상을 버려라. 어린애 같은 감상은 금물이다. 값비싼 피의 대가 없이는 혁명은 이뤄질 수 없다. 혁명은 시체의 산을 넘고 피의 바다를 건너서 전진하는 것이다. 살인, 약탈, 방화 이것도 혁명의 과정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일 따름이다.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라. 자 그럼 출발하자.” (제2집, 28쪽)

마을을 약탈하기 전 대장은 살인과 약탈, 방화마저도 혁명의 과정에서 불가결한 요소라 강조한다. 마을마다 증오의 씨를 뿌리는 것이 혁명의 길이라는 대장의 발언은 희철이 앵무새처럼 외쳤던 “무산자 계급과 노동자, 농민의 결합”, “자본주의 타도” 등의 구호와 대치되면서 빨치산들이 혁명을 이루는 과정의 부조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살인과 약탈, 방화의 주범인 빨치산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한다. 「소년상」 역시 ‘4·3공산폭동론’이 작동하던 시기에 창작된 소설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이 발표된 시점이 1957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학생 문사에 의해 이와 같은 4·3 소설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만하다. 특히 전현규의 「4·3아」(1964)가 제주 출신이 쓴 최초의 4·3 소설이라고 간주할 때, 그의 「소년상」은 더욱 각별하다.<sup>156)</sup>

이처럼 ‘석좌’ 동인들은 침묵을 강요받던 4·3의 틈새를 비집고 4·3을 작품화(특히 소설화)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까지 제주 출신이 쓴 4·3 소설이 발표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틈새 담론에 그치긴 하지만 이들의 문학적 실천과 용기는 대단하다. 이는 4·3을 금기시한 시대였으나 그 기저에는 4·3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뜨겁게 들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석좌》는 말하고자 하는 4·3의 욕망을 받아안은 그릇, 4·3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학생 문인들의 실천의 장이었던 셈이다.

## 2. 한국전쟁의 상흔과 공동체 복귀

---

156) 김동윤은 제주 출신이 처음 발표한 4·3 소설로 전현규의 「4·3아(四·三兒)」(1964)를 꼽으면서 등단작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점과 문학전문지가 아닌 지역 기관지라는 발표 지면의 한계로 조명받지 못했을 뿐, “초창기의 4·3 문학으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한 바 있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앞의 책, 42쪽. 그러나 《석좌》에 수록된 4·3 소설을 창작하면 제주 출신의 4·3 소설 발표 시기는 1957년으로 앞당겨진다.

1950년대는 세대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학생 동인 ‘석좌’도 예외일 수 없다. 《석좌》에는 한국전쟁을 직접 다룬 작품 외에도 가난을 주요 제재로 삼은 작품이 다수 보이는데, 전후(戰後) 당연히 뒤따라 오는 것이 서민들의 궁핍한 삶이라 할 때 이 역시 한국전쟁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석좌》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으로는 홍권홍의 시 「중」과 「슬픈 지역」, 현길언의 소설 「백치의 장」과 「종말」, 전현규의 소설 「탈의」, 고치문의 소설 「꿈」, 현기영의 소설 「검」을 들 수 있다. 소설은 모두 다섯 편으로 이를 다시 전쟁 당시와 전후(戰後)로 구분하면 「탈의」와 「검」이 전자에 해당하며, 「백치의 장」과 「종말」, 「꿈」이 후자에 속한다.

홍권홍은 동인지에 시를 발표한 유일한 동인이다. 그는 두 편의 시 「중」과 「슬픈 지역」을 차례로 발표했는데, 두 시를 관통하고 있는 시어로 ‘지역’을 들 수 있다. 「슬픈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폐허화 된 곳(=지역)의 참혹함을 노래했다면, 「중」에서는 그곳을 애도하고 어루만지려는 시인의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도 약속 없는 태양은 떠 오릅니다

서글픈 전설처럼 아슬한 연기도 피곤스리 타오릅니다

-약속 없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마다 절망에 매마른 가슴만 문지르는 가난한 우리들이 거대한 그림자를 지우며 흘러가는 슬픈 이 지역- 황혼빛 어둠 속에 한 포기 풀도 매말려 있고 계절을 잃고 헐벗은 나무들은 벌벌 떨며 우는데

먼 고대의 솔로몬의 영화와 징기스칸이 아세아를 떠나 구라파를 향하여 진격하는 소리가 마치 입증하는 순간처럼 신음으로 들려올 뿐입니다.

모진 역사가 폭풍우처럼 거처가는 이 넓고 허황한 지역 위에 소리 없이 잣더미는 천년토록 쌓여도

슬프도록 찬란한 지평선 너머 핏빛 하늘에 아늑히 터지는 포성과 아우성, 찢어지는 비명은 그대로 견힐 줄을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같은 슬픈 족속들은 붉은 핏덩이가 터질 듯이 가슴을 두드린다고 가냘픈 회의를 쓸어 안고 대열을 지어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새까맣게 태양이 식어버린 어느 산(山)모퉁이를 돌아가는 길옆에는 갈갈이 찢어진 팔과 팔, 다리와 다리 - 필필 뛰는 살덩이를 주워 모으는 흰옷의 홀로렌스·나이팅게일이 소리 없이 읊는다.

산악(山岳)에 걸리는 구름 송이따라 무수한 생명의 장송가가 흐르고, 육신을 잃

은 영혼과 영혼을 잃어버린 운명(運命)의 사생아(私生兒)는 뿔뿔이 흩어져서 길을 잃고 별관에서 방황하며 읍니다.

처음으로 세월(歲月)이 열리던 기억(記憶)할 수 없는 아침. 서로 손을 굳게 잡아 흔들며 떠나던 행렬(行列)은

어느 말 못할 지점(地點)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쓰러져 갑니다.

아, 아- 허니 이 지금도 뒤에서는 끝없이 긴 행렬(行列)이 이어오고 있음이 여…….

아늑히 터지는 포성(砲聲)과 아우성, 찢어지는 비명(悲鳴)이 그대로 견힐 줄을 모르는 슬픈 이 지역(地域)에 새로이 필 역사는 무수한 생명(生命)의 종착점(終着點)에서 피울 만합니다.

- 운명(運命)의 선물(贖物)인 듯 어쩔 수 없는 죄인(罪人)의 손으로 꽃아 놓은 헐리운 깃발만이 나뭇끼는 슬픈 이 지역(地域)에는 연기(煙氣)로 솟아오르는 서글픈 전설(傳說)과 더불어

내일도, 약속(約束)없는 태양(太陽)은 떠오르겠습니다.

-「슬픈 지역(地域)」, 전문 (제2집, 5~6쪽)

「슬픈 지역」에서는 시가 가리키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반복해서 그려내면서 구체화한다. 풀 한 포기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한 ‘지역’의 이미지는 “계절을 잃고 헐벗은 나무들”이 벌벌 떨며 우는 곳, “포성과 아우성, 찢어지는 비명”이 견힐 줄 모르는 곳, 길옆에 “찢어진 팔과 팔, 다리와 다리- 펄펄 뛰는 살덩이”가 튀구는 곳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폐허화 된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곳은 “가난한 무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곳이다. “육신을 잃은 영혼과 영혼을 잃어버린 운명의 사생아”가 방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곳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시는 마지막에 가서 이곳을 “죄인의 손으로 꽃아 놓은 헐리운 깃발만이 나뭇끼는” 슬픈 지역으로 규정한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이룬 전쟁의 승리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먼 고대의 솔로몬의 영화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징기스칸의 진격하는 소리가 임종의 순간 뿔어내는 신음처럼 들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슬픈 지역」은 한국전쟁을 정면에 내세웠다기보다 전쟁 일반의 참혹함과 비극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 속의 장소를 구체적인 지명이나 국가명이 아닌 ‘지역’이라 칭하는 것



은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상황과 연결된다. 전쟁은 나라의 경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분단된 상황은 한 국가로서 그 경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다 허물어져버린 사원(寺院)의 폐원(廢園)을 떠나 천만역월을  
망각의 산(山)허리에서 헤매이다  
우연히 돌아오는 산(山)올림이었습니다.

어쩌면,  
피가 마른 가슴 속에 쌓이고 쌓인  
울분을 못 이겨 처참히 쓰러져 간  
영혼(靈魂)들을 위(爲)하여  
태양(太陽)마저 잠시 머물어서서  
엄숙히 조의(弔意)를 침묵(沈默)하던 아침을 기억(記憶)하는  
비통(悲痛)한 통폐(痛吠)의 여운이었습니다.

-수많은 육식(肉食鳥)들의 억센 노래에 치일 때마다  
저같이 열열히 흐느끼는 모습은  
차라리 한 줌 흙이 될 운명(運命)을 지닌  
또 하나의 목숨이라 해도 좋고

언젠가  
종일(終日)토록 우리들이 갈망했던  
이제는 그 의미(意味)마저 기억(記憶)할 수 없는  
영원(永遠)히 석화(石化)한 또 하나의 소원(所願)이라 해도 좋습니다.

필연(必然), 그것은  
피(血)어린 언약(言約)들이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훌훌히 떠나가버리는  
또 하나의 먼 지역(地域)에서

황망한 가슴으로 지난 날을 돌아다보며  
다시 한 번 불러보는  
한숨 섞인 어머니의 음성(音聲)이었습니다.

-「종(種)」 전문 (2집, 3~4쪽)

홍권홍은 「종」에서 살육의 공포로 점철된 ‘지역’을 애도하기에 이른다. 그는 산울림, 폐를 찢는 고통의 여운, 돌처럼 굳어버린 하나의 소원, 한숨 섞인 어머니의 음성을 종 소리와 같이 위치시키면서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또 하나의 먼 지역”을 위로한다. 시인은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꿈처럼 좋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목소리로 다독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조국은 허물어진 사원이나 다름없고, “육식조”들의 먹이가 된 사람들은 다시 살려낼 방도가 없다. 그러니 운명을 얘기하거나 어머니 품과 같던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권홍은 다양한 목소리로 “모진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봉인된 ‘지역’을 위무하려고 한다. 약속 없이도 떠오르는 태양은 날마다 조의를 표하고 끊임없이 장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시에서 전쟁 일반의 참혹함을 그렸다면, 소설에서는 한국전쟁에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의미를 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탈의」와 「꿈」은 한국전쟁 당시를 그렸지만, 각각 군인과 피난 아동을 주인공으로 세워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전현규의 「탈의」는 북의 싸릿골을 배경으로 국군이 된 인수와 인민군이 된 영호 두 친구를 통해 “생생한 대지도 광활한 우주도 모두가 다 폐허의 초토로 화”하게 만드는 전쟁의 생리를 그렸다. 8·15해방 후 북은 인민항쟁가가 흐르는 곳으로 피의 숙청이 자행되는 학살의 장소다. 인민자치대 위원장으로 추천된 인수는 이를 거부하면 총살당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히 거절한다. 그는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국군의 신분으로 고향을 목전에 둔 인수는 “무한한 의지를 창조하고 시험할 수 있는 남쪽”을 선택했을 때처럼 자기 의지로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 전쟁은 적을 모두 소탕하기 전까지 고향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고향은 일상 생활을 누리던 예전의 장소가 아니라 탈환해야 할 ‘적’의 땅인 것이다. 이렇듯 이념 대립을 기반으로 한 한국전쟁은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을뿐더러 공동체를

과괴했다. 또한, 복귀 역시 요원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와 친구 영호를 적으로 둔갑시킨 전장에서 인수는 분열의 조짐을 보인다. 인수는 자기를 구하려는 영호를 마주하면서 극도로 분노하는데 이런 인수의 분노는 전쟁 이전 영호와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소설은 두 친구를 인민군과 국군의 복장으로 구별하는 순간 절정으로 치달는다. 인수는 자신의 복장이 어머니가 존재하는 고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표식임을 인식한다. 고향의 관점에서 인수는 곧 ‘적’인 것이다.

의식적으로 영호를 죽인 것인지도 모른다. 무의식적인 행동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영호는 인수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엄연한 사실이다.

인수는 달려들어 영호의 군복을 벗기기 시작했다.

출혈이 심해서 이내 죽어져도 좋다. 적에게 발각되어 포로로 끌려가도 좋다.

그건 아무래도 좋다.

오직 나의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 찰나만 즐기면 되는 것이다.

새빨간 피투성이인 인민군복을 벗기는 인수의 얼굴에 어찌면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도록 즐거운 빛이 떠도는 것 같다. 아직도 고지에는 포연이 자욱하고 포연 속에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제1집, 34쪽)

공권력의 간섭없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인수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열할 수밖에 없다. 소설은 개인의 기본 의지를 용인하지 않는 전쟁터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개인이 완전히 파멸되는 과정을 그리며 전쟁의 실상을 형상화한다.

고향 상실과 가족의 해체 등 가족의 문제는 한국 전후소설에서 강조되는 소재로<sup>157)</sup> 현기영의 「검」 역시 이런 유형의 작품에 해당한다. 1950년대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은 ‘가족주의 강화’ 또는 ‘가족의 해체’로 구분<sup>158)</sup>되는데 「검」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 가족을 서사 전면에 내세워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157) 김택호, 「오래된 권위에 대한 냉소적 시선-추석 소설론」,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51~152쪽.

158) 김미향,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가족 형상화의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228쪽.

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렸다. 피난 도중 계희 아버지가 사고로 미치게 되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에서 일하게 된다. 이를 못마땅해하던 할머니와의 갈등은 어린 계희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젓먹이 시체가 아무렇게나 뒹구”는 피난길은 그 자체만으로 끔찍한 폭력이다. 소설에서 계희 아버지가 미치게 된 이유를 기차에서의 낙상 사고라 밝히고 있으나 피난길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정신적 외상을 입은 계희 아버지를 이용해 그의 돈을 갈취할 뿐이다. 「껌」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방식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그려짐으로써 가족 해체의 원인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이를 못마땅해하는 할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희 가족을 파괴한 원인은 전쟁이다. 현기영은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피난길의 풍경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아버지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가정의 자리에 앉히며 미쳐버린 가장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임무를 내린다. 이때의 ‘여성 가장’에게는 기존의 가장이 누렸던 권위보다는 생계를 담당하는 역할만 부여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혹여 여성 가장이 미쳐버린 가장을 책임지지 못하거나 그의 권위를 위협할 경우 그녀는 도덕성을 의심받으며 끊임없이 비난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계희 어머니가 못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밍다. 너무 얼굴이 고와지고 미군 지프차를 탔다는 것도 이유지만 소년을 끔찍이도 아껴주는 할머니에게 너무 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리다간 정말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릴지도 모른다. 소년이 모르게 훌렁 나가버릴 것이다. 그 이유가 할머니 때문일 것만 같다. 끔찍히 아껴주는 어머니를 왜 내쫓아? 할머니가 몹시 미워 못 견디겠다. (제2집, 11쪽)

계희는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온 껌을 씹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는 미군 지프를 타고 얼굴이 너무 고와지는 어머니가 불안하고,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어머니가 가출할까 걱정이다. 어린 계희마저 어머니의 도덕성을 의심하면서도 할머니의 그런 태도가 가족을 해체하는 원인이라고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다. 할머

니에게 매를 맞은 계획의 속상한 심정을 소설 앞부분에 배치하고 소설 마지막에 가서 계획이 매를 맞은 이유가 어머니가 계속이만 데리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 밝히는 구조는 폭력이 일상화된 전쟁 중의 상황을 강조한다.

전후(戰後)를 배경으로 한 「백치의 장」, 「종말」, 「꿈」에서는 상이군인의 훼손된 몸을 등장시켜 사회 부적응자로 형상화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는 ‘석좌’ 동인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성 문인의 전후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후소설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자나 사회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상이군인이 자주 등장한다.<sup>159)</sup>

현길언의 「백치의 장」인 경우 5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2장 뒷부분부터 3장 대부분에 해당하는 4쪽이 낙장 됐고, 활자가 흐리고 많이 지워져서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덕성을 우선 가치로 둔 교육자 이상철이 군대에서 한쪽 눈을 잃은 친구 호섭과 재회하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야기다.

「백치의 장」에서는 전쟁이란 언급은 없지만 1954년 5월 20일에 있었던 제3대 민의원선거를 연상시키는 민의원선거 출마 예정인 K의 원고 대필 사건이 제시된다. 이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의 혼탁해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문화주택, “하로 저녁 고작 이천 환 내외의 수입에 인간 최고의 정조”를 파는 여자, 더러운 돈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K, 방탕한 생활을 하는 호섭, 뇌물과 권력으로 입시 청탁을 하는 김영복 사장, 계(契)바람 등은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물질만능주의 양상<sup>160)</sup>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제4회 전국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투고한 원고<sup>161)</sup>는 동인지에 발표한 작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대화와 에피소드가 생략되거나 축소되었고, 구성이 바뀌고 문장이 많이 정돈되었다. 여기에서 호

159) 전시 중 영웅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상이군인의 몸은 전후 사회에 들어서서 공포와 동정이라는 이중적 시선 위에 놓이게 된다. 1950년대 후반 상이군인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에서 그들이 일상적 삶을 살지 못한 채 비사회적 인물로 전락했음이 확인된다. 김필남, 「1950년대 국민국가 만들기와 상이군인의 몸」,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324~337쪽.

160) 전쟁 후의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환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1955년 1월에 터진 ‘광주 계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물질만능주의 양상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계 문제 외에도 출세 지향의 배급주의자,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여자, 돈으로 공천을 받아 돈으로 선거하고 돈으로 선거구도 거래하는 정치인 등 갖가지다.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9, 131~134쪽.

161) 현길언, 「백치의 장」,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출판국, 1959, 129~144쪽. 학도주보에서 현상모집한 전국 중고교학생들의 문예작품 가운데서 우수작품만을 선별해 『한국학생문학선』으로 발간했다. 제3집에는 현길언의 「백치의 장」과 전현규의 「5미터」가 수록됐다.

섭이 눈을 잃은 이유가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현길언은 「백치의 장」에서 한국전쟁 후 물질만능주의가 횡행했던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상철이, 나는 결코 군문에서도 오늘의 나는 아니었어. 나라를 위한 나의 피는 뛰었고 나 자신도 충분히 잇을 수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회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나의 행동이었어. 한쪽 눈을 잃고도, 죽을 지경에 이른 아군의 전세에도 XXX 고지를 지키기 위하여 삼십 명의 사랑하는 부하를 잃었어도 난 오히려 웃을 수 있었네. 부대장도 나를 칭찬했어. 훈장도 땀어. 그러나 그게 무어냐. 결국 잃은 것은 육체뿐. 얻은 것은 사회의 냉대뿐이었어. 누구를 믿어. 누구를”<sup>162)</sup>

‘배금주의’를 표방했던 두 친구는 사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사회는 이들을 ‘맨승이’라며 부조리한 사회로 들어오기를 종용한다. 호섭은 나라에 눈을 바쳤으나 사회의 냉대에 색안경을 써야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상철은 진학을 앞둔 동생을 위해 ‘계(契)’에 동참했다가 계주가 도망가는 바람에 부정입시 청탁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소설은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인수가 십자가를 진 예수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끝이 난다.

현길언의 「종말」은 한국전쟁으로 훼손된 신체를 갖게 된 상이군인을 등장시켜 전쟁 후 이들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과 공동체 복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방 후 아버지들이 숙청을 당하면서 남하한 두 친구 혁과 준은 한국전쟁에 나갔다가 상이군인이 된다.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을 잃은 혁은 호적계에서 일하면서 남을 돕는 삶을 영위해나 가지만, 한쪽 다리를 잃은 준은 사회의 냉대 속에 점점 폭력을 내면화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소설은 혁이 감옥에 있는 준에게 성경을 건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백치의 장」이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 구조에 대한 발견이었다면 「종말」에 와서는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두 신체를 대비하면서 부조리한 세계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백치의 장」속 상이군인 호섭이 느꼈던 사회적 냉대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종말」속 인물들의 부상 정도도 한쪽 눈을 잃은 호섭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로 나타난다. 「백치의 장」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피상

162) 현길언, 「백치의 장」,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출판국, 132~133쪽.

적으로 그려졌다면, 「종말」에서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면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① “상철이 결국 난 한쪽 눈을 잃었네. 나는 색안경을 써야만 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안경을 쓰지 않고는 안 되네. 나의 부모가 준 그 고운 눈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도저히 난 자신이 없네. 그리고 그 순진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네. 로이드색 안경을 써야지 써야, 히, 히.”

“.....”

“자네도 어서 속히 안경을 써야 되네. 안경을 안 쓰고는 그 고운 눈이 영원히 잃어버리기 쉽네.”

비여지는 병들이 늘어 감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듯이 쑥 들이키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나도 군대에서 한쪽 눈을 잃었으나 자네와 같이 있을 때 가졌던 그 순진한 한쪽 눈만 가지고라도 세상을 바라보려 했다네. 그러나 정말 무서웠어. 색안경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잠시도 볼 수 없는 나였어.” (제1집, 3~4쪽)

② 혁은 죽은 줄만 알았던 병실에서 살았다는 기쁨과 가슴팍에 달아주는 훈장을 받고 병실 문을 나올 때만도 살았다는 한오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대하던 날 옛날 하숙집 냉방에서 온 밤을 눈물로써 새웠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고독감에서도 아니었다. 꿈꿨던 청춘을 잃음에서도 아니었다. 내일의 입찰을 위한 공포에서 오는 슬픔은 더욱 아니었다. 거리를 활보하는 두 다리,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들 속에서 나오된 듯한 슬픔에서였다. 인류를 위하여 꼭 무엇을 해보겠다던 그의 꿈을 이루는데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을 잃음은 다시 없는 치명상이었다.

뒷날 혁은 직장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 직장을 가짐으로써 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려는 데서였다. 그러나 직장을 구함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딜 가나 푸대접을 당했다. (제2집, 61쪽)

③ 내일의 끼니를 위해 오늘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어. 결국 나는 나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사랑하는 애인도, 존경하던 상관도 내가 한쪽 다리를 잃고 보니, 그뿐이었어. 나도 한쪽 다리를 잃고도 번쩍이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병실문을 나올 때는 여간 기쁘지 않았어.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자

랑하고 싶었어. 박준을 자랑하고 싶었네. 청춘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싸운 정의의 사도 박준을 말아야...

허허, 그래서 난 사랑하는 애인 집을 찾았지. 혁이도 알걸. 미쓰 최말이야. R여대... 일선에서도 한 달에 두 번씩 꼭꼭 부쳐주던 편지를 생각해서, 더구나 번쩍이는 나의 가슴의 훈장을 보고는 더욱 반길 줄 알았으나 그는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람이었어. 나를 보고는 오히려 태연하면서 ‘준씨가 다리를 끊어야 되겠다는 편지를 받고 저는 준씨를 단념했어요.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과 결혼해도 저만 불쌍할 걸 뭐요...’하는 것이었어. 그러니 나는 믿지 못할 게 여자라고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그 집을 나왔지. (중략) 나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XXX 전투 시 우리의 부대장이었던 김대령을 만났어. 그는 XXX 전투 시 나의 소대를 최후로 최후로 보내면서 용감히 싸우라고 지껄이던 자였어. 그는 그의 부인인 듯한 산뜻이 양장한 부인과 함께 찻차에서 내려 어느 요리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그를 알아보고는 경례를 붙였지. 파스한 웃음과 굳게 손이라도 잡아줄 줄 알았지. 그래 그것이 잘못이었어. 나를 보는 쩡그러진 얼굴. 얼떨떨한 낫빛. 그다음엔 바쁘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뽀얀 먼지를 날리며 달아나 버렸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굳어 버렸어. 사회에서 버림받으니까. 끊어진 몸둥이... 그때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혁은 모를 거야. 그 후 나는 내일을 바랄 수 없는 인간이 되었고 나 자신만을 믿어야 되었어. (제2집 63~64쪽)

①은 호섭이 상철에게 색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군대에서 눈을 잃기 전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엔 세상은 너무 무서운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무서운 세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색안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②와 ③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②는 혁이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후 구직활동 중 겪었던 사회적 푸대접을, ③은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을 것이라 여겼던 예상과 달리 애인의 배신과 김대령의 외면을 경험하면서 점차 사회로부터 고립된 준의 처지를 얘기한다.

전시 중의 상이군인은 영웅적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전후 사회에서 이들은 공포와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백치의 장」과 「종말」에 등장하는 전사자의 훼손된 신체 또한 참혹한 전쟁의 증거는 되지만, 이들의 예상처럼 영웅의 표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의 유물”로 보일 뿐이다. 매 순간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신체



없음'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함께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리란 두려움을 안겼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사회와 냉대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특히 「종말」의 두 인물은 남하한 인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쟁에 나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이들의 복귀를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준은 사회로 버림받았다는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상이군인 바지와 군복으로 제조한 점퍼를 입고 가슴에 달린 훈장을 본다.

여기서 현길언의 서술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군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부조리한 세계는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하게 변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인의 존재 가치도 가능해진다는 논리는 공동체의 복귀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환원한다. 이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을 추궁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인의 존재 가치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즉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가에서 찾는 시각은 두 작품 모두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똑같이 색안경을 쓴 호섭과 혁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멸시와 냉대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호섭은 '순수성'을 과감히 버렸을 때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소설은 완고한 세계에 대응하기 힘든 개인과 폭력적인 세계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와 '성경'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귀일함으로써 잊을 수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고치문의 「꿈」에서는 전쟁터에서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은 준수의 공동체 복귀의 문제를 다룬다. 준수는 거액을 빌려 양복점을 차리는 것으로 공동체 복귀를 시도하지만, 양복값을 물지 않는 친구들과 우후죽순 생겨나는 양복점으로 무산된다. 준수는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영화 속 백치 아다다처럼 절벽 위에서 바다로 몸을 던진다. 「꿈」의 준수는 「종말」의 준과 달리 성실한 태도로 공동체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준의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만 사회가 반응했다면, 준수는 송영감의 도움으로 사회 복귀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준은 사회의 외면에 폭력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준수는 대항을 포기하고 자신 스스로 공동체 복귀를 포기해버린다. 송영감의 돈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배제된 개인이 모순된 사회 구조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준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것이다.

유소년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석좌' 동인들은 전쟁의 상처를 작품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석좌》에 수록된 두 편의 시는 전쟁 일반의 참혹함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면 소설에서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전쟁의 생리와 전후(戰後)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려냈다.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분열과 가족의 해체 등 전쟁의 후유증을 문제시하고, 전후(戰後) 한국사회의 타락상을 새로운 폭력으로 인식해 상이군인의 공동체 복귀 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은 당시 제주 학생 동인지들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는 ‘석좌’ 동인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기성 문인의 전후소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석좌》가 고등학생들의 습작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성 문인의 작품을 통해 문학 공부를 이어온 ‘석좌’ 동인들이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작품에서 소설 장치를 활용해 주제를 심화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단절된 섬과 자기 존재의 증명

시골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1950년대 후반 제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서울’에 대한 동경을 품었던 듯하다. 현길언은 피난민 아이들을 만나면서 서울을 향한 동경을 품었다<sup>163)</sup>고 고백하고, 현기영은 그의 소설에서 서울내기 피난민 아이의 표준어를 듣고 그 세계를 동경했다<sup>164)</sup>고 서술한다.

정훈이와 옥순이는 중학교 이학년을 넘어 삼학년에 접어들면서 어떤 종류이든 책 읽기에 매우 즐겼다.

성터골서 학교가 있는 왕쥐골까지 가려면 망망한 대해를 옆에 두고 질펀히 뻗어 나간 폭신평신했던 모래사장 길과 여름철이면 시원한 샘물이 철철 흐르는 웅달샘들이 있어 책을 하나를 들면 하루가 가는 줄 모르게 이 샘터에서나 이 사장길에서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읽고 싶은 책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떨어진 벽촌이라 정훈이와 옥순이는 늘 책을 읽으려 빌려 했어도 쉬운 일이 아니라 정훈이네에게 알맞은 책을 가릴 나위가 아니다.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대로 소설집 시집 역사 전기 잡지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철학 경제 서적까지 읽어보려 했었다.

163) 현길언, 「기억과 기록」, 앞의 책, 96쪽.

164)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앞의 책, 149쪽.

그 중에 제일 많이 빌 수 있는 것은 대중소설 대중잡지들이었다.

이러던 즈음 정훈이네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닥쳤다. 동란을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서울서 공부하던 대학생이 정훈이네 학교에 부임함으로서 진지한 국어공부와 훌륭한 세계 명작 소설책들을 빌려 볼 수 있는데 있는 것이다. (제2집, 40쪽)

3장으로 구성된 홍희구의 「상여소리」는 죽마고우인 정훈과 옥순, 현석의 우정을 그렸다. 정훈과 옥순은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면서 독서의 재미를 알게 되었으나 읽고 싶은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빌릴 수 있는 마땅한 곳도 없을 만큼 고향은 가난하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들이 전쟁을 피해 이들의 학교에 부임하면서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된 국어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은 당시 제주 학생 문단의 일면을 보여준다. 독서를 좋아하는 정훈과 옥순에게 세계명작과 소설책들을 빌려주고 문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서 공부하던 대학생’은 현기영과 현길언의 경우처럼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게 분명하다.

타자의 발견은 고향 바깥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충격을 안겨줬다. 그 세계는 정훈과 옥순의 수준에 맞는 책이며 읽고 싶은 책들이 제공되는 곳으로, 무엇을 갈망하던 이루어줄 것이란 환상을 심어준다. 이러한 기대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고향을 재인식하도록 만든다. 이제 고향은 사방이 바다로 에워싸인 단절된 섬이자 척박하고 가난한 고립된 섬으로 전락한다. 이런 각성은 제주(섬)에 머무르는 한 대물림되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고,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열패감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고향으로부터의 탈주를 꿈꾸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외부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교통과 통신의 발달 등 환경 제반의 변화는 제주 청소년들에게 서울(도시)을 향한 욕망을 부추겼다. 제주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김철희의 「계모」와 장순용의 「소리」, 홍희구의 「상여소리」에서 주인공들의 고향으로부터의 탈주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계기로 시도된다.

이 고을은 먹고 살기에도 빈약한 터에 정훈이네가 셋이 나란히 이 마을 성터국민학교 졸업했어도 버젓이 훌륭한 학교에 진학하긴 어려웠다. (제2집, 40쪽)

「상여소리」의 고향 성터골은 삼백여 호의 가구로 구성된 자그마한 어촌 마을로, 국

민학교를 졸업해도 상급학교가 없어 이웃 마을에 신설된 학교에 다녀야 할 만큼 열악하다. 옥순은 중학생 때부터 헤너로 일하며 집안 살림을 돕고 현석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마을 서기로 일해야 할 만큼 고향 생활은 가난의 연속이다. 읍에 있는 야간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성터골을 떠난 정훈 역시 물구루마를 끄는 물장수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읍이 시로 바뀌면서 시내 곳곳마다 상수도 공사가 이어져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제주읍이 시로 승격됐던 1955년 9월 이후의 제주시<sup>165)</sup>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은 일자리를 부탁할 만한 높은 자리의 사람이 있거나 뇌물을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취업이 힘든 혼탁한 고난의 장소로 제주를 그린다.

삼학년 학년 말 고시가 끝나고, 모두들 진학 준비에 바쁜 모양이다. 영철이도 남 못지않게 열심이다. 그러나 남들과 같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행복스런 공부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중학교 일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삼학년 말에 이르기까지 배운 학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볼 따름이다. 남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영수학관에도 드나들었고, 요새에 와서는 서울과의 통신도 빈번해진 모양이다. 남이 바빠 서둘러 서둘수록 영철은 어쩐지 불안해지는 것이다. (제1집, 23쪽)

김철희 소설 「계모」의 영철은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도 대학 진학에 대한 말을 꺼내지 못한다. 이제까지 배운 것을 노트에 정리하는 것으로 공부를 이어갈 뿐이다. 방학을 이용해 학업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울과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쌓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영철은 자꾸만 불안해진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계모와 그녀에게 늘 반항적이었던 영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영철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대한 계모의 질문에 서슴없이 “서울대학 법과나 이공과 계통”이라 대답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서울대학에 진학해야만 미래가 안정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것이다. 계모는 재차 제대로 된 답을 요구하지만, 영철은 법과 계통으로 감투를 써보겠

165) 용천수나 봉천수에 의존하던 제주시는 1953년 시내 사라봉 근처에서 상수도사업에 착수, 1957년 6월 24일 첫 공동급수전으로 수도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수도물이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용천수를 길어다 팔기도 했는데 운반 거리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물값을 받았다. 김동오, 「제주도의 상수도사업 통합운영 및 기대효과」, 『저널 물 정책·경제』 7권, 한국수자원공사, 2006, 14쪽.

다는 출세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은 「소리」와 「상여소리」에서도 드러난다.

① 가난한 정훈이가 굳굳한 맨주먹과 강철같은 의지의 몸체만 갖고 고학의 길에서 갖은 고난과 피눈물 나는 사회의 멸시에서 오직 옥순 하나를 위한 생활의 목표와 위안을 갖고 살아온 정훈이가 하루아침 사이에 수천 급의 꿈은 재가 되어 다시 못 올 곳으로 송두리째 내다버린 것이었다. (제2집, 39쪽)

② 이렇게 나는 경이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서울 ○○법과 대학 행정과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온 정력을 바치기로 했다. 어떤 셈인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 경이를 위하는 것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제2집, 52쪽)

「상여소리」의 정훈은 자신의 공부와 옥순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타향살이에서 고단한 삶을 견디고(①), 「소리」의 부족한 것 없는 '지선'마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경이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②)이라 여긴다. 「계모」와 「소리」, 「상여소리」에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성인으로 들어서는 관문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도시)을 상상한다. 이를 세상 물질 모르는 주인공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욕망으로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을 여러 번 대비하는 「계모」를 눈여겨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계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을 보살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붓자식이 느낄만한 서러움을 알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계모의 태도가 영철과 화해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가난한 영철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가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졸업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무게가 실린다. 소설은 체험을 무시하고 학교 공부만 중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식을 비생산적이라고 치부하며 경험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서술 태도를 반복해서 드러내는데 이런 경향은 「상여소리」의 현석의 발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대체 너희들이 즐기는 문학이란 무엇이냐고 문학이란 배 불고 행복하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즐기고 소일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겐 아무 가치 없고 무필요한 것이라고 무턱대고 대들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 자체도 모두 다 가상적인 거짓을 사실인 듯이 꾸며낸 것이라고

이런 것을 좋아서 덤비는 정훈이네를 무척 비꼬기까지 했다.

정훈이와 옥순은 한편이 되어 현석이의 그릇된 사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쌓은 문학적 실력을 통 털었다.

문학이란 냄새 정도로 조금 맛보고 멀리서 관망할 정도의 실력에 아무 체계도 없이 덤벼드는 현석이 사상을 누르기엔 벅찼다.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문학이라는 개념이 아른아른했어도 체계를 세워 입 밖으로 나타내긴 어려웠다.

그저 불쑥불쑥 솟는 문학이란 정의를 무릇 지켰었을 따름이다. (제2집, 42쪽)

상급학교 진학을 계기로 서울(도시)에 대한 욕망을 구체화하려는 인물들의 행태와 경험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1950년대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영철과 정훈, 지선의 서울(도시)을 향한 욕망은 1950년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가열된 교육열과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거대한 인구이동과 전국적인 교육 열풍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 집중<sup>166)</sup>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당시의 교육열은 취업난 및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와 전쟁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sup>167)</sup>에서 우러난 것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물적 유산보다 더 값지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 한국 정부는 생산증강과 기술진흥이 경제개발계획의 선결 조건임을 인식하고, 생산인구의 양성을 위해 실업교육 강화책을 모색했다. 이런 결과로 마련된 것이 1957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서’이다.<sup>168)</sup> 경험과 기술을 중시하는 소설 속 분위기는 당대 실업기술 교육을 강화하려는 정부 시책의 영향에 기인한다. 또한 전후(戰後) 사회재편 과정에서 미국이 전면으로 재개입하면서 미국 특유의 경험적 행동과학에 기반한 선진학문을 수용하게 되

166) 1955년의 경우 전국 85개 초급대학 이상 교육 기관 중 29개가 서울에 있었고, 9만 명가량의 대학생 중 4만 2천 명이 서울에 거주했다.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8권, 한국도시연구소, 2002, 180쪽.

167) “한국전쟁은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총력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파괴력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직접적인 물리적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 피난민 행렬 속에서 양반과 천민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거대한 폭력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각인되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한국전쟁의 무차별적 파괴로 초래된 빈민화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위세의 평준화를 수반한다. 다시 새로운 계급과 지위서열이 생겨날 때까지는 누구나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되는 셈이다.”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경제와 사회』 제46권, 비판사회학회, 2000, 107~108쪽.

168) 김호준, 「이승만정권기 실업교육진흥책의 추진과 그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53~55쪽.

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인식을 확장하는 결과<sup>169)</sup>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렇듯 김철희의 「계모」, 장순용의 「소리」, 홍희구의 「상여소리」는 제주 청소년들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욕망만을 형상화한 것이라기보다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sup>170)</sup>

고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주체의 본성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운명 앞에서 사회인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 「소리」와 「상여소리」의 주인공들은 통과의례처럼 고향을 떠날 결심을 실천한다. 하지만 고향은 끈질기게 잡아당기는 속성을 지닌다. 지선은 방학 차 제주항을 통해 고향 땅을 밟고, 정훈은 옥순의 부음 소식에 귀향한다.

꼭 삼 년 만에 처음으로 밟아보는 고향 땅이었다.

어릴 적부터 뼈에 사무치도록 정들었었고, 간절하게 그리워하던 고향이었다.

허나 그 고향이 삼 년 만에 그리도 변하랴 싶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주에서 마치고부터는, 서울 ○○법과 대학 행정과에서 3년 동안을 줄곧 학업에 정진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으로 산지 부두에 내릴 때의 나의 마음 속에는 즐겁고, 쓰라리던 추억들이 속속드리 파고들어, 명랑한 저 여름 하늘에 떠가는 뭉게구름처럼 흐뭇이 행복감에 잠시 도취할 수도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의 체온처럼 느껴지는 해풍에, 깊은 심호흡도 할 수 있었으며, 푸른 낭만을 지니고 출렁이는 듯싶은 물결조차도 우글거리던 인파의 밀림 속에서 내, 지칠 대로 지친 나의 영육을 맑게 씻어주는 듯 느껴지는 것.-장엄하게 높이 솟아 있는 한라의 정기가, 나의 심장으로 와 뛰노는 맥박과 함께 용솟음칠 수 있는 무한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듯도 싶어졌다. (제2집, 47쪽)

제주의 청소년들에게 고향의 이미지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통해 거듭 재인식하게 된다. 척박하고 가난한 고립된 제주(섬)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공간으로 부정된다. 하지만 고된 타향살이에서

169) 허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교환 계획과 한국사회 엘리트의 친미화」,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230쪽.

170) 김철희는 2023년 4월 14일 면담에서 <<석좌>>에 발표한 「계모」와 「춘궁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밝혔다. 김철희는 ‘가난’을 자신의 문학적 질문으로 삼았던 것 같다. 「계모」는 가난과 진학 및 진로를 결부시키고, 「춘궁기」에서는 종교와 연계시키면서 주제를 심화해 나가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는 가난한 제주의 상황과 김철희가 포착한 당시 제주의 문체가 창작의 주요 모티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돌아와 마주한 고향은 부모님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회복한다. 지선은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생활 3년 만에 '산지 부두'를 통해 고향에 닿는다. 고향의 자연은 행복과 안온함을 주고, 지친 영육을 정화하며, 장엄하게 솟은 한라산의 정기는 무한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더 이상 고향은 불가능의 공간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끌었던 고향의 강한 구심력은 순식간에 고향을 좌절과 실패의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고향에 돌아온 지선은 사랑에 실패하고, 정훈은 귀향 후 죽음을 맞는다. 이렇듯 제주의 청소년들은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 단절된 섬을 등져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고향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실패의 공간인 섬을 뒤로한 채 바다로 뛰어든 수밖에 없다. 소설에서 고향 제주는 가난과 결부되며 단절된 섬이면서, 실패와 좌절의 섬으로 표상된다. 자기 존재 증명의 과업이 주어진 인물들은 끊임없이 고향의 탈주를 욕망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란 인식을 《석좌》에 수록된 소설 「계모」, 「소리」, 「상여소리」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석좌(石座)’ 동인의 문학적 행보와 그 의미

문학 매체는 작가와 작품 탄생의 선형적 조건이며, 문학 사회를 형성하는 핵심기반이다. 특히 학생 동인지라는 특정 매체는 한 작가의 문학적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석좌》가 소설 중심의 동인지라는 것에 착안해 동인 중 소설 장르에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가의 학창시절 창작한 작품부터 등단 전까지의 작품 활동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동인지에 소설을 발표하고 이후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적 성과를 거둔 작가로는 현기영, 현길언, 전현규를 꼽을 수 있다.

현기영(1941~현재)은 제주읍의 변두리 중산간 농촌인 노형리의 함박이굴에서 태어났다. 1947년에 노형국민학교에 입학하지만 ‘4·3’의 도화선이 된 ‘3·1 사건’의 여파로 전도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학교를 쉬게 된다. 이듬해 4·3 발발 직전 가족 모두가 제주읍으로 피난하면서 제주북국민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했다.<sup>171)</sup> 4·3은 그의 출생지인 함박이굴을 초토화했고, 결국 그의 고향 마을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1954년 오현중학교에 입학 후 몇 번 문예 백일장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문학을 향한 동경을 싹 틔운다. 그는 문학 지망생이기도 했던 국어교사 김영돈의 영향을 받아 문학 공부에 박차를 가한다. 1957년에 오현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소설 창작을 이어간다. 그가 중학생 시절에 발표한 소설은 「어머니와 어머니」(1954년), 「행군소리」(1955년), 「하나의 노을 밑은」<sup>172)</sup>(1956년)이다. 고등학생 시절에 쓴 소설로는 「꿈」(1957년)과 「집결소」(1958년)가 있다. 「집결소」 창작 이후로는 학업에 매진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수필도 창작했는데 「나」, 「그림자」,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석좌》 제1집에 수록돼 있다. 196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가정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했다가 1961년 서울대 사범대학 불어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뱃삿만 달랑 들고 무작정 상경한 터라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1962년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 군 복무를 하고서 1964년 전역과 더불어 전공학과를 영어과로 옮기면서 2학년으로 복학한다. 《대학신문》 문예현상모집에 단편 「산정(山頂)을 향하여」가 가작으로 입선한다. 1967년

171) 현기영은 1941년생, 현길언은 1940년생으로 한 살 차이지만, 현기영의 1학년 재입학으로 인해 두 학년의 차이가 생겼다.

172) 중앙학도호국단에서 주최한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 3회에 가작으로 수상한 작품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 광신중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는다. 1969년에 대학의 같은 과 동창인 시인 양정자와 결혼한다. 1970년 서울대사대부속중학교로 전근한다. 1987년 고척고등학교의 퇴임에 이르는 20여 년 동안 교사생활을 지냈다. 현기영은 197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가 당선되어 문단에 들어선다. 습작 시기에 써두었던 작품들로는 2인칭 시점으로 낙태하는 여공원의 내밀한 내면의식을 묘사한 「꽃샘바람」<sup>173)</sup>, 「아우에게」<sup>174)</sup>, 「실어증」<sup>175)</sup>, 제주도의 망령에 가위눌린 채 자살하고 마는 인물을 그린 「초혼굿」<sup>176)</sup>이 있다.

현기영의 창작 도정에서 가장 선두에 들 작품은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쓴 「어머니와 어머니」이다. 이 글은 병든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가 데리고 올 새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형상화한 콩트에 가까운 산문이다. 이 글은 작은어머니를 들인 아버지의 일탈과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구현하지 않았다.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준이네 세 식구가 S읍으로 이사 오고 몇 달 후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고 점점 병색이 짙어진다. 어머니는 온순한 부인을 들이길 남편에게 부탁할 만큼 자신이 죽은 후 아들이 계모에게 시달릴까 봐 걱정이다. 어머니가 죽자 준은 새어머니 꿈에 시달린다. 새어머니를 맞이하는 날 준은 새어머니가 “여우같이 사나워도 꼭 버틸”<sup>177)</sup> 거라 다짐한다. 현기영은 이 소설을 통해 실제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숨겼다.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어머니가 “내가 죽거든 그 육지년을 어명이라 부르며 잘 살아보라”<sup>178)</sup>며 생트집을 잡은 일도, 그때마다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도 은폐했다. 오히려 자신이 죽은 후 아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등장시키거나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고 ‘준’이란 이름을 지워주는 등 소설 창작의 경험을 제대로 하게 된다.<sup>179)</sup> 「어머니와 어머니」에서 소설가로서 현기영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3) 《신동아》 127호, 동아일보사, 1975.

174) 《소설문예》 제1권 제3호, 소설문예사, 1975. 「아우에게」는 이후 「아리랑」으로 개제·개고해 『아스팔트』(1986)에 수록된다.

175) 《문학사상》 39호, 문학사상사, 1975. 「실어증」은 이후 「발병」(《작단》2집, 1979)과 「플라타너스 시민」(《문예중앙》 1978년 겨울호)과 함께 엮어서 「플라타너스 시민」의 제목으로 『아스팔트』(1989)에 수록된다.

176) 1975년 《동아일보》에 12월 22일부터 27일, 29일, 30일 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177) 현기영, 「어머니와 어머니」, 《현악》 2집, 앞의 책, 161쪽.

178)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앞의 책, 300쪽.

179) 「어머니와 어머니」의 창작 경험은 그의 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 중 「어머니와 어머니」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행군소리」와 「껌」, 「집결소」 등을 보면 현기영의 학창시절 창작의 주요 제재가 ‘한국전쟁’임을 알 수 있다.

「행군소리」는 지원 장병으로 손주를 보낸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피난민 병수 할망에게 기가 죽던 노인이 아들 옥<sup>180)</sup>을 군대에 보낸 후 집 나간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 선회를 돌보는 이야기다. 노인은 “아들은 지금 밭살스런 공산놈과 총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공산당놈이 눈앞에 보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노인은 아들을 죽인 놈에 대한 적개심이 머리끝까지 치미는 가운데 아련히 들려오는 제2국민병 행군 소리에 숙였던 고개를 치켜들고 한참이나 병수 할망을 바라본다. 노인은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병수 할망에 대한 우월감마저 느낀다. 아들의 전사 통지서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인정받은 명확한 증표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 자진해서 입대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설의 분위기는 현기영이 이 소설을 창작할 당시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던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껌」과 「집결소」에 와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껌」에서는 피난민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다뤘다면 「집결소」에서는 국군 민상사와 괴뢰군 소속사병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이념을 뛰어넘은 인간애를 그리려고 시도한다. 심각한 부상으로 가망 없는 민상사는 ‘포로’와 ‘자살’의 선택지 가운데서 고뇌한다. “사탄의 종자인 공산주의자”의 포로가 되느니 20년 가까이 간직해온 신앙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자살을 선택했으나 미수에 그친다. 죽어가는 민상사를 발견한 소년은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공군이 몰려온다는 소년의 말에 민상사는 동혈의 위치를 노출 시키고 자신의 목에 총구를 겨눈다. 소년은 민상사의 행동 덕분에 중공군 대열에 합류해 고향을 향해 행군할 수 있게 된다. 전쟁이 한창인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동혈’이라는 설정은 인간애를 가능하게 만드는 장소로 중요한 소설 장치가 된다.

현기영이 이 소설을 창작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놀라운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소설 전반에 드러나는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와 소박한 휴머니즘

---

180) 「행군소리」는 《굴림》 2호와 『한국학생문학선』(1956)에 수록되었는데 소설의 골자는 비슷하나 작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굴림》 2호에서는 노인의 아들 이름이 ‘옥’이라고 나오는 반면 『한국학생문학선』에서는 ‘유이’로 명기되는 등 표현상의 차이를 보인다.

은 그가 당시에 읽었던 전후소설의 영향이라 여겨진다.<sup>181)</sup>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장황하게 이끌어간다거나 피상적으로 자살의 정당성을 모색하는 부분 등은 한국전쟁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생의 습작품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현기영이 고등학생 시절 발표한 수필들에서 그의 자전소설 『지상에 손가락 하나』의 모태가 되는 요소들이 발견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인지 제1집에 「수필초」라는 제목 아래 3편의 수필을 묶었는데, 「나」, 「그림자」,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그것이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에서 ‘잃어버린 고향’ 함박이굴의 막막한 어둠을 통해 그 시원을 찾아가려는 작가의 시도는 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작가의 탄생기로 연결된다.

우중충한 하늘이 하이얀 각혈(咯血)을 하던 날 밤에, 나는 태어났다. 촌에서 올라온 어머니는, 사촌댁 제사 집에서 나를 낳았다. 할머니가 마약 나를 거두려는데, 나는 아악 울음을 치고 그만 죽은 사람이 됐다고 했다. 할머니는 그냥 당황하시고 어머니는 누운 몸을 벌떡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한참 그러는데 할머니는 어찌다 배꼽 윗부분에 뽀죽이 선 놈을 눌렀더니만 나는 다시 숨을 돌리고 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일곱 살이 채 못되던 여름날에 자갈 높이 쌓아 올린 데서 그만 밑을 향하여 가꾸로 박혔던 것이었다. 무던히 핏덩이가 몽클몽클 솟았던 것만이 아니다. 늙으신 할머니는 내 머릿속에서 허연 골이 내뿜더라는 것이었다. (제1집, 59쪽)

인용은 「나」의 도입 부분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제삿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자신을 할머니가 “배꼽 윗부분에 뽀죽이 선 놈”을 눌러서 살아나거나 일곱 살이 채 못되던 여름날의 사고 등은 현기영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과정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무한 암흑과 죽은 후의 암흑에 대해 상상하게 만들어 “‘나’라는 존재가 무한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흙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일”이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 생과 사를 넘나들었던 유년기의 경험을 현기영은 훗날 ‘잃어버린 고향’ 함박이굴의 막막하고 원초적인 어둠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181) 정호웅은 김동리와 박영준 등의 소설을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와 소박한 휴머니즘으로 특징지었다. (『50년대 소설론』, 『1950년대 문학연구』, 도서출판 예하, 1991, 43~48쪽) 현기영은 김영돈을 회고하는 글에서 그의 서가에서 이상, 김유정, 김동리, 황순원, 오영수, 안수길 등의 소설을 읽었고, 그 무렵 창간한 문예지 《현대문학》의 애독자가 되었다(『나의 스승, 김영돈 선생님』, 앞의 책, 60쪽)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현기영은 당시 접하게 된 전후소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은 현기영의 소설가로서 면모가 증조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조부에 대한 기억은 “수염에서 흘러내린 씨늘한 침”, “침방울의 선뜻한 감촉”으로 먼저 다가온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이야기를 들려주던 증조부가 사고로 죽자 외로운 현기영은 기댈 곳이 없어 우울증이 일었다고 고백한다. 이 수필에는 일본 전투기 추락 사건과 핵불을 만들다가 불을 낸 경험 등이 자세하게 서술돼 해방 전후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작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경험은 그의 작품에 투영되기 마련이므로 경험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창작된 이 수필은 현기영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데 의미 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림자와 인간의 속성을 탐색한 수필 「그림자」는 「실어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가의 심미주의적 경향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현기영은 한창 유행이었던 실존주의 문학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다. 《현악》 3집에 수록된 ‘시내 고교 문예애호학생 대설문’에서 그는 숭배하는 문인으로 니체를, 감명 깊게 읽은 작품은 카뮈의 「이방인」이라 답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좌절과 저항의 기록으로서의 우리가 살펴본 어떤 작품보다도 탐구적이었다”<sup>182)</sup>는 평을 받은 대학 시절 작품 「산정을 향하여」는 현기영의 창작 도정에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첫 소설이다. 방학을 맞아 한라산을 등산하던 화자는 예정된 숙소에서 석장의 사진과 대학 노트 한 권과 마주하게 된다. 소설은 노트에 쓰인 세 남녀의 실패한 사랑에 관한 수기가 주를 이루는 액자식 구성으로 쓰였다.

소설 도입부터 눈에 띄는 것은 서울과 한라산의 대비이다. 서울을 실패의 공간으로, 한라산을 재기의 공간으로 설정한 후 한라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작중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수기의 주인인 ‘나’(희철)는 정희와 계획자매와의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로 정희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폐병에 걸린 계획을 사랑한다 여긴다.

정희와 헤어진 후 한라산을 오르던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예회에서 연극 ‘맥베스’로 무대에 오른 일을 떠올린다. 공연 중 상대 배우의 머리를 내리치다 상처를 입게 된 그가 학교를 빠져나와 바닷가로 달리기 시작한다. 뒤따라온 정희와 계획을 마주한 ‘나’는 계획에게 사랑을 느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닷가로 달리기 시

182) 정명환, 「자기통제가 필요, 진지하지만 차분한 스타일」, 《대학신문》, 서울대학교대학신문사, 1965. 3. 22. 5면.

작한 ‘나’와 뒤따라오는 자매 사이에 ‘나’의 부모가 죽는 기억이 삽입된다는 것이다.

공비들은 우리 세 사람을 조준하였다. 나를 조준한 어른의 상의에 꽂힌 낫수칼. 너 무 희극적이어서 웃어버렸다. 그때 내 흰 이가 석양을 받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 빛은 나를 조준한 공비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리고 총성이 요란하게 대기를 흔들었다.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불렀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황혼 속에 나 홀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내 나이 여섯 살.<sup>183)</sup>

‘나’의 부모가 죽는 장면이 삽입된 이유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sup>184)</sup> 연극을 보러 찾아온 여느 부모들과 달리 연극의 사고로도 나를 찾지 않는 부모의 부재와 상대 배우 머리를 내려친 ‘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3을 연상시키는 장면은 세 남녀의 실패한 사랑에 치우친 나머지 전체 서사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나’의 부모는 한라산 자락에서 ‘공비’에 의해 죽었다. “어른의 상의에 꽂힌 낫수칼”은 무장대 총책이었던 이덕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4·3 담론화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현기영의 4·3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기영의 4·3 소설의 시발이자 그의 등단작인 「아버지」와 「초혼굿」의 예비단계라 말할 수 있다. 이전까지 그가 창작해 온 소설은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삼았다. 그는 「산정을 향하여」에서 제주 젊은이들의 사랑과 한라산을 서사 전면에 내세우고 4·3을 연상할 만한 장면을 삽입하는 등 중·고등학교 습작기를 확실히 뛰어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의 창작의 도정에서 「산정을 향하여」가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현길언(1940~2020)은 남제주군 남원면 수망리에서 태어났다. 1946년 의귀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4·3으로 1948년 가을 남원리로 소개하여 남원국민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곳에서 무장대의 습격을 받았다. 4·3으로 스물도 안 된 두 삼촌이 무장대가 되었고<sup>185)</sup>, 할머니는 무장대들의 습격으로 희생당했다. 이때부터 남원교회 주일학교에

183) 현기영, 「산정을 향하여」, 《대학신문》, 서울대학교대학신문사, 1965. 4. 19. 8면.

184) 정명환은 작은 그릇에 너무도 많은 것을 담으려는 욕심이 상황과 논리의 전개를 방해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자기통제가 필요, 진지하지만 차분한 스타일」, 앞의 기사.

185) 1987년에 초판 발행 후 1992년 제6판으로 발간한 『우리시대 우리작가29 현길언』(동아출판사)과 2005년에 발간된 『주변인의 삶과 문학』의 작가 연보에서 4·3으로 희생된 두 삼촌에 관한 서

다니기 시작했다. 1951년 고향 마을이 복구되면서 수망리로 돌아왔으나 1년 동안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다. 1952년에 오현중학교에 입학해 문학 지망생이자 국어교사인 김영돈을 만나 문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1955년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자 사범학교에 진학했다. 오현중학교와 제주사범학교 동기인 전현규와 각별하게 지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제4회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백치의 장」이, 제2회 제주문화제 문예현상에 「종말」이 입선됐다. 산문 「섬」으로 제2회 제주문화제 문학올림피아 장원에 뽑히기도 했다.

1958년 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결성된 ‘제주문학인협회’ 소설분과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해 10월 광양국민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았다. 1959년 제주대학 야간부 국문과에 입학한 후 문덕수를 만나 소설공부를 이어나갔다. 1960년 제주대학 개교 8주년을 기념하여 국어국문학회가 주최한 현상문예에 소설 「체온」<sup>186)</sup>이 당선됐다. 문덕수를 통해서 김동리에게 작품을 보냈는데, 몇 달 후 다른 작품 추천 평을 하면서 보낸 작품이 거론돼 매우 고무되었다. 같은 해 12월 《제대학보》에 소설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발표한다. 1961년 입대하고 이듬해 군 복무를 마친 후 제주동국민학교에 복직 발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사범학교 후배인 교사 김병옥을 만난다. 1963년 제주대학에 복학한다. 1964년 「호오이」와 「소리가 그치다」를 발표한다. 1965년 3월 제주대학을 졸업하고, 12월에 「귀향」을 발표한다. 1966년 성균관대 대학원 국문과에 입학한 후 1966년까지 그가 발표한 소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면서 작품 쓰기를 미루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67년 오현고등학교에 부임하고 그해 12월 김병옥과 결혼했다. 당시 발표한 그의 소설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와 「바다」가 있다. 1968년 「박씨전과 민간설화의 관계」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제주시내 고교 연합 문예 서클 ‘향원’을 지도했다. 그해 「호오이(Ⅱ)」, 「바다 2」, 「전설」에 이어 1969년 「신장개업하는 마을」과 「정원풍경」, 1970년 「유자꽃」, 「질식사」, 「장군의 귀향」을 발표했다. 1971년 제주제일고등학교에 부임한 후 이듬해 제주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 기간에 발표한 소설로는 「목련 꺾어지다」, 「유산」, 「독고장군전」, 「아무래도 어긋나기만 하다」, 「죽어 고향에 묻히리」, 「바람이 분다」, 「등애(비맹)」 등이 있

술 태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자에서는 “4·3사건 때에는 스물도 안 된 두 삼촌이 미처 소개를 못하여 공비가 되었”(407쪽)다고 기술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4·3사건 때에는 스물도 안 된 두 삼촌이 미처 소개를 못하여 무장대로 몰려 죽었”(95쪽)다고 기술한다.

186) 「체온」은 월간으로 간행되던 《제대신보》에 5회에 걸쳐 연재된다.(1960. 7. 5.~1961. 4. 20.)

다. 현길언은 1972년 8월 재발족한 '제주문협'의 소설분과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초대 감사와 제2대 부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소설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석좌' 동인 활동에서 전술했듯이 1975년까지 발표한 소설로는 1973년 「전설」, 「건달게」, 「무덤고 긴 여름」, 1974년 「괴서기」, 「열아홉 살」, 「무덤고 긴여름 2·3」, 1975년 「무덤고 긴여름 4」, 「상흔」, 「곤혹」이다. 현길언은 1979년 7월 그동안 썼던 작품들을 정리하여 몇 편을 《현대문학》에 투고한다. 1976년부터 《현대문학》에 투고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발표한 작품으로는 1976년 「기권을 해요」(《제주문학》 제5집), 1977년 「빙의」(《제주문학》 제6집), 1978년 「말젯삼촌」(《제주신문》 7.4.~17/11회 연재), 「다락일기」(《제주문학》 제7집), 1979년 「대변인과 교도주임」(《교육제주》 제39호)이 있다.

현길언은 《현대문학》에 이범선의 2회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는데 1979년 7월 「성 무너지는 소리」로 초회 추천을 받고 1980년 6월 「급장선거」로 추천 완료되었다. 그가 등단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발표한 소설<sup>187)</sup> 중 연구자가 확인한 작품은 모두 32편<sup>188)</sup>에 달한다.

학창시절에 발표한 「백치의 장」과 「종말」은 1960년 제주대 개교 8주년 기념 현상 문예 모집에 당선된 「체온」으로 이어진다. 「백치의 장」의 경우 4쪽이 낙장 되는 바람에 소설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개작 개고 한 소설에서 그의 창작 의도와 습작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백치의 장」은 《석좌》(1957)와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1959), 《돌다리》(1960)에 세 번에 걸쳐 발표됐다. 《석좌》에서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개작이 이루어진다. 이는 전국 남녀 학도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투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손을 본 것으로 짐작된다. 전자에서 5개의 장으로 소설을 구성했다면 후자에서는 X 표시로 구분하여 7개의 장면으로

187) 방선미는 현길언의 등단 전 초기소설을 4·3을 다룬 것과 제주와 제주민,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등단 후의 소설과의 관계를 밝혔다. 당시는 「체온」이 발굴 전이라 반영되지 않았고, 1973년에 간행한 《제주도》 제58호를 1979년에 발간한 것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현길언의 등단 전 소설인 「전설」이 누락되었다. 「귀향」(《연수》 제53호, 1965), 「아무래도 어긋나기만 하다」(《교육제주》 제16호, 1971)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변인과 교도주임」의 경우 등단 이후 도내 기관지에 발표한 작품으로 보았는데 현길언의 초회 추천이 이루어진 시점이 1979년 7월이므로 1979년 4월에 발표한 「대변인과 교도주임」 역시 등단 전 초기소설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

188) 동일한 기관지에 수록된 「바다」와 「바다 2」는 이어지는 작품으로 한 작품으로 보았다. 「독고장군전」 역시 같은 이유로 한 작품으로 간주했다. 4회에 걸쳐 연재한 「무덤고 긴여름」의 경우 작품 말미에 “《제주문학》 창간호 「등애」의 속편이며, 전작장편(全作長篇) 중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는 바 같은 작품으로 보았다.



구성했다. 서사가 축소 생략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등 구성상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설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소설의 주제를 명확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현길언은 「백치의 장」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제하는 세계를 발견했다면 「종말」에서는 끊임없이 배제당하는 개인에 주목한다. 즉 그의 문학적 시발점은 폭력적으로 배제를 일삼는 세계와 부적응자의 공동체 복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길언이 발견한 이 문제는 그를 소설가의 길로 걷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당시 선후평을 살펴보면 ‘상철’이라는 창백한 인텔리의 전략 과정을 관념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행동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한데 이는 애초에 서투른 세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89)</sup> 아직 학생 신분이라 부조리한 현실 세계를 다루기에 역부족일 수 있으나 현길언은 이 세계를 소설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창작 도정에서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 《돌다리》에 수록되는 과정에서는 단어와 문장의 수정만 가해질 뿐 전반적인 외형적 변화는 없다. 세 번의 개작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길언은 자신의 작품을 끊임없이 퇴고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성실한 작가이다.

「백치의 장」과 「종말」에서 1950년대 혼탁한 사회와 전후(戰後) 상이군인으로 대표되는 부적응자의 공동체 복귀 문제를 다뤘다면 「체온」에서는 나병에 걸린 R여고의 국어교사 ‘나’의 공동체 복귀 문제를 다룬다. ‘나’는 제자 순아와 연이의 흠모를 받을 만큼 인정받는 교사지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서 아내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다. 배고픔에 들어간 집에서 제자 순아를 만나지만 그녀는 그를 내쫓기 위해 돈을 던지며 매몰차게 외면한다. 이틀에 걸쳐 화병에 꽃을 꽂아주던 제자 연이도 길에서 우연히 만나지만 “쳇 재수없게. 문둥이가 지랄이야. 돈을 뜯으려고 별 수작을 다 거는군.”하며 표독스럽게 바라보곤 돌아선다. 나는 우연히 종로3가에서 성매매하는 아내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아내는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품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나’는 그녀를 이전의 아내와는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순아가 나를 쫓기 위해 던진 돈뭉치를 순아의 얼굴에 던졌지만, 아내의 ‘체온’을 사기 위해 도로 그 돈을 가지고 나온다.

「백치의 장」의 상철과 「체온」의 ‘나’는 교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차이라면 상철은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고, ‘나’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다. 하지만 ‘나’의 재산은

189)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출판국, 1959, 145쪽.

아내가 모두 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상철보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소설은 그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백치의 장」과 「종말」에서 부적응자의 표식으로 상이군인의 훼손된 신체를 사용했다면 「체온」에서도 훼손 원인만 달라질 뿐 여전히 훼손된 신체를 사용한다. 하지만 「체온」에 와서 현길언의 서술 태도가 달라진다. 「백치의 장」이 부적응자를 생산하는 부조리한 세계의 발견이라면 「종말」은 끊임없이 거부당하는 무력한 개인에 주목한다. 그들은 세계에 대항하지 못하고 신의 가호 안에서 고통을 잊을 뿐이다. 하지만 「체온」에 와서는 문둥병 환자 교사에게 ‘나’라는 일인칭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제자 ‘순아’로 대표되는 불완전하고 부조리한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모순의 세계에 대항하며 흠집을 낸다. 「백치의 장」과 「종말」에서 이어져 온 순수성에 대한 작가의 고집은 「체온」에 와서도 유지되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더 구체화 된다. 순수의 세계는 조건 없이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동일시되고 다시 문둥이 자신을 품어주는 아내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곧 순수성으로 대변되는 이상적인 세계는 어머니의 품과 아내의 체온으로 등치된다. 이는 ‘나’에게 던진 순아의 돈을 줌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순수의 세계로 진입하는데에도 자본의 힘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역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운동주의 「서시」 중 일부로 시작하는 현길언의 「체온」 당선 후기 제목은 ‘속죄작업’이다. 그는 “인간으로 어찌다 세상에 태어난 것에 기쁨보다 빠져린 슬픔만을 위으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기쁨을 안고 살 때까지 가난한 ‘작업’이라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저의 속죄의 길입니다.”고 당선 소감을 밝힌다. 이후 4·3을 소설화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발표했다는 점은 각별하다. 현길언의 소설 세계는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전까지 기성 문인의 영향을 받아 소설을 창작했다면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를 시작으로 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제주를 소설 안에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4·3으로 희생된 삼촌과 할머니의 가족사를 연상시키는 「열아홉 살」을 비롯해 등단 이전에 10편 이상의 4·3 소설<sup>190)</sup>을 창작했다. 그의 4·3 소설은 4·3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유년기 체험 세대의 한

190)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호오이」, 「소리가 그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전설」(1968), 「신장개업하는 마을」, 「유산」, 「전설」(1973), 「열아홉 살」, 「상흔」, 「곤혹」 등이 있다.

계를 보이지만 “4·3 담론화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공식역사의 후면에 존재했던 무고한 제주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sup>191)</sup>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그의 성과다. 현길언은 해녀를 비롯한 제주 농민, 재일제주인 등 제주민을 서사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시선에 포착된 제주 이야기<sup>192)</sup>를 소설화한다. 현길언의 소설의 시발점이었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부적응자를 다룬 소설<sup>193)</sup> 역시 계속해서 발표되는데 더 이상 훼손된 신체를 부적응자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현길언은 《제주신문》를 비롯해 지역의 신문과 기관지, 문예지들을 통해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는데, 위의 소설 외에도 동화와 수필도 다수 발표하였다.<sup>194)</sup> 그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창작함으로써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겠다는 《석좌》 발간 취지를 실천한 것이다. 그는 등단 전까지 제주를 창작의 실험 무대로 활용했으며, 제주 문학 사회 역시 그를 작가로 인정하는 등 제주 문학을 풍성하게 만든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전현규(1940~1993)의 문학적 삶은 무척 짧은 편이나 제주 출신 중 선구적으로 4·3 소설을 썼다<sup>195)</sup>는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작가다. 그는 제주시 외도1동에서 태어났다. 1952년에 오현중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동료 현길언, 교사 김영돈과의 교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아내 이초혜는 남편과 현길언이 각별한 사이였다고

191) 방선미, 앞의 논문, 182쪽.

192) 해녀를 다룬 소설로는 「호오이」, 「호오이(II)」, 「바다」 등이 있고, 재일제주인을 다룬 소설로는 「죽어서 고향에 묻히리」를 들 수 있다. 「호오이(II)」와 「건설」(1968)은 제주 설화를 활용해 소설의 주제를 강화했다. 「건달개」와 「피서기」 등에서는 제주개발과 관광도시로 변하는 제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았다.

193) 부적응자를 다룬 소설로는 「체온」, 「정원풍경」, 「질식사」, 「목련 꺾어지다」, 「아무래도 어긋나기만 하다」, 「기권을 해요」, 「빙의」, 「다락일기」 등을 꼽을 수 있다.

194) 방선미는 1960~1970년대 발표한 현길언의 소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공식적인 등단을 하기 전의 작품이라는 점과 발표 지면의 한계에서 찾았다. 방선미, 앞의 논문, 177쪽. 이 논문에서는 표기상 단순한 오기들이 발견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오류를 바로 잡는다. 현길언의 생몰 연도는 ‘1940~2019’(168쪽)이 아니라 1940~2020년이다. 「체온」의 당선 시기는 ‘1959년’(172쪽)이 아닌 1960년이고, 현길언이 회원이었던 도내 문학단체는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173쪽)가 아니라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이다. 제주문학동호인회의 결성 시기는 ‘1950년’(173쪽)이 아닌 1956년이다. 1972년에 창간한 도내 문예지는 ‘《제주작가》’(177쪽)가 아니라 《제주문학》이다. 1968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로 인준받은 단체는 ‘한국문인협회’(173쪽)가 아니라 ‘제주문인협회’이며 제3대 회장은 ‘강원’(173쪽)이 아니라 강통원이다. 현길언이 감사와 2대 부지부장을 맡았던 단체는 ‘제주문학협회’(173~174쪽)가 아니라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제주문인협회)이다.

195) 「석좌」 동인의 행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현규의 「4·3아」(1964)보다 현길언의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1960)가 제주 출신의 4·3 소설 발표 시기 면에서 앞선 것을 확인했다. 물론 현길언 소설의 경우 주로 대학에서 교내 소식이나 학술 논문, 연구, 조사, 보고 등을 실는 ‘학보’에 발표한 것이라 대중적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증언했다.<sup>196)</sup> 1955년에 제주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이즈음 전현규는 제주지역에서 실시한 문예현상과 백일장은 물론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예현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소설과 수필 부문에서 두각을 보인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상한 소설로는 「해후」, 「산」, 「오메터」, 「소년상」, 「탈의」 등이고, 수필로는 「섬」이 있다.<sup>197)</sup> 이 중 「오메터」는 1957년 12월 20일부터 ‘문화제문예부당선우수작’이란 안내와 함께 《제주신문》에 5회에 걸쳐 연재됐다. 1958년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같은 해 8월에 결성된 ‘제주문학인협회’에서 아동분과 회원으로 활동한다.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했으나 중도 포기한 그는 1961년 제주시 봉개국민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았다. 1961년 7월부터 육군 보병으로 1년간 복무하고 1962년 8월에 봉개국민학교에 복직한다. 1963년 수필 「비극적」을 《제주도》 10호에 발표했다. 1964년 9월에 제주동국민학교로 부임한 후 11월에 4·3 소설 「4·3아」를 《제주도》 17호에 발표한다. 1966년 같은 학교에서 만난 동료 이초혜와 결혼해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1966년 9월 10일부터 《제주신문》에 동화 「관덕정의 돌할아버지」를 연재했다. 같은 해 10월 수필 「계절의 감각」을 《제주도》 27호에 발표했다. 1967년 2월 전현규는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로 올라간 그는 세광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해 신라출판사를 설립하고 바둑과 취미 관련 책을 번역, 출판하는 일에 주력했다. 같은 해 11월에 소설 「구혼기」를 《제주도》 17호에 발표했다.

전현규는 학창시절 창작의 주요 제재였던 ‘한국전쟁’과 ‘4·3’을 성인이 되어서도 붙잡아 창작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차이점이라면 그의 시야가 한국전쟁과 4·3 당사에서 전란 이후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4·3아」는 전현규의 창작 도정에서 4·3을 소재로 창작한 두 번째 소설이자 성인이 된 후 발표한 첫 번째 소설이다. 「소년상」이 4·3 당시를 소설화했다면, 「4·3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3 때 태어난 ‘4·3 아동’을 작품 전반에 내세워 4·3 이후의 문제를 조명했다. 벽지 산골의 국민학교에 발령받은 젊은 교사 석이 4·3 때 태어난 3, 4학년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는 과정을 다룬 이 소설은 사태의 와중에 다른 남자에 의해 태어난 김경식이 부모의 폭력과 방임 속에 성장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렸다.

196) 2022년 10월 2일 전화로 전현규의 학창시절과 이후 행보에 관해 전해 들었다.

197) 전현규의 소설 「해후」와 「산」 그리고 수필 「섬」은 찾기 힘들다. 대외적으로 입상한 제주사범학교 학생들의 문예작품들을 모아 발간한 《돌다리》 제1집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편집후기에 서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전부 수록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어느 국민학교를 가나 연혁이란 게 똑같지 않은가? 큰 학교 몇을 제외하고는 해방을 전후하여 생겼고, 四·三 사건에 불태워 원조물자로 다시 지었고.

그러나 그는 신입교사답게 음전히 서서 교장의 펜대 끝을 주시했다.

학급편제는二个 학년의 복식수업. 이상하게도 일학년과 육학년의 학생 수가 많고 중간학년일수록 적다.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가 많아 피라미처럼 짜여지는 게 보통인데도.

“이렇게 삼, 사학년의 학생 수가 적은 원인은 애들이 바로 四·三 아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에 태어난 애들이란 말씀인데 육학년의 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드래도 이 고장 주민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四·三 아동들이라, 비극 영화의 씨인을 볼 때처럼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 년에 추억이 겨우 몇 번 다닌다는 산골엘 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절실히 느껴지며 악몽 같던 지난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의 방으로 정해진 숙직실에서 그는 술을 마셔야 했다. 오징어 다리를 뜯으며 별로 마셔보지 못한 독한 소주를 마구 들이켰다. 환영한다는 의미를, 잘해 보자는 의미를, 가족적이라는 의미를, 그 통속적인 의미들을 그는 별다른 감동 없이 그저만 들이마셨다. 그러나 좀체 취해 오르지 않았다. ‘四·三 아동’이란 어휘가 무거우게도 그의 뇌리를 맴도는 것이었다.<sup>198)</sup>

「4·3아」는 4·3 당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소가 학교라는 것에 주안점을 찍고, 4·3이 종료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의 중산간 마을과 학교의 상황을 형상화했다. 해방을 전후하여 세워진 많은 국민학교가 4·3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원조물자로 다시 지은 학교 역시 일 년에 담임이 서너 차례 바뀌고, 두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복식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학년별 학생 수의 변화양상은 4·3의 피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학생 수가 많은 여느 학교와 달리 1학년과 6학년의 학생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3, 4학년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상황은 4·3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드러낸다. 운동장에 모래판을 만들기 위해 흙을 파다가 발견한 ‘타다 남은 보리’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했던 강경진압작전<sup>199)</sup>을 환기한다.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된 중산간

198) 전현규, 「4·3아」, 《제주도》 제17호, 제주도, 1964, 218~219쪽.

199)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강경진압작전이 시행됐다. 이때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불에 타 사라졌다. 11월 중순 이전에는 주로 젊은 남성들이 희생된 데 반해 강경

마을 초토화 작전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남에게 빌려줄 방 하나 없을 정도로 피폐화시켰다. 온마을 청년들이 거의 몰살당해 같은 날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는 마을의 풍경은 흡사 명절을 연상시킬 정도이다.

이 소설은 사태의 와중에 다른 남자에 의해 태어난 아이, 김경식을 통해 4.3의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경식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석의 직장 동료인 김선생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을 찾아와 생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댄다. 김선생이 세 들어 사는 집의 남자 주인은 폭도들의 우두머리로 토벌 작전에 희생됐다. 당시 경식의 아버지는 우익으로 몰려 마을에 얼씬하지 못한 채 피해 다녀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이즈음에 경식이 생겨난 눈치다. 다시 말해 경식은 4.3의 무자비한 폭력의 결과물이요, 희생물인 셈이다. 점잖았던 경식의 아버지는 4.3 이후로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술망나니로 변해버렸다. 경식의 존재는 그의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4.3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식 역시 4.3의 희생자지만 소설 속 그 누구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데 있다. 교사 석에게 위안을 얻던 경식은 그에게 영장이 나온 소식을 듣고 오열한다. 결국, 부모의 방임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가출한 경식을 석이 우연히 만나 헤어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벽지 산골의 초등학교는 전현규의 첫 근무지였던 봉개국민학교로, 그곳에서의 근무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4.3아」는 중산간 마을과 학교의 상황을 통해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한 4.3의 상흔을 차분한 어조로 그려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탈의」와 「오메터」가 한국전쟁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면, 「구혼기」는 전쟁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념의 문제와 공동체 복귀의 (불)가능성을 형상화한 「탈의」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한 주인공의 월남 실패를 다룬 「오메터」<sup>200)</sup>와 달리 「구혼기」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군상들을 그렸다. 편지 형식으

---

진압작전 때에는 토벌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총살함으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이때 희생됐다. 신고된 희생자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 전체 어린이 희생자 중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의 희생자가 76.5%를 차지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293~294쪽.

200) 소설 「오메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한 열여섯 살의 인수가 주인공이다. 그는 동료 김상사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하지만 낙오하고 만다. 휴전으로 북에 고립된 인수는 외딴 마을 순이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자신의 존재가 순이네 가족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남쪽으로 향한다. 인민군의 눈을 피해 휴전선을 넘으려고 시도를 하지만 5m 앞에서 총상을 입고 만다.

로 쓰인 이 소설은 미국 캘리포니아 코로라도 출신 군인인 ‘나’가 한국인 매춘부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다. ‘나’는 미군 부대의 유류창고가 털린 사건을 빌미로 바의 종업원들에게 횡포와 폭력을 일삼는 지아이에게 용감하게 대항하는 창부 엘리제의 모습에 반한다. 그는 가난 때문에 몸을 파는 한국의 여성을 비굴하다고 여겼지만, 엘리제와 가까워지면서 이들을 이해하게 된다. 메리로 대표되는 부대 주변의 여성들은 미군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녀들에게 폭격에 다리가 잘린 오빠와 반신불수인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녀들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뿐이라 말한다.

전현규는 「구혼기」를 통해 최고의 정숙을 상징하는 ‘열녀문 신화’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인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란 것이 실은 외족의 침략과 속박에 시달린 시간이었으며 그때마다 성에 굶주린 병사들의 제물이 되었던 한국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작자는 피식민 국가를 내면화하는 한국의 실상을 강하게 비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현규는 학창시절의 작품과는 달리 4·3과 한국전쟁을 다루면서 당대의 상황과 결부시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작품에 녹여내고자 시도한다. 이와 더불어 그의 또 다른 변화로 동화 창작을 들 수 있다. 「관덕정의 돌할아버지」는 고아나 다름없는 수돌이를 주인공으로 한다. 기억에도 없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한 아주머니 뒤를 쫓다가 쓰러진 수돌이를 순이네 가족이 보살핀다. 수돌이의 건강은 회복되지만, 순이 아버지 회사가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단힌다. 남편의 폭력에 집을 나간 어머니와 소식 없이 먼 곳으로 떠난 아버지, 돌봐주던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주인공의 설정과 수돌이의 이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덕정, 칠성통, 원정통거리, 동문로터리 등의 지명 등은 전란이 끝난 10여 년 후에도 해체된 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제주의 아동들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순이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 모두가 우는 것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은 것은 동화의 특성상 적절한 마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동화의 제목이기도 한 ‘관덕정의 돌할아버지’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동화 연재를 급작스레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sup>201)</sup> 1968년 3월 수필 「관광이전」(《북제주》 57호)을 끝으

201) 1966년 9월 17일, 24일, 10월 8일, 15일, 29일, 11월 12일, 26일까지 8회에 걸쳐 연재된다.

로 그의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현규는 서사를 끌어가는 힘이 있으며, 한국전쟁과 4·3에 천착한 소설을 발표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소설창작을 접은 전현규는 비록 문학 활동 기간은 짧지만, 제주 문학사에서 놓치면 안 될 작가라고 본다.

현기영, 현길연, 전현규에게 공통으로 발견되는 점은 학창시절 기성 문인의 영향을 받아 소설 어법을 익혔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이를 극복하고 제주를 창작의 주요 제재로 삼으면서 제주 문학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는 것이다.

현기영은 학창시절 기성 문인의 전후소설의 영향을 받아 ‘한국전쟁’을 창작의 주요 제재로 다뤘으나 대학 시절에는 제주 젊은이들의 사랑과 한라산을 서사 전면에서 내세우고 4·3을 연상할 만한 장면을 삽입하는 등 4·3과 제주를 작품화하기 시작한다. 현길연 역시 학창시절 기성 문인의 영향을 받아 전후(戰後) 혼탁해진 한국사회를 조명하는 소설을 창작하다가 대학생이 된 후 4·3을 소설화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를 자신의 문학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양상을 보인다. 전현규 또한 학창시절에는 기성 문인의 전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고향 상실과 인간의 분열을 그린 소설을 발표하거나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4·3 소설을 발표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4·3 이후의 제주를 탐색하며 소설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석좌’의 결성 취지가 이들의 창작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주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이들이 등단 전까지 발표한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학생 동인 ‘석좌’ 안에서 품었던 문학관은 이들에게 제주를 창작의 주요 제재로 삼으면서 제주 문학의 기반을 튼실히 다질 주체로 성장하게 했다. 이들은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석좌’의 첫 마음을 실현해낸 것이다.



## VI. 결론

이 연구는 제주 학생 동인 ‘석좌’가 결성된 배경과 취지, 동인 구성 및 활동 등을 확인하고 그동안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석좌》를 발굴해 그 전모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석좌’의 탄생 배경이 되는 전란 후 제주 사회의 변화와 제주 문학기 동향을 살핀 연후에 제주 학생 문단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1950년대 제주 학생 동인과 동인지를 정리했다. 아울러 ‘석좌’ 동인의 결성 배경과 취지, 동인 구성 및 활동 등을 추적하고 제주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좌》 제1집과 제2집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해보았다. 동인지 두 권에 수록된 작품들을 4.3과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과 제주(섬)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을 나눠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설 장르에서 문학적 성과를 거둔 현기영, 현길언, 전현규의 학창시절 창작한 작품부터 등단 전까지의 작품 활동을 정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좌’는 1956년 4월 제주시내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돌’로 상징되는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결성한 동인이다. 당시 문학청년이었던 김영돈의 중학교 제자들이 구심이 돼서 1957년 7월 《석좌》 제1집을 간행했다. 제호는 현기영이 지었고, 오현고등학교의 김철희, 현기영, 홍희구, 제주상업고등학교의 고치문, 장순용, 제주사범학교의 전현규, 현길언 등 7명이 제1집 간행에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제2집을 발간할 때에는 오현고등학교의 홍권홍이 참여해 모두 8명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서로 같이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회원 구성의 변화가 생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좌’를 거쳐 간 동인은 고치문, 김광협, 김철희, 박호길, 손춘, 장순용, 전달문, 전현규, 정영택, 조진춘, 현기영, 현길언, 홍권홍, 홍희구 등 14명이다. ‘석좌’의 동인 활동은 학생 동인에서 성인 동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변화한다. 학생 동인일 때는 동인지를 발간하고, 문인 초청 좌담회 등 도내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백일장 및 문학작품 공모에 투고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면, 성인 동인이 되어서는 당시 발표된 문제작을 중심으로 작품 합평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작 공부에 열을 올렸으며, 작품 현상모집과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제주의 문화 기반을

다지는 주체로 성장했다. 또한, 신문과 기관지 등 지역 매체에 작품을 활발하게 발표하면서 제주 문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석좌’의 활동 시기는 적어도 1975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던 《석좌》는 2009년 12월 현길언의 기증으로 현재 제주교육박물관이 창간호와 제2집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석좌》는 1957년 7월 26일에 제1집이, 같은 해 12월 25일에 제2집이 발간됐다. 《석좌》 제1집의 판형은 18.3×24cm이며, 지질은 갠지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여있으며 가로쓰기로 좌우이단 편집된 등사본이다. 김택화가 표지를 비롯한 삽화를 그렸다.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쪽수는 71쪽이나 5쪽부터 8쪽까지 4페이지가 낙장 됐다. 마지막 장에 편집후기와 간기, 우리의 맹세가 수록되어있다. 발행인은 ‘石座클럽’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소설 4편과 수필 7편이 실려있다. 등사기용 철필을 잡는데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글씨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편집 또한 산만하다. 《석좌》 제2집의 크기는 17.7×24.7cm이고 지질은 갠지, 등사본이다. 제호를 서예가 현중화가 썼다. 표지 그림과 삽화가 없는 대신 표지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 참여 동인 이름과 수록 작품이 쓰여있으나 실제 수록된 작품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국한문혼용체로 쓰였으며 세로쓰기의 상하 이단 편집으로 제작되었다. 표지를 제외한 내지의 분량은 70쪽이다. 희망프린트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글씨가 정갈하고 편집이 안정되었다. 보관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현길언의 「종말」이 끝나는 자리에 우리의 맹세가 놓이고, 마지막 장에 편집후기인 여적과 간기가 위치한다. 발행인은 ‘石座同人’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시 2편과 소설 7편이 수록됐다.

《석좌》에 수록된 작품 중 4·3과 한국전쟁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과 제주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4·3을 주요 제재로 다룬 작품으로는 장순용의 소설 「중점」과 전현규의 소설 「소년상」을 들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4·3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입체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단계’에 창작된 작품들이 갖는 특징이다. 하지만, 4·3이 금기의 영역이었던 시대 상황과 창작자가 4·3을 다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3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설정한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으로는 전쟁 일반의 참혹함을 그린 홍권홍의 시 「종」과 「슬픈 지역」, 현길언의 소설 「백치의 장」과 「종말」, 전현규의 소설 「탈의」, 고치

문의 소설 「꿈」, 현기영의 소설 「꿈」을 들 수 있다. 고향 상실과 가족 해체, 상이군인의 훼손된 신체 등 한국 전후소설에서 강조되는 소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기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김철희의 「계모」와 장순용의 「소리」, 홍희구의 「상여소리」에서 주인공들은 서울(도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상급학교의 진학을 계기로 고향으로부터의 탈주가 시도된다. 이는 개인적인 욕망만을 형상화한 것이라기보다 1950년대 급속히 진행된 도시화와 교육 열풍이라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현기영, 현길언, 전현규를 중심으로 살펴본 ‘석좌’ 동인의 문학적 행보가 갖는 의미는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던 ‘석좌’의 결성 취지가 이들의 창작 도정에서 끊임없이 실천되었다는 점이다. 제주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이들이 등단 전까지 발표한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학생 동인 ‘석좌’ 안에서 품었던 문학관은 이들에게 제주를 창작의 주요 제재로 삼으면서 제주 문학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주체로 성장하게 했다. 이들은 ‘제주를 문학적 기반으로 삼되 지역성에 매몰되지 않는 문학을 실천’하고자 했던 ‘석좌’의 첫 마음을 실현해낸 것이다.

제주 문학사에서 ‘석좌’의 전면적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다층적이다. 제주 출신 작가의 4·3 문학 시발을 알리면서 197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전개될 제주소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학생 문인들의 문학적 열망을 온축하고 있는 동인지 《석좌》는 1980년대 한국 문단의 한 축이 된 현기영, 현길언의 문학적 근간을 밝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석좌’의 문단 진입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문학의 한계를 문단 제도권 밖에서 극복한 제주 문학의 가치를 발견하게 했다. ‘석좌’의 제주 문학 저변 확대라는 성과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발굴한 《석좌》 창간호의 경우 세월과 보관상의 문제로 활자가 지워진 부분이 많고, 낙장된 페이지가 있어서 수록된 작품의 전모를 살피기 어려웠다.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다른 매체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 《굴림》 제2호, 오현중학교학도호국단, 1956.
- 김광협, 「나무 유추법(類推法)」, 《제주도》 제34호, 제주도, 1968.
- , 「동백촌 서정」, 《제주도》 제13호, 제주도, 1964.
- , 「봄의 노동」, 《남제주》 제15호, 남제주군, 1971.
- , 「여자의 행복」, 《제주문학》 제2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3.
- , 「오수록(午睡錄)」, 《제주도》 제16호, 제주도, 1964.
- , 「월라산(月羅山) 진달래꽃」, 《제주도》 제29호, 제주도, 1967.
- , 「제주인송」, 《한라산》 제5호, 재일제주개발협회, 1974.
- , 「환상적(幻想的) 숲」, 《제주도》 제20호, 제주도, 1965.
- 김철희, 「천사가 질투하다」,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3. 3. 25.
- 《녹나무》 창간호, 신성여자중·고등학교, 1957.
- 《돌다리》 제1집, 제주사범학교, 1960.
- 박호길, 「가로수」,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
- , 「겨울의 서곡」, 《제주도》 제10호, 제주도, 1963.
- , 「문」, 《교육제주》 제26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 , 「열도(熱度)있는 밤」,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1. 4. 20.
- , 「조율」, 《제주문학》 제3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 , 「AN/PRC-9」, 《교육회보》 제4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1.
- 《석좌》 제1집, 석좌클럽, 1957.
- 《석좌》 제2집, 석좌동인, 1957.
- 《성좌》, 제주사범학교 문예반, 1958.
- 장순용, 「가을에의 초대」, 《제주도》 제26호, 제주도, 1966.
- , 「산」, 《제주도》 제17호, 제주도, 1964.

- , 「산울림」, 《향림》 창간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59.
- , 「얼굴」, 《제주도》 제29호, 제주도, 1967.
- , 「정점」, 《제대학보》 제2호, 제주대학학도호국단, 1958.
- 전달문, 「무아유희(無我遊戯)」, 《제주도》 제24호, 제주도, 1965.
- , 「서(書)」,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1. 4. 20.
- , 「실향인의 귀향」,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4. 7. 9.
- , 「욕망유곡(慾望類曲)」, 《제주도》 제15호, 제주도, 1964.
- 전현규, 「계절의 감각」, 《제주도》 제27호, 제주도, 1966.
- , 「관덕정의 돌할아버지」,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6. 9. 10.~11. 26/8회.
- , 「구혼기」, 《제주도》 제22호, 제주도, 1967.
- , 「비극적」, 《제주도》 제10호, 제주도, 1963.
- , 「4·3아」, 《제주도》 제17호, 제주도, 1964.
- , 「오메타」,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7. 12. 20.~27/5회.
- 정영택, 「고독한 응시」,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4. 12. 10.~19/9회.
- , 「귀정(歸程)」, 《제주도》 제4호, 제주도, 1962.
- , 「귀향」, 《향림》 제2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60.
- , 「귀향기(歸鄉記)」,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4. 6.~22/13회.
- , 「금간 표정(表情)」, 《남제주》 5-6호합본, 남제주군, 1968.
- , 「금간 표정」, 《남제주》 제7호, 남제주군, 1969.
- , 「기성의 의미」, 《제주문학》 제3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 , 「또 하나의 반역(反逆)」,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0. 1. 7.~17/10회.
- , 「불안한 인간상」, 《향림》 창간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59.
- , 「사설(辭說)」, 《제주시》 제28호, 제주시, 1974.
- , 「상실」,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5. 9. 27.~12. 27/4회.
- , 「시련」, 《제주도》 제47호, 제주도, 1970.
- , 「어떤 관계」, 《남제주》 제18호, 남제주군, 1972.
- , 「어떤 기대」, 《교육제주》 제15호,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0.
- , 「어떤 죽음」,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9. 2.~10. 30/49회.
- , 「우중의 창밖을 향하여」,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2. 4. 30.~12. 8/4회.

- , 「이 진(津)한 비명(悲鳴)을」, 《제대학보》 제4호, 제주대학학도호국단, 1962.
- , 「일상의 권태」, 《(월간)개발제주》 10월, 월간개발제주사, 1975.
- , 「잔영(殘影)」, 《제대학보》 제3호, 제주대학학도호국단, 1960.
- , 「찬란한 햇살」, 《교육제주》 제23호,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3.
- , 「표백(1)」,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62. 9. 16.
- , 「하루」, 《교육제주》 제18호,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2.
- , 「하얀 목마름」,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0. 8. 22. ~11. 6/65회.
- , 「향수」, 《제주문학》 제5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6.
- , 「허(虛)」, 《북제주》 제57호, 북제주군, 1968.
- , 「허(虛)(완)」, 《북제주》 제58호, 북제주군, 1968.
- 《제주문학》 창간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2.
- 《제주문학》 제3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 《제주문학》 제5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6.
- 《제주문화》, 전국문총제주지부, 1957.
- 제주학생문단 별무리모임, 《별무리》, 우생출판사, 1953.
- 조진춘, 「무제」, 《향림》 제2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60.
- , 「바다와의 대화」, 《제주도》 제6호, 제주도, 1962.
- , 「3각(三角)의 주변(周邊)」, 《제주도》 제24호, 제주도, 1965.
- 《진리》, 제주사범학교 학도호국단학예부, 1955.
- 창림동인, 《창림》 제2집, 우생출판사, 1958.
- 최덕교 편찬, 『시의 고향』, 창조사, 1989.
- 『한국학생문학선』 제1집, 학도주보출판국, 1956.
- 『한국학생문학선』 제3집, 학도주보출판국, 1959.
- 《학원》 2권 1호~ 8권 12호, 학원사, 1953. 1.~1959. 12.
- 《향림》 창간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59.
- 《향림》 제2호, 제주중·상업고등학교, 1960.
- 현기영, 「꽃샘바람」, 《신동아》 127호, 동아일보사, 1975.
- , 「동사자(凍死者)」, 《제주문학》 제4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5.
- , 「산정을 향하여」, 《대학신문》, 서울대학교대학신문사, 1965. 4. 19. ~5. 17/9회.

- , 「실어증」, 《문학사상》 39호, 문학사상사, 1975.
- , 「아우에게」, 《소설문예》 제1권 제3호, 소설문예사, 1975.
- , 「어머니와 어머니」, 《현악》 제2호, 오현고등학교, 1955.
- , 「집결소」, 《현악》 제3호, 오현고등학교, 1958.
- , 「초혼굿」,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75. 12. 22.~30/8회.
- , 「행군소리」, 《굴림》 제2호, 오현중학교학도호국단, 1956.
- 현길언, 「건달개」, 《제주문학》 제2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3.
-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 《제주시》 제5호, 제주시, 1967.
- , 「곤혹(困惑)」, 《(월간)개발제주》 12월, 월간개발제주사, 1975.
- , 「귀향(歸鄕)」, 《연수》 제53호, 제주도교육연구소, 1965.
- , 「기권(棄權)을 해요」, 《제주문학》 제5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6.
- , 「다락일기」, 《제주문학》 제7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8.
- , 「대변인과 교도주임」, 《교육제주》 제3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9.
- , 「독고장군전」, 《남제주》 제15호, 남제주군, 1971.
- , 「독고장군전」, 《남제주》 제16호, 남제주군, 1971.
- , 「등애(蜚氓)」, 《제주문학》 제1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2.
- , 「말젯삼촌」,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8. 7. 4.~17/11회.
- , 「목련 꺾어지다」,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4. 23.~5. 12/18회.
- , 「무덤고 긴 여름」, 《교육제주》 제25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3.
- , 「무덤고 긴 여름 2」, 《교육제주》 제26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 , 「무덤고 긴 여름 3」, 《교육제주》 제27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 , 「무덤고 긴 여름 4」, 《교육제주》 제28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 「바다」, 《제주시》 제6호, 제주시, 1967.
- , 「바다 2」, 《제주시》 제7호, 제주시, 1968.
- , 「바람이 분다」,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2. 2. 7.~ 5. 30/94회.
- , 「憑依(빙의)」, 《제주문학》 제6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7.
- , 「상흔(傷痕)」, 《제주문학》 제4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5.
- , 「소리가 그치다」, 《제주도》 제13호, 제주도, 1964.
- , 「신장개업하는 마을」,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9. 10. 20.~11. 5/15회.

- , 「아무래도 어긋나기만 하다」, 《교육제주》 제16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1.
- , 「열아홉 살」, 《제주도》 제62호, 제주도, 1974.
- ,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제대학보》 제3호, 제주대학학도호국단, 1960.
- , 「유산(遺産)」, 《제주도》 제49호, 제주도, 1971.
- , 「유자꽃」,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0. 2. 19.~5. 18/71회.
- , 「장군의 귀향」, 《월간제주》 8월, 월간제주사, 1970.
- , 「전설(傳説)」, 《남제주》 제4호, 남제주군, 1968.
- , 「전설(傳説)」, 《제주도》 제58호, 제주도, 1973.
- , 「정원풍경」, 《제주도》 제41호, 제주도, 1969.
- , 「죽어 고향에 묻히리」, 《제주도》 제52호, 제주도, 1971.
- , 「질식사(窒息死)」, 《제주도》 제45호, 제주도, 1970.
- , 「체온」,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1961. 4. 20/5회.
- , 「피서기(避暑記)」, 《제주문학》 제3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 , 「호오이」,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4. 11. 12.~22/10회.
- , 「호오이(II)」, 《북제주》 제59호, 북제주군, 1968.
- 《현악》 제2호, 오현고등학교, 1955.
- 《현악》 제3호, 오현고등학교, 1958.

## 2. 단행본

-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 ,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한그루, 2019.
- , 『작은 섬 큰 문학』, 각, 2017.
- ,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병택, 『제주예술의 사회사』 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1997.
- 전달문, 『망향유곡』, 선우미디어, 2008.



전달문, 『전달문 시문집』, 순수문학, 1999.

전은자, 『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제주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대학교 60년사』, 제주대학교, 2012.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제3권, 1993.

제주도, 『제주도지』 제6권, 2006.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1979.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제주상업고등학교·제주상업고등학교총동창회, 『제주상고 50년사』, 제주상고 50년사 편찬위원회, 2004.

『제주아동문학40년사』, 제주아동문학협회,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 보고서』, 2008.

중앙학도호국단, 『학도호국단10년지』, 1959.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제주도문학사』,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18.

현기영, 『바다와 술잔』, 도서출판 화남, 2002.

———, 『지상에 순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2003.

현길언, 『아름다운 별 이 지구에서』, 솔과학, 2004.

———, 『우리시대 우리작가29 현길언』, 동아출판사, 1992.

———, 『주변인의 삶과 문학』,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5.

현용준, 『한라산 오르듯이』, 각, 2003.

### 3. 논문·평론·기타

고시홍, 「제주문단사」, 《제주문학》 제13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84.

———,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 『제주문화예술백서』,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제주도지부, 1998.

《굴림문학》 제4호, 굴림문학동인회, 1995.

김경옥,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변천과 그 영향요인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21.

김동오, 「제주도의 상수도사업 통합운영 및 기대효과」, 『저널 물 정책·경제』 7권, 한국수자원공사, 2006.

-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연구회, 2001.
-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백록어문』 제17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2001.
- ,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9.
- 김동윤·정용문, 「동문들의 활동」,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0년 1952~20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2.
- 김미향, 「1950년대 전후소설에 나타난 가족 형상화의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 김성주, 「제주문학 20년/영실천」,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23.
- 김영돈, 「어느 문학 소년에게」, 《현악》 제3호, 오현고등학교, 1958.
- , 「50년대 제주문단 만보(Ⅰ)」, 《제주문학》 제3호,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4.
- , 「사람살이의 바탕을 헤아린다」, 《제주문학》 제31집, 한국문협제주도지회, 1998.
- 김택호, 「오래된 권위에 대한 냉소적 시선-추식 소설론」, 『현대소설연구』 2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 김필남, 「1950년대 국민국가 만들기와 상이군인의 몸」. 『한국문학논총』 제60집, 한국문학회, 2012.
- 김호준, 「이승만정권기 실업교육진흥책의 추진과 그 성격」,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5.
- 문충성, 「제주문학 20년/별무리」,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18.
- 방선미, 「현길인 초기 소설에 나타난 4·3과 제주-1960~1970년대, 등단 이전 소설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7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3.
- 양정심, 「한국전쟁기 제주지역사회의 변동」, 『사림』, 수선사학회, 2009.
- 양중해, 「제주문단의 형성과정」, 《제주문학》 제19집, 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90.
- 오성찬, 「따뜻한 가슴과 자신에게 엄격함-소설가 정영택 형을 추모함」, 《서귀포문학》 제15집, 한국문협서귀포지부, 2004.
- 오승익, 「제주의 전시문화-60,70년대 다방전시 문화 중심으로」, 『삶과 문화』 1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 , 「제주 풍광 속의 화가의 삶과 예술-故김택화 선생」, 『KIMTEKHWA』, 김택화미술관, 2022.
- 오영철, 「영화」, 『제주문화예술60년사』 2권,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이동순, 「‘광주고등학교 문예부’ 활동의 문단사적 의미-『常綠集』과 『光高詩集』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46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 , 「학생 문예지에 나타난 지역문화적 특징-『학생문예』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문학연구』 제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6.
- 이순욱, 「한국전쟁기 부산 지역문화와 동인지, 『영주어문』 제19집, 영주어문학회, 2010.
- , 「정전협정 이후 부산지역 동인지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5.
- ,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 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근대서지학회, 2012.
- 임수정·이혜은, 「1950년대 잡지 창간호에 나타난 반공담론, 『서지학연구』 제70호, 한국서지학회, 2017.
-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8권, 한국도시연구소, 2002.
- 정명환, 「자기통제가 필요, 진지하지만 차분한 스타일, 《대학신문》, 서울대학교대학신문사, 1965. 3. 22.
- 정진상, 「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경제와 사회』 제46권, 비판사회학회, 2000.
- 정영택, 「제주문학 20년/창립,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2. 12.
- 정인수, 「제주문학 20년/문주란,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1. 25.
- 정종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호, 현대소설학회, 2015.
- 정호웅, 「50년대 소설론, 『1950년대 문학연구』, 도서출판 예하, 1991.
- 조지훈, 「국화는 피어도/평, 『시의 고향』, 창조사, 1989.
- 편집부, 「현지 김영돈 박사 연보 및 논저목록, 『한국민요학』 제10호, 한국민요학회, 2002.
- 한정호, 「한국전쟁기 진주의 학생 동인지 《군상》, 『한국지역문학연구』 제2호, 한국지역문학회, 2019.
- 허은,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교환 계획과 한국사회 엘리트의 친미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 현기영, 「꾸준히 노력하겠다, 《굴림》 제2호, 오현중학교학도호국단, 1956.
- , 「나의 스승, 김영돈 선생님, 『삶과 문화』 56호, 제주문화예술재단, 2015.
- 현길언, 「석좌 동인과 남훈, 『전달문 시문집』, 순수문학사, 1999.
- , 「제주문학 20년/석좌,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1. 29.

홍용희, 「재앙과 원한의 불 또는 제주도의 땅울림-「아버지」에서 『지상에 순가락 하나』까지」, 『작가세계』 36, (주)도서출판 세계사, 1998.

이지훈, 「지구촌제주인(3) 이민문학의 선구자 전달문 국제펜클럽 미주지역회장,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2007. 10. 1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17>  
접속일자 2023. 6. 17.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 (「개교 제8주년 기념 현상문예 당선작 발표」)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7. 5. (「문화엽신」)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0. 12. 25. (「<문단소식> 석좌동인회에서 문학의 제야 개최」)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1. 1. 31.(「문화엽신/제6회 작품합평회」)

《제대신보》, 제주대학교신문사, 1961. 4. 20. (「제주출신재경대학생시특집」)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64. 10. 2. (「사고(社告)」)

《제주신문》, 제주신문사, 1971. 1. 21.~3. 1/16회. (「제주문학 20년」)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3. 12. 18. (「제주학생문예지 별무리 제1집 드디어 발간」)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3. 12. 19. (「제주학생문예지 별무리 제1집 드디어 발간」)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3. 12. 22. (「제주학생문예지 별무리 제1집 드디어 발간」)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4. 11. 25. (「학생예술제전/오고주최, 오늘 개막」)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7. 11. 27. (「350명이 참가-백일장, 입선자 결정」)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8. 11. 29. (「문화제/문학 연극 입선자 발표」)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8. 12. 28. (「4291년의 총결산(6)-문화편」)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8. 12. 28. (「「석좌」 제2집 발간」)

《제주신보》, 제주신보사, 1959. 2. 27. (「신간소개」)

JJBS 문화공감 토크콘서트 7부(현기영 편), 2022. 11. 30. 방송.

# Study on ‘Seokjwa’, the Jeju Student Literary Club

Cho, Mi-ky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background, purpos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Jeju student club ‘Seokjwa’ and to discover the 《Seokjwa》, the literary magazine that existed only as a record and reveal the full extent of it.

The club Seokjwa was formed in April 1956 by about 2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to practice literature that uses Jeju, symbolized by ‘stone’, as a literary base but is not buried in locality. Although there wer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members due to graduation and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they continued their activities as adults. There are 14 people who passed through ‘Seokjwa’, including Ko Chi-moon, Kim Kwang-hyeop, Kim Chul-hee, Park Ho-gil, Son Chun, Jang Soon-yong, Jeon Hyun-kyu, Jung Young-taek, Cho Jin-chun, Hyun Ki-yong, Hyun Gil-eon, Hong Kwon-hong, and Hong Hee-gu. A young lover of literature Kim Young-don’s middle school pupils played a central role and published the first and second editions of 《Seokjwa》, and the title was written by Hyun Ki-yong.

It can be said that the period of ‘Seokjwa’ continued until at least October 1975. The activities of ‘Seokjwa’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the student club to the adult club. When it was a student club, its main activities were to publish literary magazines,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in the province, such as discussion meetings with writers, or contribute to writing contests and literary works. As an adult club, it continued to study creative works by focusing

on controversial works published at the time. The club had grown into an entity that led the following literary generation and strengthened Jeju's cultural base by hosting prize competitions and literary night events. In addition, it actively published literary works in loc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institutional magazines, enriching the Jeju literary world.

The first and second issue of «Seokjwa», whose existence was unclear, were confirmed to be currently owned by the Jeju Education Museum with the donation of Hyun Gil-eon in December 2009. The book size of the first issue of «Seokjwa» is 18.3×24cm, and the paper material is coarse woody one. This is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mixed, and is a copy edited from left to right in horizontal writing. The publisher is named as 'Seokjwa Club', and the publication date is July 26, 1957. It contains four novels and seven essays. The size of the second issue «Seokjwa» is 17.7×24.7cm, and it is also made of coarse woody paper and a copy. It is written in mixed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and was produced by editing the upper and lower sections of vertical writing. The publisher is 'Seokjwa Dongin', and the publication date is December 25, 1957. It contains two poems and seven novels.

Looking at the world of «Seokjwa»'s works, focusing on the main topics around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Korean War, and the growth process of youth in Jeju,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First of all, works dealing with the Jeju 4·3 incident as a major topic revealed negative perceptions of the incident and had limitations in not securing a three-dimensional view. This is a characteristic of works created during the 'non-essential and abstract shaping stage'.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 at the time when the Jeju 4·3 incident was a taboo subject and the fact that one of the writers was a high school student who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incident from various angles, their literary courage and initiative are worth evaluating. Looking at the works dealing with the Korean War as a main topic, poems sensibly embodied the horrors of a war in general, and in the case of novels, they critically depicted the characteristics of a war and the absurd s

ociety after it. It can be seen that this was influenced by the works of established writers, as it mainly uses materials emphasized in Korean postwar novels such as the loss of hometown, family dissolution, and damaged bodies of disabled soldiers. Novels depicting the growth process of the Jeju teenagers deny their hometown as a barren and poor place by comparing it with others. The main characters in the novel reveal their desire for Seoul, a big city, when they have to prove their existence. They try to escape from their hometown by entering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reflecting the rapidly progressing urbanization and educational enthusiasm in the 1950s. The hometown they face after returning from their hard life in a foreign place recovers their original comfortable and warm image. However, the strong centripetal force that led them back to their hometown quickly turns it a space of frustration and failure. Those who cannot escape their hometown are eventually forced to jump into the sea, leaving the island behind, a space of failure. It seems that the youth of Jeju at the time conflicted and wandered between these dual images of their hometown.

The meaning of the literary moves of the ‘Seokjwa’, which focused on Hyun Ki-young, Hyun Gil-eon, and Jeon Hyun-gyu, is that the purpose of forming the ‘Seokjwa’ that wanted to use Jeju as a literary base was constantly practiced in their creative process. The attempt to shape Jeju in literature is also evident in the works they published before their literary debut. The literature view, which was held within ‘Seokjwa’, the student’s club, made Jeju the main theme of their creation and made them grow as the main agents of Jeju literature. They realized the first intent of ‘Seokjwa’ that wanted to ‘practice literature that uses Jeju as a literary base but is not buried in locality’.

The appearance of ‘Seokjwa’ in Jeju literary history is multi-layered. This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the future of Jeju novels, which actively developed in the 1970s, announcing the beginning of the Jeju 4·3 incident-based literature by writers from «Seokjwa», which celebrates the literary aspirations of student writers, is also an indicator of the literary foundation of Hyun Ki-young and Hyun Gil-eon, w

ho became one of the pillars of Korean literature in the 1980s. In addition, the value of the Jeju literature was discovered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local literature shown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literary world of 'Seokjwa' outside the existing literary system. It is an incontestable fact that 'Seokjwa' has expanded the base of Jeju literature.